3대째 오로지 전통 수제 작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꼼꼼
빅맨평생통장
■ 비록이 오르면 오른금리로 대입해는 해당금리로!
■ 고객하고 수해하고 걸조식하고 노후생활하고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6월 28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꽃 향기는 역풍을 만나면 사라지지만, 착한 사람의 향기는 역풍을 이기고 사방에 퍼진다.
(법구경)

법회 안내

호입사 (02)803-4779
초하제일법회 매월 1일(음) 입재 매월 3일(음) 회향
약사재일법회 매월 8일(음)
인등법회 매월 15일(음)
지장재일법회 매월 18일(음)
관음재일법회 매월 24일(음)
백중기도 8월4일~8월11일
칠석기도 8월13일~3일

대전 지장암 (042)221-6308
신중기도 매월 1일(음) 입재 매월 3일(음) 회향
문수보현기도 매월 4일(음) 입재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입재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입재
참길청년법회 매주화 오후7시30분

정암사 (0398)591-6925
일반신도 백상희 법회 매월 1 - 15일(음) 오전10시
관음재입기도 매월 24일(음)
청년부법회 매월 1.3주 금 오후7시
학생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30분

동해 삼화사(0394)34-8313
일반신도법회 매월 1일(음)
중고등법회 2·4주 일 오전11시
감룡 관음사(0391)43-2985
동참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강릉방주거사림회 매월 셋째주 토 오후5시
관음사불교청년회 매주화 오후7시
강릉불교청년회 매주 목 오후7시
대학생불교연합회 수 오후6시
불무리회 매주 토 오후6시
고불학생회 매주 토 오후2시
여고사범심회 매월 1일
신중기도 매월 1일~3일(음)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자동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불교의식 통일화 본격 착수

조계종, 통일법요집 편찬위 내달 구성…오·비디오도 제작

사찰마다 제각각으로 진행되는 불교의식이 통일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은 21일 '통일법요집 편찬사업 기획안'을 발표하고 1단계 사업으로 5차에 걸친 편찬준비 세미나에 들어갔다.

포교원이 밝힌 통일법요집 편찬사업기획안에 따르면 99년 최종안 제작을 목표로 1단계 기초조사(95년), 2 3단계 편찬사업(96~97년), 4 5단계 홍보(98~99년) 등 5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7월 중순경 증정스님을 증명법주로 추대하고 원로, 조실, 방장스님을 비롯 불교의식 전문가와 학자를 중심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한다. 편찬위원회는 또한 법회, 불전, 전문, 광생의례, 명절의례, 찬불가, 한글화, 의식장엄 등 8개 분과위원회를 편성, 분과별로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포교원은 통일법요집을 책자는 물론 오디오, 비디오로도 제작하여 사찰을 비롯 각종법회에서 실제 적용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정하고 이후에도 3년 주기로 수정 보완판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일법요집이 완성되면 종단 주요 행사부터 통일법요집에 의거해 시행하고 '대 북한 통일법요집 증정식'도 가질 예정이다.

포교원장 정락스님은 통일법요집 편찬사업에 대해 "현재 한국불교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행의례, 법회의식, 생활의식이 서로 다르거나 경전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 이를 그냥 방치하면 향후 한국불교의 존립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사부대중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불교의식의 정형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불교계에는 〈삼화행도집〉(원운스님지음 80년), 〈통일법요집〉(진흥원편찬 88년)을 비롯 30여종의 법요집이 있으나 통일성과 한글화작업이 부족해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사찰마다 별도의 법요집을 따집기 형식으로 발행하거나 스님, 사찰,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불교의식을 진행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부분 불자들은 조계종 포교원이 추진중인 통일법요집 편찬사업을 환영하며 '중도에 멈추지 않도록 종단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준엽 기자)



정부의 참회 촉구 서 채택했다.

제 117회 조계종 임시중앙종회는 대통령 사과, 관련 책임자 처벌등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대한 종회 결의문을 전원 박수로
(사진=박재완 기자)

진각종 새 통리원장 락혜 대정사 선출

진각종 제24대 통리원장으로 락혜대정사가 선출됐다.

진각종은 지난 20일 총인원 종의회 회의실에서 의회의원 3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98회 임시종의회를 개최, 대구 대명심인당 주교 락혜정사를 새 통리원장으로 선출했다.

최지광 통리원장의 임기가 6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실시한 이번 통리원장 선거에서 2차에 걸친 투표결과 락혜대정사는 21표, 성초대정사는 13표를 얻었다. (인터뷰 7면)

7월1일부터 3년동안의 임기에 들어가는 신임 락혜통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진기 50주년을 맞는 만큼 승단의 화합을 위해 대 내외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식은 오는 30일 오후 1시 진각종 총인원 대강당에서 거행된다.



◇ 세종대 영문과 교수인 프랭크 테데스코씨 가족(부인 임진숙씨 딸 세연양)이 불자가정 스티커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불자 가정' 주문 쇄도

'우리는 불자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스티커 보급운동이 사찰단위로 확산되면서 전국 불자들의 동참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불자가정' 스티커 1천매 제작 보시금은 1십만원입니다. 또한 낱장에 대한 주문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본사는 우편, 전화, 팩시밀리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 즉시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붙이기 동참자

천매이상 △광주 정림사(주지 천문) △운제산 원효암(주지 법열) △일련사(주지 적연) △직지사 운수암(주지 보인) △송원사(주지 본각) △영산법화사(주지 자명) △보륜정사(주지 해공) **천매이하** △성불사(주지 본원) △보현선원(주지 법열) △역곡포교원(주지 등조) △감로사 포교당(주지 현수)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한국불교법상대학 △포교원 심상선원 △보후병원 법당직원 불자회(회장 권영부) △박중철 △박관용 △서유자 △신현관 △장종수 △조용완 △김용철 △김기택 △이윤자 △정병호 △이종화 △고상구 △박현일 △김용진 △서태종 △최정욱 △한상훈 △문연중 △문병욱 △이광순 △손우철 △강희영 △박선희 △박현상 △이석일 △김영만 △권종대 △김계희 (무순)

동참금 입금계좌 안내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 금 주 현대불교신문
전 화 737-8881, 722-4162
팩 시 737-0698

현대불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대한불교진흥원

조계종 사면·복권 곧 실시

117회 종회서 만장일치…환경대책위도 구성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초부터 초미의 관심사였던 징계자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이 곧 단행된다.

조계종 제 117회 임시중앙종회는 지난 22일 총무원이 제출한 33명 사면·복권·경감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로써 이들 33명에 대한 월하 종정스님의 재가가 있게 되면 곧바로 총무원장에 의해 전격적인 사면·복권·경감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사면·복권·경감 대상에서 개혁회의 기간 징계자 34명 개혁이전 징계자 12명등 총 46명중 댈빈, 과령치법, 소송제기자 등 13명은 제외·보류됐다.

△공권력 투입에 관한 건 △승가대학에 관한 건 △종앙종회 사무처장 동의의 건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후보 동의의 건 △특위보고의 건 △재정분과위원장 및 각종 위원 보선의 건 △기타사항 등의 안건으로 5일간 회기로 개최된 117회 임시종회는 22일 △조계사 공권력 투입에 대한 결의문 채택 △사면·복권·경감에 동의 △가야산 골프장 건립 및 범어사 환경파괴에 대한 범불교적 대책위를 구성키로 결의하는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목어

올바른 지도자

정직한 지도자가 많았으면 한다. 저마다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소감이다. 보통사람은 보이지 않고 잘난 사람들만 가득찬 것같아 서글프다.

정직하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으련만 학연·지연·혈연에 동정심을 부추키거나 심지어 경쟁자를 비난·경멸하고 흑색선전으로 민심을 모으려 한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사람 가운데 과령치법 전과자도 많다는 관계기관의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잡보장경〉에 '불과 같이 만민을 위해 근심을 없애주며, 물과 같이 사방을 윤택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다. 지도자의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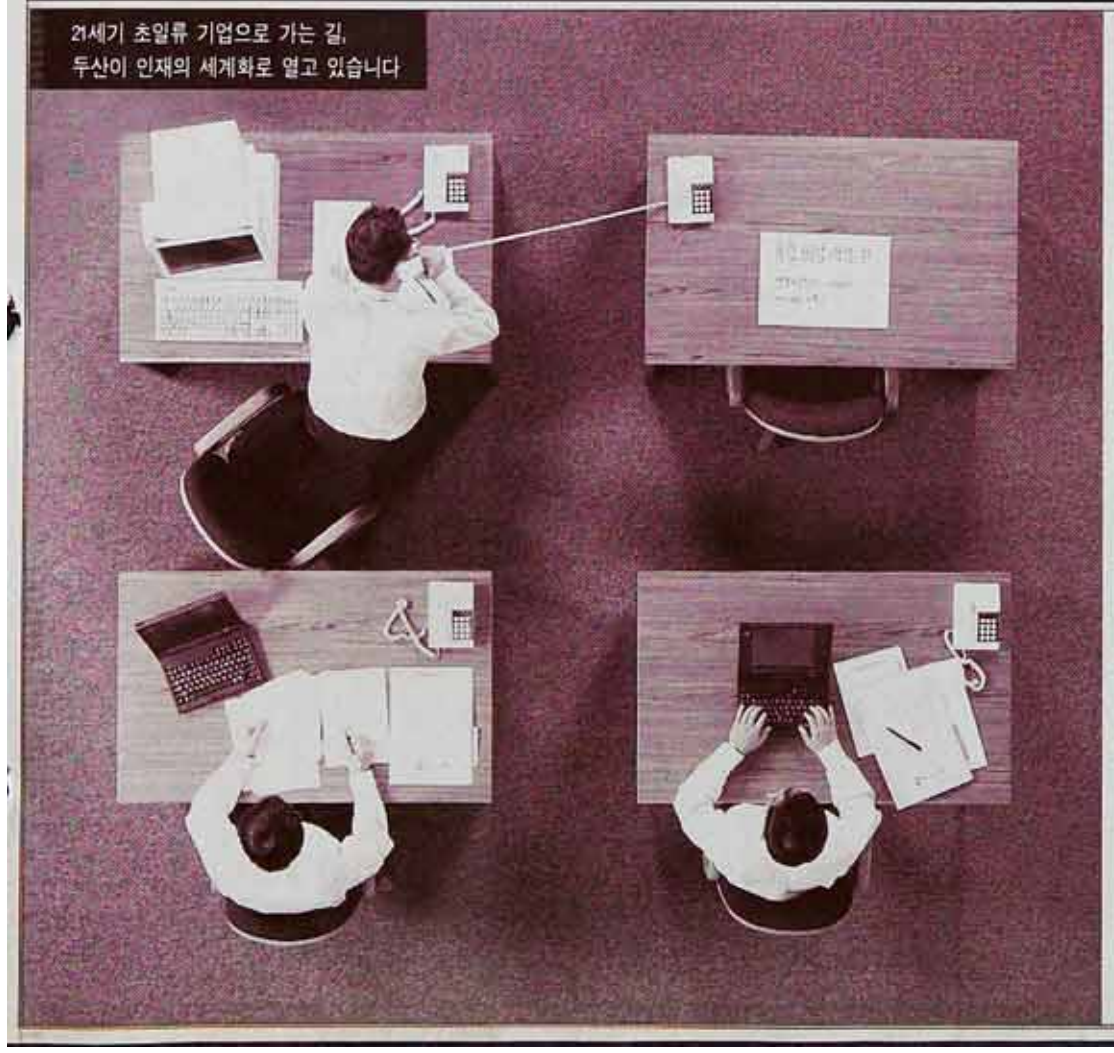
한국사람은 골반장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말도 있다. 오랜 출세지향주의에 물든 탓이리라. 그러나 변화된 시대에는 '남을 이롭게 하고, 건강한 사회건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의식을 지닌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은 모두 王法의 부정에서 생기고, 즐거움을 받는 것은 임금의 法敎가 정다움에서 생긴다'는 〈중일아함경〉의 가르침은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을 무색하게 하는 말씀이라 의미심장하다.

맑고 향기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정직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오직 정직이 최선이 방책일 뿐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고 욕심이 많으며, 나쁜 욕망이 있어 인색하고 먹도 없으면서 존경을 받으려 하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란 〈숫타니파타〉의 가르침을 이번 단체장 선거에서 선택의 잣대로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21세기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 길,
두산이 인재의 세계화로 열고 있습니다



인재로 이어온 100년
일류로 나아갈 100년

"지금, 배낭여행중입니다"

두산의 사원 500명이 「해외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인재 세계화의 새로운 길, 국내 최초의 사원 배낭여행으로 엽니다

세계화된 기업만이 21세기 초일류 기업-
두산은 인재의 세계화를 통해서 기업 세계화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창의적으로 파악하도록 업계 최초로
실시하는 사원 배낭여행은 인재 세계화의 한 과정입니다.
국내외 장기 어학연수, 전문기관 위탁교육,
해외지점의 현지인 운영체제,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세계화의 길은 과감한 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전통100년, 도전100년
斗山

사 설

성역유린 정부 참회를

이번 한국통신 사태에 대한 현 정권의 대응은 집권초기부터 내세운 분민성을 의심케하고 있다. 조계사와 명동성당의 공권력 난입에 대한 종교계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15일 저녁에는 2천여 불자들이 시국법회를 갖고, 국정 최고책임자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6월16일에는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4개 종교단체의 성직자 4백여명이 조계사에서 명동성당까지 정부에 항의하는 침묵행진을 벌였다.

이러한 종교계의 여법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반응은 우리를 너무나 실망시켰다. 6월16일 오후 '명동성당과 조계사 농성 노조간부 연행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국무총리가 발표한 내용을 읽고 종교계는 그동안의 분노를 가라앉히기는 커녕, 군사독재시대의 구태의연한 훈계성 의사표시와 다르지 않다며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6·6 공권력 투입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교회나 사찰이 〈치외법권지대〉나 〈불법투쟁의 안전지대〉로 잘못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길 종교계에 부탁한다"는 내용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어쩌서 현 정권은 〈문민〉과 〈민주〉의 탈을 쓰고 종교계의 전통과 교의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도 "정부 최고책임자는 청정도량인 사찰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책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종교계 지도자들의 질책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권위주의적 자세만을 견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권력과 종교는 때로는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정치, 사회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라가 발전하는데 이바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기론적 관계 속에서 "법 앞에 성역없다"는 말은 파시즘을 탄생시킨 법실증주의적인 법률만능주의에서 나온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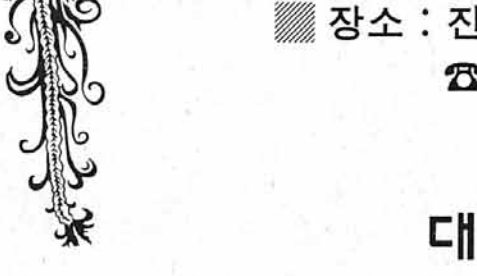
정의와 양심을 존중하는 자연법론의 입장에서 보면 자비와 사랑의 안식처인 성소는 존재해야 하며, 민주사회일수록 그것은 더욱 필요하다. 억압과 폭력이 난무하는 닫힌 독재체제보다 오히려 열린 민주체제 속에서 정의와 양심을 지키는 곳이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부처님의 정법인 출세간법이 세간법의 악법적인 요소나 남용을 막아주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종교계가 현 정부에 대해서 더 이상 등을 돌리기 전에 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지심으로 참된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진실로 깊이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대화는 점점 단절될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이 차곡차곡 쌓일 것이다. 더이상 이번 한국통신사태로 빚어진 정부와 종교계의 갈등이 심화되어 벼랑끝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성역이 유린되어 "문민독재"의 징후가 보인다는 목탁소리에도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두번다시 6·6 사태와 같은 일을 일으키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정부 지도자들의 진실한 목소리를 우리 국민들은 애타게 듣고 싶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시점은 정부와 종교계가 손에 손을 잡고 복지사회건설에 매진할 때임을 간과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현 대 만 평 박 구 원



냄새나는 후보들…

열 린 마 당

개발 공약 남발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마다 개발, 개발, 개발을 외치고 있다. 대부분 득표를 의식해 내놓은 선거공약은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그린벨트 해체와 골프장 건설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다. 후보들이 다투어 내놓은 개발 공약으로 인해 사찰환경훼손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사부대중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운 산스님



'무조건 개발 하자' 생각버려야

금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환경을 훼손하는 선심용 개발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의 땅은 대부분 불교문화와 역사를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환경훼손은 불교문화훼손으로 연결되고 민족문화의 단절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다고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을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다. 가능하다면 현상태 보존에 주력하고 필요에 따라 조화있는 발전안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문제는 성사가능성은 뒤로 미룬 채 무조건 황금빛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에게 있다고 본다.

사회지도자가 되려면 지혜와 복덕을 갖추어야 한다. 멸사봉공의 마음으로 사심없이 공익을 받드는 자세가 되었을 때 무분별한 공약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주민들도 집단행동이나 사행심에 빠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인물의 참신성을 보고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하겠다. 자연보호는 결국 주민들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리산 실상사 주지〉

지 훈스님



사찰주변 골프장·아파트 부당

요즈음 불교계는 가야산 골프장 허가 취소, 범어사 앞 아파트 건설 반대 등 자연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환경의 소중함을 현시점에서야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러한 일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사찰주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개발계획은 이미 10여년전부터 진행됐던 것이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과악하여 미리 막았다면 현재처럼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우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의 각종 개발 공약을 접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들 좋은 대안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공약 가운데에는 10여년 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리를 뺏어버리는 정책이 있을 수도 있다. 또 다시 오늘처럼 사찰주변에 골프장, 아파트가 들어서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해야겠다. 현명한 주권자가 되어 아름다운 이 강토를 후손에게 물려주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문 창 식씨



선거용 개발 자연황폐화 가속

한나라의 역사와 문화는 자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나라 자연의 모습은 그 시대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또한 그 나라 정신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국민 모두의 공유재인인 가야산 국립공원에 골프장이 허가되었다고 하면 과연 이 나라에는 상식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 사람의 자본가를 위해, 또한 가진 자들의 놀이터를 위해 우리의 국립공원은 파괴되고 농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수천년의 역사와 역사는 한순간에 깡그리 무너져 버려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진실로 사람답게, 진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대부분 지자제 후보들의 선거공약을 보면 개발논리와 지역발전논리로 치장하고 있다.

지자제로 인해 우리 환경이 더욱 황폐화할 위기에 놓여져 있다.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삶의 터전이 온전히 보존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것이다. 우리들의 정신적인 토양인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 문 숙씨



지자단체장은 환경보존 책임자

한국선거풍토에서 이번 지방자치선거만큼 정책공약을 나열해 놓은 선거도 없는 것 같다.

환경이라는 전 시민의 가장 중요한 공동재산을 지켜야할 제 일선의 행정책임자인 부산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환경정책이 실효성도 없는 전시효과의 수준인데 우리는 실망한다. 대체에너지 문제, 녹지공간 문제, 해양오염문제 등에 대한 대형프로젝트를 적적 내놓고 있지만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부산시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희망사항일 뿐이다. 후보들이 외치듯 그렇게 쉽게 낙동강을 살릴 수 있었다면 문민정부 3년은 뭣하는 정부였나.

선거철을 틈타 서부산지역 최대의 풍치지구인 다대5지구와 인접해 있는 흥티마을 뒷편 야산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등 자연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부산시민의 마음의 고향인 범어사 일주문 앞에도 대단위 고층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주무부처가 환경부가 되어야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을 위한 중앙 정부차원의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쯤은 후보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장〉

시 론

종교간 화합으로 위기극복



김 용 정
〈동국대 교수·철학〉

17세기 독일의 대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일찍이 종교합동에 의한 세계교회 건설을 제안한 바 있다. 물론 그것은 당시의 루터파와 칼빈파의 통합 내지 카톨릭과 개신교의 통합을 의미하였지만 그는 중국의 주역철학을 연구한 논리철학자로서 서구의 기독교와 중국유교의 天사상과의 통합을 꿈꾸기도 하였다.

이제 지구세계는 너무도 좁게 느껴지는 이른바 지구촌의 시대로 변하였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보스니아전쟁 체첸전쟁 등 지구촌의 인류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민족분파주의 내지 종교분파주의가 불씨가 되어 서로 무자비한 살육전을 감행하고 있다.

오늘날 지구의 환경이 살아남느냐 죽느냐 하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는 더 이상 분파주의로 무모한 소모전을 계속해서는 안된다. 지금이야말로 인류가 인류의 모든 지혜를 하나로 모아 서로 협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된다. 어느 하나의 보편주의가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들은 해체되어야 하고 다원적인 작은 목소리들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해체주의 철학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양식에 입각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어느 하나의 주장이나 종교가 참된 주장이요 종교이며, 다른 주장이나 종교는 사이비라는 식의 사고는 통용되지 않는다. 적어도 공인된 세계적 종교라면 그 종교가 갖고 있는 교리 가운데 인류의 구원이라는 공통된 큰 목적을 갖고 있을 것이다. 현대는 국제화, 세계화시대라고 하거니와 세계의 어느 사회도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리 이상의 원리를 갖고 있지 않다.

종교의 본래적 기능중에는 사회의 도덕적 질서와 운명공동체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의 통합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되어가는 사회에 있어서는 여러 주장들이 엇갈려 잘못하면 잡다한 분쟁이 일어날 부정적인 면도 있고 또한 집단이기주의가 횡행할 소지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집단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종교가 담당해야 할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운명공동체 의식 갖자

한 예로서 지난번 조계사와 명동성당에 피신한 한국통신 노조간부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선(善)이나 가치에도 대립이 있다. 칸트는 선의 대립이 있을 때에는 보다 큰 선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어느 선이 보다 큰 선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회사측이나 노조측 어느 쪽이나 선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한쪽이 선이고 다른 쪽이 악이기 때문에 일어난 대립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와 종교간의 엇갈린 주장도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테이저 광선이라는 최첨단의 에네르기의 이용은 원자들을 교묘하게 집단적으로 협동하게 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모든 생명현상은 역시 분자들의 교묘한 집단적인 협동현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너'와 '나' 구별 말아야

인간사회의 협동체제는 물적, 인적, 사회적 활동이 어떤 협동적 조직에 의해서 통합될 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본래 인간은 물적, 생물적, 사회적 요인의 결합체로서의 개체성과 활동, 심적 요인, 자유의지 목적 등을 중핵으로 하는 인격성과의 결합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인격성은 개체성에 의해 보호되면서 변화하는 개체성을 끊임없이 새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인격성을 창발해가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도 각각 그 독자성을 갖고 새로운 행동규범을 창발하여 조직자체를 관리해야 한다. 사회의 현실적 상황은 언제나 불가피하게 집단간의 갈등과 모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과 모순을 새로운 행동준칙의 창발을 통해서 극복해가야 하는 것이 현대의 관리체제로서 집단간의 협동을 얻어낼 수 있는 철학이다.

불교의 중도사상이 사회적 현상에서 생각하면 근본적으로 양 극단을 배제하는 사상이요 동시에 상호의존적인 연기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서로 극단적 주장을 양보하고 상호운명공동체라는 자각을 같이한다면 어렵지 않게 화합과 협동을 유도해낼 지혜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인류전체가 협동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도 있다. 사실 알고보면 한 나라 한 사회 한 가정도 이 협동의 원리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최근 구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종교가 서로 협동하여 위기의 현대사회를 선도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오늘날과 같이 분쟁이 끊이지 않는 다원화 사회에 있어서 중생들의 정신적 문화적 뿌리가 되어온 각 종교들이 서로 우월주의를 버리고 협동하여 각종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지혜를 창출하고 성숙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개적 생명의 유기적 구조와 우주생명의 유기적 구조가 서로 함수적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처럼 한 개인과 사회, 사회와 사회도 같은 유기적 구조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불교의 교리에서는 아군과 적군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너요, 너의 내가 있을 뿐이다. 국가도 종교도 이러한 유기적 구조 속에서 협동해야 하는 것이다.

봉 대한불교 진각종 제24대 통리원장 취임식 축

귀명삼보 하옵고
본종 제24대 락혜(김석모) 통리원장의 취임식을 다음과 같이 거행코자 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시 : 1995년 6월30일 오후 1시
▒ 장소 : 진각종 총인원 대강당
☎ (02)913—0751

• 증 명 : 총인 각해 대종사
• 고 문 : 인 강, 대안화, 안인정, 지회심, 복선정, 도 흔, 혜 일, 보인정, 묘 법, 지 광, 일 정, 일성화, 영안행
• 지 도 위 원 : 성초, 석봉, 우승
• 봉행위원장 : 휴 명
부위원장 : 회 정
위 원 : 효 암, 대 경, 덕 일, 관 증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 취임 봉행위원회 합장

중금속 함유한 비·이슬 '공포의 대상'

부처님의 지구사랑 ⑯ 전 재 성

물의 산성화

북유럽의 농민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몇년동안 매우 즐거워 했다. 스웨덴,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에서는 질소비료를 주지 않아도 작물이 잘 자랐다. 수많은 호수에서는 예전에 볼 수 없던 커다란 물고기들이 잡혔다. 농민들은 그 원인도 모른 채 "하늘의 은총"에 기뻐 날뛰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 1950년대에 들어서자 작물의 수확량은 감소하고 호수나 하천의 물고기는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대 바이킹의 유적이나 교회의 청동상 그리고 오래된 돌담이 누더기처럼 손상되어 갔다.

그 원인은 유황이나 질소의 산화물에 의해 다량의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화된 이슬, 서리, 비, 눈 때문이었다. 그들 유황이나 질소산화물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중부유럽의 공업지대에서 날아온 것이었다. 당시 북유럽에 내린 빗물의 산성도는 PH 4~5로 토마토쥬스 정도의 강한 산성을 띄고 있었다. 북아메리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북유럽이나 북아메리카는 빙하의 영향이 최후까지 남은 곳으로 암질이나 토양층이 얇아 산성비를 중화시킬 염류가 적어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 지역이다. 호수나 강의 물이 산성화되면 PH 5부터 급속도로 물고기가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산성도에 민감한 플랑크톤이나 수생식물이 먼저 영향을 받아 감소하여, 먹이사슬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PH 4.5 이하로 내려가면 알이 부화되지 않을뿐 아니라 물고기들은 아가미에 타격을 입어 생존이 불가능해진다. 북유럽이나 북아메리카의 호수와 강은 천연의 자연환경과 그림처럼 맑고 아름답지만 이제 상당수가 생물이 살지않는 죽음의 호수, 죽음의 강이 되어 버렸다. 물론 이 지역에서 산성비에 의한 토양 및 산림의 피해는 더욱 엄청난 것인데 이미 지적했듯이 50%의 삼림이 병들어 황폐화되고 있다.

물고기 죽고 곡물 감소… 삼림은 날로 황폐

그밖의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대도시 주변은 대부분 PH 4~5.5의 강한 산성비가 내리고 있는데, 호수나 강에 그로 인한 피해가 적은 것은 두터운 토양층에 그것이 비교적 잘 중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양의 유실이나 작물과 삼림에 대한 피해는 엄청난 것이다. 중국에서도 산성비는 벌써 공중사신(空中死神)이라고 부르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대도시 소주, 광주, 남창, 귀양, 귀주같은 곳은 PH 3.0~4.0의 세계적인 강산성비를 기록하고 있다. 한때 중경에 내린 레몬만큼 신 산성비는 모든 논의 벼를 말라 죽게 했다. 미국의 동북부 지역이나 일본에도 대부분 PH 4~5의 강한 산성비가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의 중부지방과 대도시 주변은 PH 3.9~4.9의 강산성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성비는 중국의 산동반도와 동북공업지역이 산업화되면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의 영향을 받고 있다.

산성화된 물은 중금속을 용해시키므로 때로는 맛있고 향기롭고 빛깔도 곱지만 독약이 든 물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물그릇이 있는데 빛깔이 아름답고 향기를 갖추고 맛있는 물이 담겨있으나 독약이 섞여 있다. 이때에 더위를 먹고 더위에 지치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갈증이 나는 한 사람이 찾아왔다. 사람들이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친애하는 자여, 이 물그릇에는 빛깔이 아름답고 향기를 갖추고 맛이 있는 물이 담겨있으나 독약이 섞여있다. 원하면 마셔라. 네가 마시면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와 맛 때문에 입에 맞을 것이다. 그러나 마시면 그로 인해 죽음이나 죽음의 병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한다."



◇산성비는 나무를 고사시킨다. 사진은 독일 흑림지역 피해현장.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아침 11시. 불광동에 사는 김미정보살(39세)은 아이들을 모두 학교에 보내고 집안 정리를 대강 끝낸 후 얼마전부터 시작한 삼보사 기초교리강좌를 듣기 위해 부리나케 집을 나섰다.

오늘은 부처님의 초전법륜에 대해 배우는 시간.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연 어떠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셨을까 자못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가지를 기초교리공부를 통해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되고 그를 통해 2천5백여년전 부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과 하나라는 깊은 교감을 얻어 더 높은 경지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참제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금주의 주제 — 기초교리 공부

각종 교양대학과 신행단체의 기초교리반 강좌와 시내불교서점에서 불교입문서, 기초교리서 등

초발심 다지는 주춧돌

더 깊은 가르침 향한 열린 문

배워온다는 기쁨으로 마음이 설렌다.

"기초교리를 배울수록 제 신앙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누구 앞에서나 자신있게 불자임을 밝힐 수 있게 됐어요"라고 말하는 김보살은 "불자라면 누구나 기초교리부터 열심히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그간 강의를 통해 다져진 자신의 신심을 한껏 자랑했다.

이처럼 각 사찰에는 초발심불자를 위한 기초교리강좌가 거의 개설돼 있어 바른 불교이해와 그를 통한 올곧은 신행생활을 이끌어나가기에 여념이 없다.

팔정도, 삼법인, 12연기에 이르는 기초교리를 비롯 반야심경, 금강경등 경전강의가 진행되는 기초교리강좌는 각각 저마다 특징으로 불자들의 불교에 대한 호기심과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초교리 공부를 통해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되고 그를 통해 2천5백여년전 부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과 하나라는 깊은 교감을 얻어 더 높은 경지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참제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각종 교양대학과 신행단체의 기초교리반 강좌와 시내불교서점에서 불교입문서, 기초교리서 등을 찾는 분주한 불자들의 발길은 바로 그런 모습의 반영이 아닐까.

"요즘 불자들은 이전의 기복불교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불교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기초교리등의 강좌를 통해 충족시킨다"고 말하는 법안정사의 도원스님은 "기초교리습득을 통해 단순히 믿고 따르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닌 스스로 공부하고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행풍토를 조성하고 있다"며 기초교리공부를 통한 변화된 불자들의 모습을 설명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발심제자로 나선 불자들에게 있어 기초교리 공부는 신행의 첫걸음이자 주춧돌이란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튼실한 기초교리의 토대위에서 불자들의 신행생활은 더욱 윤택해 질테니까.

신행수첩



◇국보 제18호인 부석사 무량수전. 부석사는 주불로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봉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미를 자랑하고 있는 고려시대 목조 불전이다.

관음보살 자비심 배우자

남해 보리암 철야정진

푸르른 녹음사이로 반짝이는 햇살만큼이나 아름다운 불심을 모아 철야정진 수행법회를 떠나보자. 용진신행회는 오는 7월8일~9일 남해 보리암 관음성지로 철야기도를 떠난다.

남해 용문사, 지리산 칠불사 등을 거쳐 짙푸른 남해의 바다 내음을 맡으며 관세음보살의 자비하심을 온몸으로 느낄 철야정진기도에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린다.

(02)279-1191~3

무더위 잊는 국토기행

도산서원·부석사 순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우선 얼음을 한줌 입에 넣고 국토순례 모임 '터사랑'에 전화를 건다. 얼음이 서서히 녹을때쯤 신호가 떨어지면 오는 7월 8, 9일 이틀간 진행될 국토순례에 참가신청을 한다.

당일날 간편한 복장으로 문밖을 나서 안동일대 퇴계 이황선생의 도산서원과 민속박물관을 둘러본다. 다음엔 자리를 옮겨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미를 자랑하는 영주 부석사의 우아함을 마음속에 담아보라. 조상들의 숨결과 역사의 향기앞에 어찌 땀방울인들 고개를 숙이지 않겠는가. (02)725-1284

"선생님도 재충전을"

초중고 교사 불교연수회

나라의 보배인 2세의 교육에는 교육자가 품고 있는 정신적 소양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기영)이 8월2일~5일 3박4일간 경주에서 마련하는 전국 초중고교 교사 불교연수회는 선생님들의 일상에 지친 심신을 여유롭게 하고, 복잡한 일상속에 얽매인 마음을 비우게 함으로써 어린 제자들을 자비롭게 지도할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이 될 것이다.

경주 불국사·석굴암 및 남산에서 이기영원장과 동국대 정병조교수의 알찬 강의로 진행될 이번 연수회에는 불국사 조실인 월산스님의 특별법문도 준비되어 있다.

접수마감은 7월5일. (02)575-6167~8.

땀으로 엮어가는 젊음

불자연, 자원봉사학교

내리쬐는 태양아래 땀방울로 영글어가는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밝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자원봉사를 통한 청소년들의 자기개발과 성숙한 인간관계 형성을 도모키 위해 '95 서울청소년 자원봉사 여름학교'를 개최한다.

서울·경기지역의 중고등학생 1백명,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1일~10일까지 실시되는 청소년 자원봉사 여름학교는 봉사활동 기록부를 작성해 학교로 우송, 성적에 반영토록 하는등 올바른 봉사활동 전개를 위한 기초작업의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02)723-6257

백제얼 깃든 미륵도량

김제 금산사 명찰순례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명호근)가 7월8일(토) 1박2일의 일정으로 미륵부처님의 길을 따라 금산사로 함께 떠날 길동무를 기다린다.

총동문회 공동회장으로 있는 이순규박사의 해설이 곁들여질 이번 명찰순례에 신심깊은 불자들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02)237-5751

컴퓨터로 종무행정

분황사서 무료교육 실시

다가오는 미래를 사람들은 흔히 컴퓨터에 의한 '정보사회'로 부른다. 컴퓨터는 이제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으며, 사찰의 종무행정에도 컴퓨터는 필수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법회자료등 각종 정보들도 컴퓨터 통신으로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불자들도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에 분황사(주지 종수)와 경주 아이맥스 시스템(대표 박종훈)은 각 사찰의 종무를 담당하고 있는 스님과 신도들을 위해 7월3일~8월18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오후 2시, 4시에) 분황사 경내에서 무료 컴퓨터교육을 실시한다.

강의내용은 MS-DOS·WINDOWS의 개념과 사용법, 한글 워드프로세서 사용법, 통신용 프로그램 사용법 등으로 짜여 있다. (0561)42-9922, 41-0562.

기타로 듣는 청정 佛音

직지사 대구포교원

직지사 대구 수성구 포교원(원장 도일스님)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찬불 가요방 법회를 봉행한다.

대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 김석봉씨의 지휘와 도일스님의 기타반주로 1부 찬불가 및 합창연습을, 2부 가곡 및 가요부르기를 실시한다.

후덥지근한 한여름 찌들린 도심속이지만 불향 그윽한 법당에서 기타반주에 맞춰 음성공양의 시간을 갖는 것도 특별한 낭만이 있을 법하다.

(053)425-8356

양심수에게 웃음을

경전, 영치금, 편지 보내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자신이 뜻한 바와 달리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일지도 모른다.

불교인권위는 전국 교도소에 있는 양심수들에게 경전 보내기, 영치금 보내기, 편지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비록 책이 낡았어도, 영치금이 적더라도, 맞춤법이 틀리더라도 이를 받아보는 양심수 얼굴에 피어난 웃음을 떠올려 보라.

언제나 희망을 갖고 세상을 살았기에 양심수라는 멍에를 둘러쓴 이들에게 마음속 우러나는 정성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또다른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가장 아름다운 일일이 틀림없을 것이다.

(02)734-6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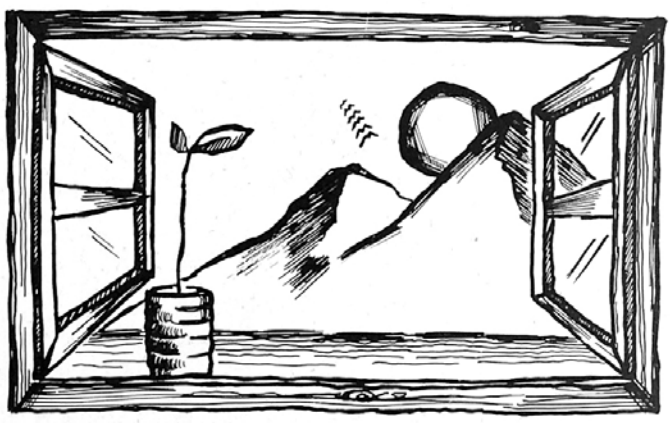
생활속의 불교 ㉚

낙원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물 안 개구리가 본 하늘은 동그랗다. 때로는 푸른 빛깔, 때로는 잿빛의 동그라미다. 그래서 소견 좁은 사람을 빗대어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라 부른다. 제 눈에 비춰진 세계를 유일·절대라고 고집하는 모습이 꼭 우물 안 개구리를 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거의 예외 없이 우물 안 개구리이다. 스스로는 한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일 없고, 그런 중에도 나만은 아니다라고 믿고 싶겠지만 사실 알고보면 누구나 우물 안 개구리이다. 왜냐? 누구나 다 관념의 통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을 관념이라는 대롱을 통해 바라본다. 눈 똑바로 뜨고 잘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인간은 착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세상의 온갖 사물—사람, 사건, 환경을 접할 때 아무리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려 해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바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열린 마음의 깨달은 이를 빼놓고는.



우리의 관념은 우선 육체적인 한계(육근)에 영향을 받는다. 배 고플 때와 배 부를 때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듯이.

또 자신의 선입관, 이해관계에 따라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정치인의 이합집산이 아니더라도 각자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제 속마음을 들여다 보면 알 수 있다.

또 자신의 관심도에 따라 다르고, 다가오는 경계의 반복성에 따라서도 앞뒤의 생각이 달라진다.

문화·사회적인 전통·습관도 나의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어찌 진실이라고, 절대라고 강변·고집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사람들은 제 관념을 유일·절대인 양 우겨댄다. 밤에 본 새끼줄이 새끼줄이 아니라 뱀이었노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시비를 논하고 남을 손가락질한다.

선사들은 그런 모습을 일컬어 통 속에 갇혔다고 한다. 은산철벽에 앞뒤가 꽉 막혔다고 한다. 관념이라는 감옥에 갇힌 꼴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삼독심(三毒心)이라 하셨다. 자신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독극물은 바로 각자의 어줍잖은 관념이라 하신 것이다.

우물 안 개구리는 땅 넓고 하늘 광활한 줄 모른다. 관념의 감옥에 갇힌 사람은 자유자재로운 광야의 낙원 같은 삶을 알 수 없다.

관념의 대롱으로 세상을 보는 한 그는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불법은 열린 마음을 가르친다. 우물 밖, 통 밖의 삶을 가르친다. 은산철벽 깨는 길을 가르친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삶을 가르친다.

협찬 : 포항 원심회, 원공회, 원각회, 원중회, 원근회, 원만회, 원불회



6·25날 보훈병원서 만난 김 용 배 씨

"고엽제 후유증 불심으로 극복"

세상에는 뜻하지 않은 불행을 겪으면서도 부처님법에 의지해 꿋꿋하게 살아가려는 이들이 있다.

보훈병원 법당에서 만난 김용배씨(48세)와 부인 우순필씨 부부도 바로 그런 이들중의 하나다. 월남참전으로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김씨와 그의 아내 우보살은 시간만 나면 보훈병원 법당에서 지낸다. 지난 70년 월남 나트랑에 복무하면서 막사주위 제초작업을 했었다는 김씨에게 고엽제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80년. 서울대학병원, 국립의료원등 많은 병원을 다녔지만 어느 병원에서도 쉽사리 고엽제 후유증이란 진단을 내려주지 않았다. 그때부터 김씨는 아내와 함께 병원법당의 부처님을 찾으며 의지할 곳 없는 마음을 달래곤 했다.

지난 1월 인천 성심병원서 고엽제 중독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훈처에 접수, 보훈병원에서 썩어가는 왼쪽다리 절단과 하복부를 수술한 김용배씨는 "수술은 했지만 고엽제 중독이라는게 완치된다는 보장도 없어 정상인으로 활동하기 힘든 병입니다"라고 말하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법당청소도 하고 다기물도 올리고 아침·저녁 예불도 하면서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부처님 곁에 있다.

"고엽제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해 회향토록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김용배씨는 오늘도 아내와 함께 법당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다. 〈이은자 기자〉

룸비니 성지에 한국법당 곧 기공

방한한 WFB 부회장
록 다 산 씨



룸비니 개발위원장을 두번이나 지냈고 현재 네팔불교신도회장과 WFB본부 부회장및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록 다산(Loke Darshan, 65)씨가 도문스님(대각사 조실)의 초청을 받아 방한했다.

-방한 목적은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등 한국의 사찰을 참배했다. 월하종정 스님과 월주 총무원장 스님등 고승들을 여러분 만나뵙고 좋은 말씀을 들었다."

-룸비니에 한국사찰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데

"1970년 유엔사업으로 결정된 룸비니 성역화사업에 따라 현재 42개 불교국가에서 사원을 지었거나 짓고 있다. 총 104개 국가에 개방, 사원이 건립될 예정이다. 한국은 총 7천7백평 대지에 연건평 8백45평으로 오는 12월 법당기 공식을 갖는다."

-네팔불교에 대해 소개한다면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불교신도다. 부처님을 탄생시킨 국가로서 불교도의 자부심과 신심이 대단하다." 〈숙〉

"한국종교교육학회는 불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이론과 실제의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이 분야 학문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도덕교육의 기틀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종교교육학회 초대회장
박 선 영 교수

인간성 상실시대 도덕교육 제창

지난 24일 동국대 동국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박선영교수(동국대 교육학과)는 학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대 학문이나 학교교육이 지식획득의 방법만을 가르침으로써 앎과 삶이 유리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박교수는 "불교의 실천·수행적 성격을 지닌 탐구나 지혜, 지식이야말로 현대의 교육문제를 풀어나가는 새로운 시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여년전부터 종교교육학회의 창립을 발원해 온 박교수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 이미 상당수의 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매년 6월과 11월 정기 학술행사개최, 한글·영문판 학회지를 제작, 세계 유수대학과 연구기관에 배포할 계획도 갖고 있다. 〈재〉



국가유공자 가족위문 수계법회

불교간병인회와 보훈병원 직원불자회가 공동 주최한 '총무원장 월주스님 초청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위한 위문 수계법회'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백여 보훈병원 환자와 가족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병원 강당에서 지난 16일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월주스님을 비롯 조계종 총무부장 법타스님, 불교간병인회 회장 정진스님등이 참석했다.



인권법당 길상사 개원식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한상범)는 지난 20일 오전10시 종로구 화동에 인권법당 길상사를 마련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는 진관스님을 비롯 지원, 범산, 지욱, 각명, 정대, 백석, 현정, 성법스님과 이문옥 전 감사관, 박정기씨(故 박종철군 父),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사무국장 선종법사 등 사부대중 60여명이 참석했다.



제 2기 불교자원 봉사단 발족

'제2회 자원봉사시민대학 수료식 및 불교자원봉사단 발족식'이 지난 21일 오후1시 총무원 불교회관 1층에서 거행돼 초의다사교실, 환경교실 등 7개 강좌 총 13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와함께 자원봉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불교자원봉사단 발족식도 함께 가졌다.



소년소녀 가장 20명에 장학금 전달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스님)은 지난 20일 본사에서 종립학교 모범 소년소녀가장 20명에게 각각 1백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수안스님 초청 한마음 특별전을 통해 모금한 2천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이날 전달식에는 혜안스님(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장), 본사 김광삼 사장을 비롯 각 학교 교사들이 참석, 이들을 격려했다.

교차로

홍콩서 법사 품수식 주관



숭산스님(화계사 조실)은 홍콩 홍법원의 법사품수식 주관을 위해 지난 22일 출국. 스님은 약 2주간 홍콩 홍법원에 머물며 법회를 개최하고 귀국할 예정.

한문·범어등 연구회원 모집



지관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은 불교학연구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7월30일까지 한문·범어·티벳어·팔리어원전연구과정의 연구회원을 모집한다. (02)765-9602

'영국안티크 명품전' 개최

보윤스님(영국 연화사 주지)이 런던 연화사 건립을 위한 '영국안티크 명품전'을 오는 2일까지 견지동 웅전갤러리에서 갖는다.

세계적 신기술 보일러 개발



최진민회장((주)귀뚜라미 보일러)은 최근 가스폭발과 가스중 독사고 예방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가스보일러 개발에 성공. 이번에 개발된 보일러는 세계적 신기술인 가스누출탐지기로 최회장이 직접 고안, 특허청에 등록했다.

'석굴암과…' 주제 강연



강우방씨(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는 지난 21일 압구정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석굴암과 통일신라 불상'을 주제로 강연했다.

인도 명예총영사에 취임



류진수회장(부산불교신도회)이 지난 15일 오후7시 코모도호텔에서 인도명예총영사에 취임했다.

류회장은 취임사에서 "이번 명예총영사 취임을 계기로 부산과 인도간의 다방면에 걸친 새로운 발전계기가 마련되기 기원한다"고 말했다.

미얀마서 우안거수행

박창원법사(혜명선원장)는



미얀마 양곤 찬미아이 예익타 수도원에서 7월부터 10월 말까지 우안거에 들어간다.

봄강좌 종강·수료식 가져



감승희원장(한국차생활문화원)은 오는 1일 봄강좌 종강 및 수료식을 갖는다. 또 9월 2일에는 가을강좌를 개강한다.

'범여성…' 자문위원 피선



김묘주회장(한국여성불교연합)은 7월7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범여성전국대회 민간자문위원으로 선임됐다.

게시판

▲'환경지킴이' 모집=조계사 청년회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환경운동을 전개할 법우를 모집한다. (02)735-3724

▲교사특별연수=한국불교발전연구원(원장 김용정)은 7월 18일~22일, 3시~6시 연구원에서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별연수를 갖는다. (02)736-6202

▲신·편입생 모집=삼화불교대학이 오는 30일까지 불교학과등 5개학과에 걸쳐 95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한다. (02)511-2026

이 전 대불련총동문회(회장 명호근)가 지난 29일 종로구 사직동 80-27(1층)로 사무실을 이전. (02)723-9811

"더 불행한 이웃에 따뜻한 보살행"

성금모아 장학사업·무연고 맹인 봉양도

탐 방
대광맹인불자회

잠도 자지않고 용맹정진하다 시력을 잃게 된 아나율존자. 그는 후일 부처님의 10대 제자로서 천안제일의 칭호를 얻게 된다.

이러한 아나율 존자의 후예임을 자부하는 불자들의 모임이 있다. 대구 대광맹인불자회(회장 이달재)가 바로 그들.

그들은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비록 육체의 눈은 어둡지만 마음의 눈은 어느 불자들보다 밝게 가지려는 신심이 남 다르다.

91년 9월 김만권스님(대승원 주지)을 지도법사로 15명의 회원들이 모여 지방 최초로 맹인불자회를 발족시킨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금요법회를 빠뜨린 적이 없다고. 현재 약90명의 회원에 자체법당(대광사)과 사무실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성지순례도 8곳이나 다녀왔으며 화성양로원 등 불우이웃 단체를 방문하여 타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곤 한다.

장애자의 달인 지난 4월에는 이들의 손발과 눈이 되어주고 있는 연꽃자원봉사단원 및 차량봉사대원들과 함께 팔공산 수태골로 등반법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시각장애가 죄업의 인과관계로 비쳐질 때 가장 가슴아프다"는 이회장은 몇시나 편견 혹은 지나친 동정보다는 평범한 정상인으로 대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그동안 모임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재정적 문제.

주로 일일찻집이나 바자회, 테이프판매, 한국춤전과 같은 자선공연으로 운영비를 충당해 왔다. 때로는 남들이 잠든 새벽 3시경에 갓바위로 모금함을 들고 원행을 가기도 한다고.

이렇게 해서 모은 성금으로 장학금을 줄 계획도 갖고 있다. 현재 일천만원에 달하는 적립금이 삼천만원이 되면 맹인가족학생 10여명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다.

숱한 역경이 있었지만 불심이 바탕이 되니 고난으로 생각되지 않았다는 그들은 불자의 길을 가는게 행복하다며 미소짓는다.

그들은 작지 않은 서원을 갖고 있다. '반야의 빛' 회보와 '소리' 테이프를 제작하여 전국맹인불자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그것. 뿐만 아니라 연고없이 홀로된 맹인노인들을 빠짐없이 부처님의 품안으로 모셔와 봉양할 소망도 품고있다.



◇보통사람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불우이웃과 아픔을 함께 하고 있는 회원들.

대구=이윤호 기자



불교성지순례

백 두산·연길·북경 5일
·출발:7월 15일, 7월 29일
·동참금:100만원
·일정: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스리랑카 6일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출발:7월 7일, 8월 4일
·동참금:118만원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보로부두르 사원-
·출발:7월 9일, 7월 23일
·동참금:95만원

대 만 5일
-불광사·화련·타이페이-
·출발:7월 11일, 8월 20일
·동참금:65만원

중 국불교유적지 13일
·출발:7월 18일, 8월 29일
·동참금:195만원
·일정: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십 크로드 불교 유적지 11일
·출발:7월 21일, 8월 25일
·동참금:188만원
·일정: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 벳·네팔 9일
·출발:7월 23일, 8월 27일
·동참금:210만원
·일정: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쟝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

■여행조건 ●호텔:특급 및 1급,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사세 확장으로 의욕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연극은 삶을 퍼올리는 두레박질"

산문밖의 禪

연출가 김상렬 씨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다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연극입니다. 연극이 일단 기획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저 빈 공간 무대를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 어렵고 두려운 것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집니다."

연극쟁이로 30년을 살아온 김상렬씨(55, 극단「신시」 대표)는 연출이라는 일을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에서 물을 떠올리는 일로 비유했다. 연극이라는 우물은 퍼도 퍼도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고, 그는 일단 퍼올린 냉수로 갈증을 면해 보지만 또 다시 타는듯한 목마름 때문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또 두레박질을 해대는 것이다.

구룡사 지하 소극장 열어

여름 못지않는 더위를 내뿜는 요즘 그는 가을에 공연할 마당극 「용고집전」 원고 마무리에 여념이 없다. 극단 「미추」에서 해마다 공연한 마당극을 극단 「신시」가 바톤을 이어받은 것이다. 용고집전은 마당극 하기에 더없이 좋은 소재지만 단순한 재미외에 '인과응보'라는 불변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관객들에게 마른 땅에 물이 스미듯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 주는가가 지금 그에게는 화두이다.

구룡사 지하에 소재한 극단 「신시」에 들어올 때마다 그는 충전됨을 느낀다. 90년 정우스님의 배려로 구룡사 지하에 극단 사무실과 소극장이 마련될 때만 해도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일부의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신시'가 구룡사 지하에 둥지를 틀게 됨으로써 이 세상을 마지막까지 지탱해줄 본질적인 두 요소-종교와 예술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됨을 기뻐했다.

위의 법당에서는 우주와 삶의 진리를 제시하는 법회가 수시로 열리고 동시에 지하에서는 신산하고 각박한 삶을 돌아보게 하는 연극이 열린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인연이다. 또 萬분의 부처님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세상 그 어느 빽(?)보다도 든든한 빽(?)을 느낀다.

김상렬씨는 30년동안 60여편의 연극을 연출했다. 「언챙이곡마단」 「종이연」 등 20여편은 직접 쓴 자작희곡이다. 무대언어의 연금술사로 불릴 정도로 타고난 언어감각을 공인받고 있는 그가 일관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연극적 재미'이다.

"너무 철학적·현학적인 것은 관객이 외면합니다. 연극만의 독특한, 한정된 공간에서 살아있는 인성을 통해 상징적이고 압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살아있는 예술이라는 장점을 살려야 합니다."

요즘 TV와 영화 등이 고도의 첨단 매커니즘을 동원 대중에게 다양한, 감각적·찰라적 재미를 제공하고, 대중오락 등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되지만 그럴수록 '연극'의 자리가 중요해질 거라는 믿음이 있다. 인류가 생긴후 가장 오래 벗해온 예술중 하나인 '연극'이 갖고있는 고유의 예술성을 활성화시킨다면 연극에서 느끼는 재미는 그 어떤 예술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

"연극이야말로 절대 반복이 있을 수 없는 예술입니다. 배우의 컨디션, 음성톤 하나, 손짓 하나, 그날 그날의 관객들의 반응 하나하나로도 미묘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연극의 매력입니다. 고도의 압축성과 상징성으로 인간이 직접 인간에게 메시지를 주는 연극은 그 어떤 예술보다 큰 감동을 주게 마련이지요."

65년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그는 충무로 영화판에 뛰어들었으나 골혹독한 좌절을 맛본다. 그는 강원도 삼척 탄광의 막노동판에 뛰어든다. 그러나 거기서도 적응을 못한다. 육체가 견디질 못한 것이다. 이어 남동생의 익사와 누나의 자살, 그리고 아버지의 암으로 인한 죽음…. 참담과 좌절속의 그에게 다가온 것이 '땅에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한다'는 진리였다. 지독한 절망과 비극의 막다른 골목의 그에게 비로소 절망의 끝에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다가온 것이 '연극'.

1년 선배인 이승규씨(현 인천시립극단장)와의 우연한 만남으로 극단 「가교」 창립에 참여한다. 그때가 1967년. 벼랑의 끝에서 잡은 연극, 이후 연극과의 처절한 공방전을 계속해 온다. 가교시절 10년동안 그는 극본, 연출뿐 아니라 조명, 녹음 심지어는 막 올리고 내리는 것까지 온갖 잡역을 도맡아 했다. 지방공연, 계몽연극도 많이 했고 소년원, 교도소에서도 수없이 막을 올렸다. 많은 연극을 무대에 올리고 내리면서 인생은 한바탕의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허깨비 같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망으로 텅빈 마음속을 어느덧 채워주었는지 모른다.

야외 불교뮤지컬 계획도

'연극은 사람을 다루고 인생을 다루는 것이기에 연출하는 사람도 출연하는 사람도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고양되지 않고는 보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이 늘 간직해온 철칙이다. 연극인 스스로 풍부한 인간성과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지론이다.

가교시절 이후 현대극장으로 옮겨 본격적으로 국내 뮤지컬을 개척한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에비타」 「사운드 오브 뮤직」 「올리버」 「뿌리」 등등. 만해스님을 모델로 한 「님의 침묵」 「그날이 오면」 등 창작 뮤지컬도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번지없는 주막」 「홍도야 울지마라」 등 악극을 무대에 살려내 한국적 창작뮤지컬 개발도 시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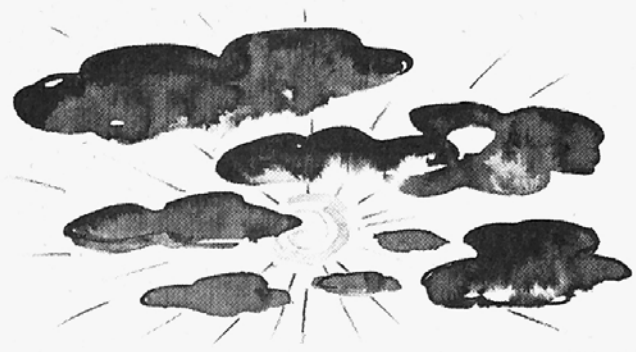
김상렬씨는 대형 불교뮤지컬을 야외에서 공연하고 싶다. 그는 머리깎은 스님이 꼭 나와야 된다거나 게송을 읊는다거나 하는, 고루한 편견을 거부한다. 청바지를 입은 배우가 나와도, 재즈를 삽입해도 보고난 후 관객들 가슴에 찡하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느끼게 해주는 연극이야말로 진정 불교연극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배우나 탤런트 중에 불자들 많아요. 그 사람들과 염주처럼 하나로 꿰어져 언젠가 진짜 불교연극 한번 해볼 생각예요."

이경숙 기자

관객은 부처님이란 생각에 '막 올리기' 혼신

30년 동안 60여편 연출 … '무대 언어 연금술사'



삽화 · 이기선

중생은 춤추는 오온 덩어리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㉜

불성(佛性)

청정한 불성이 나의 고향

인간은 무지의 오온인가, 아니면 깨달음의 법성인가. 쉽게 보면 인간은 무지한 것으로 보인다. 욕망이 아니 붙어 있는 곳이 없으니까.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다. 눈 귀 코 입 몸 마음, 모든 곳에 욕망이 붙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욕망으로 살려고 한다. 때로는 욕망이 삶의 활력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삶의 욕망이 강하면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 요새 쓰는 말로 '잘 나가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잘 살고 있고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그 안을 살펴보면 잘 나가는 사람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 나가면 된다고 하는 속인적 부류의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신도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잘 나가는 것을 욕망의 달음박질로 생각해 보면 잘못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잘 들어오는 쪽으로 마음을 회전시켜야 할 것이다. 들어오는 마음은 가라앉는 마음이다.

뒤집힌 꿈에서 깨어야

〈법화경〉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부모 곁을 떠나 형편없는 거지가 되었다. 거지중의 상거지가 되어 저도 모르게 부모가 살고 있는 곳으로 얻어 먹으러 왔다. 부모는 그 거지가 한눈에 '자기 아들인줄 알아보고 마음을 내어 도와주려 하였으나 거지는 지레 겁을 먹고 달아났다. 위엄있고 대단한 사람이 나를 해치지나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부모는 하인을 시켜, 달래어 데려오게 하여 헛간을 치우는 고용인으로 삼았다. 얼마가지 아니하여 마당 마루 안방을 청소하게 하고, 가계 장부도 맡기고 집안을 주관하는 집사로 삼았다. 주인은 정이 들고 임무에 충실한 거지 아들을 종국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나의 잃어버린 아들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 경설은 궁자유(窮子喩)라고 한다. 우리 인간은 떠돌이다. 그리고 본성을 어디에다 두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나그네요, 유랑객이다. 본성을 잃고 보면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 자신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오온덩어리가 굴러 다니는 것과 같다. 오온 덩어리가 굴러다니면 온갖 짓으로부터 차이고 짓밟히고 짓물러진다. 이렇게 밟힘과 굴림, 차임과 버림이 쌓이고 쌓이면 수많은 때가 묻어, 때묻은 그것이 실상인줄 알고 뒹굴게 된다. 오온의 전도가 중생이다. 전도속에는 몽상만이 있다. 몽상은 허깨비요, 신기루, 꿈, 거품이다. 그러나 몽상의 허깨비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도깨비가 꾸민 무대 위에서 오온의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활개짓을 한다. 꿈속에서 아무리 배를 채웠다 하더라도 꿈을 깨고 나면 시장기가 든다. 꿈에서 먹은 음식은 허망한 것이다.

오온의 덩어리가 온갖 방편에 의하여 한 세상 잘 살았다 하지만 허공속에 날려보낸 안개와 같은 것이다. 거기에는 실체나 실상이 있을 수 없다. 전도몽상을 입정현실하여야 한다. 견성진여하는 것이 입정현실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온의 덩어리 속에 진여성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오온의 덩어리란 밖으로 나뒹굴거나 광개쳐지면 전도몽상의 도깨비 춤을 추지만 그것을 실상의 정법으로 각인시키면 묘용의 무애춤을 추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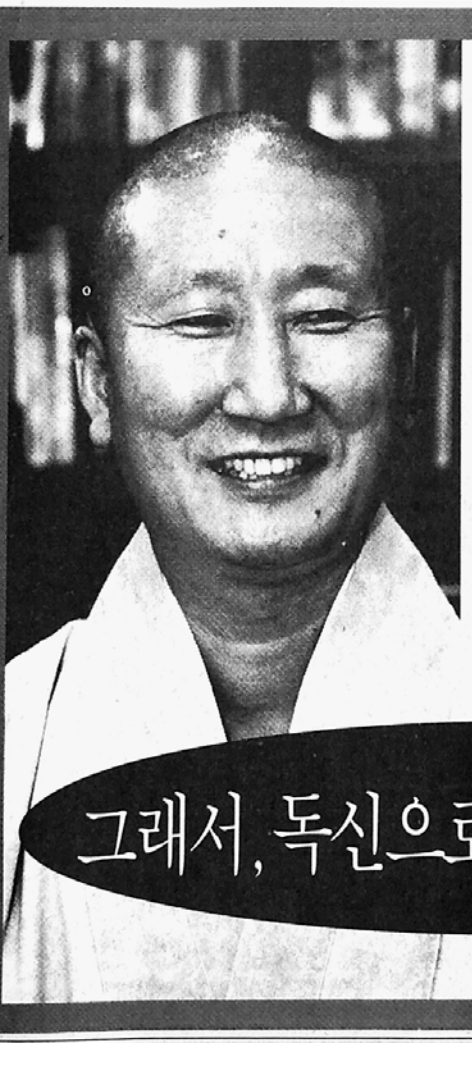
업장소멸 능력 있어

사람은 밖으로만 뛰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마음 먹으면 삼매의 여러 방에서 진실한 실상을 찾을 수도 있다.

〈법화경〉의 얘기에 나온 거지가 한 평생 고향에 찾아들지 못하였다면 유리걸식으로 낯선 거리에서 횡사객사하여 썩은 풀더미처럼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향에 찾아와 부모를 만나고 사람구실을 하고 아들이 되어 거부장자가 돼 만년을 행복하게 살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 고향이 무엇인가. 본성청정이고 여래불성이다. 중생은 무지의 오온인가, 아니다. 중생은 오온을 깨침으로 환치하거나 전식(轉識)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본래부터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생은 업장의 먹구름에 쌓인 날벼락이 아니다. 중생은 업장의 먹구름을 날려 보내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이 바람으로 무명구름을 날려 보내면 광명과 같고 바로자나와 같은 여래장불성이 내재하고 있음을 각증하게 될 것이다. 중생이 성불한다는 논리는 중생의 오온덩어리가 보리의 오온덩어리로 숨겨져 있음을 비밀장한 것이다.



제·원·스·님·에·세·이

고적한 산사(山寺)에서 우리가 사는 도심(都心)까지 배달되어 온 마음의 소포,

그것은 제원스님의 흙빛 언어, 파란 감동 에세이집!

우리는 가끔 염라대왕이 보내는 엽서를 받지 못했다고 우기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은 그 녹슨 우체통을 열어본다.

누군가, 저 멀리서 독각의 언어를 내뿜고 있다.

▶ 산길을 닮은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행복찾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큰 정치를 위해 군살을 빼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무소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절망과 희망의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 혼자 사는 이의 조촐한 멋이 있습니다.
▶ 맑은 영혼을 가진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이 책은 BBS불교방송 〈불국토의 아침〉을 진행했던 제원스님이 수행자라는 입장에서 쏟아놓은 언어들이다.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한번쯤 체에 걸른 것처럼, 영혼을 내뿜은 진한 감동의 에세이집이다.

그래서, 독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값6,000원 TEL(02)711-8948,1868/FAX(02)711-1859 이목

성하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본문 중에서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망설에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황광우 이경옥 옮김
신국판 전2권 각권 7,500원

"한국불교 日화엄학 뿌리"

신라불교 연구로 일본인도학불교학회상 수상
후쿠시 지닌 교수



"현재 일본 학계에서는 한국불교를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동북아 불교교류사의 중간 지역으로 파악하지 않고,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대승불교를 꽃피워 일본에 전달한 새로운 불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화엄학과 아스카·나라(飛良)시대의 불교 연구를 위해서는 한국불교를 먼저 공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일 일본에서 열린 제46회 인도학불교학회(본지 33호 15면 참조)에서 학술상을 수상한 후쿠시 지닌(福士慈稔·38)씨는 한국불교에 대한 일본 학자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한국불교 연구의 업적을 평가받아 이 학술상을 수상한 그는 87년 立正대학 문학석사논문 '한국구법승(求法僧)의 연구: 신라 원광법사'를 시작으로 94년 '부처의 덕성(德性)'에 이르기까지 27여편의 논문 중 24편을 한국불교 관련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소장학자다.

원광·원효등 한국관련 논문 24편 달해

24편의 한국불교 연구논문 중 신라불교사 연구가 6편, 원광(4)·원효연구(3)가 7편, 화랑세기 연구 6편, 한국불교 일반이 5편을 차지하고 있어 신라불교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탐구열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대전 배재대학 일본학과의 전임강사로 활동하면서 김지견교수(정신문화연구원)의 지도로 초기 신라불교를 연구하고 있는 후루시씨는 일본 立正대학 불교학부 강사와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도 겸하고 있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스승으로 노무라 요소우(野村耀昌) 立正大명예교수, 나까무라 하지메(中村元) 동경대명예교수, 김지견교수를 꼽는 그는 "한국에서 3년간 최선을 다해 연구활동을 한 후 목표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학술활동을 포기할 각오로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인도학불교학회의 학술상은 한국에서 보광스님(동국대 선학과교수)과 김지견교수가 수상한 바 있다.

김재경 기자



◇관음종이 지난 21일 '현대사회의 불교정신과 보살'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강연회.

보살의 이상은 '자비와 평등'

미슈라박사 국제불교학술강연회서 주장

최한 '현대사회의 불교정신과 보살' 주제의 제6회 국제불교학술강연회에서 '현대사회의 보살적 이상'이란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미슈라박사는 "과거 2천5백여 년동안 불교의 여정과 힌두교, 기타 다른 종교·문화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살의 이상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비와 평등을 확산시켜 왔다"며 "새로운 화쟁적 불교 형태와 종파 등을 발전시킨 한국불교는 불교전파의 매우 바람직한 본보기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살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세대의 중생을 돕기 위해 자비로와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시공에서 여타의 모습으로 화현(化現)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이밖에 김선근교수(동국대)와 신규탁교수(연세대)가 '인간성 회복을 위한 현대인의 보살도'와 '禪의 정신과 자기확신'을 각각 발표했다.

"불교는 개인과 집단,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였기에 전혀 괴흘림 없이 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퍼질 수 있었으며, 부처님에 의해 발견된 길을 따르도록 다른 사회, 문화·정신적 배경의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인도 바라나시 힌두대학의 석좌교수인 미슈라(K.N.Mishra) 박사는 지난 21일 대한불교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스님)이 주최한 '현대사회의 불교정신과 보살' 주제의 제6회 국제불교학술강연회에서 '현대사회의 보살적 이상'이란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통도사

응진전

有山有水乘龍虎
(유산유수승용호)
無是無非伴松竹
(무시무비반송죽)
曾昔靈山蒙授記
(증석영산몽수기)
而今會坐一堂中
(이금회좌일당중)

산이 있고 물이 있으니 용·호랑이를 타고
시비가 없으니 송죽을 벗하네

일체 불보살의 중생제도 묘사

옛날 영산에서 수기를 받은 분들이
지금 한 집안에 모여 앉아 계시네

해설 응진(應眞)이란 진리에 응하여 남을 깨우친다는 의미다. 이 말은 중생의 공양에 응할만한 수행자라는 응공(應供)과도 같은 의미이다. 때문에 불교에서는 나한(羅漢)을 일컫는 말로 쓰고 있다. 나한상을 모신 곳을 응진전이라 하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나한은 16나한도 있고 5백나한도 있다. 그것은 나한이란 수행력이 뛰어난 성인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도사의 응진전은 숙종 3년(1677)에 초창된 건축물인데 중수가 있었을 것이지만 기록은 없다. 단조로운 아홉간의 맞배집 건물로 형성된 이 전각에는 석가여래상을 중앙에 좌우에 미륵보살과 제화갈라(提華羯羅) 보살상을 모시고 주위에 16나한을, 그 가장자리에는 범천(梵天)과 제석(帝釋)을 같이 봉안하고 있다.

제화갈라 보살은 과거불이고 석가여래는 현세불이며 미륵불은 미래불이라고 볼때 이 응진전은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과 16나한이 함께 모셔진 곳이란 의미를 갖는다.

주련의 내용중 첫구절과 두번째 구절은 이미 깨달은 수행인에게 있어 걸릴 것이 없는 경계를 표현하고 있다. 용이나 호랑이 소나무 대나무 등이 주는 초월적 이미지들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그리고 뒷구절들은 이미 부처가 되기로 '예약'(수기)을 받은 분들이 이 전각에 모두 모여있다는 뜻으로 응진전의 거룩함을 극명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 주련의 내용은 관음예찬 례문의 일부인데 영산이란 영취산(영축산)을 뜻하는 것으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그런데 통도사 뒷편의 산 이름이 영축산인 것을 이 구절과 관련해 생각해 보면 재미있다.

〈안동 경안중 교사〉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이승휴는 佛·儒 동일론 선구자"

중앙대 진성규교수 밝혀

거사이자 유학자였던 〈제왕운기(帝王韻紀)〉의 저자 이승휴의 불교관을 조명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중앙대 진성규교수는 지난 17일 한국사상사학회(회장 김삼룡) 월례연구발표회서 '이승휴의 불교관'이란 논문을 통해 고려 거사불교의 단면을 보였던 이승휴의 불교관을 '유·불 동일론'의 시각에서 조명했다.

진교수는 이승휴가 "천지인 삼재(三才)와 유·불·도 삼교는 한 근원"이라고 말해 고려 사대부들의 유·불 동일론의 선구를 차지한 감이 있다며, 이는 당시 거사불교를 포함한 사상계의 경향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거사로 널리 알려진 인물로는 이자현(1061~1125), 이오(1050~1110), 윤언이(1090~1149) 등이 있으며, 이밖에 대표적인 사대주의 유학자였던 김부식도 말년에 관란사(觀瀾寺)라는 개인 원찰을 짓고 불교 수행에 정진하며 스스로 동안(動安)거사라 칭했을 정도로 거사불교가 일반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진성규교수

한편 이날 발표회서 윤명철씨(성균관대 강사)는 '고구려인의 시대정신에 대한 탐구 시론'을 통해 고구려 고분벽화를 중심으로 고구려인의 정신적 특성을 분석했다.

'한국불교' 국제학술대회

9월 美 UCLA大서

미 UCLA대 한국학연구소는 오는 9월15일~19일 同대학에서 '동아시아 불교전통에서의 한국불교의 위상'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연다.

한국불교의 동아시아 불교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로버트 버스웰교수(미 버클리대)등 미·일·유럽의 한국불교학 연구자들과 한국측의 정병조교수(동국대), 삼재룡교수(서울대), 길희성교수(서강대)가 참가한다.

동대불교대학원 논총 발간

동국대불교대학원장 목정배 교수의 '과학과 불교윤리', 채인환교수(선학과)의 '신라초기의 불교사상과 문화' 등을 게재한 〈동국대 불교대학원 논총〉 제2집이 발간됐다.

잊지 말아야할 다섯가지 은혜란

문 아침 예불문 중에 오종대은명심불망(五種大恩銘心不忘)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다섯가지 큰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인데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진재·서울대 자연대학〉

답 아다시피 경전에 따라 대은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부모의 은혜, 국왕의 은혜, 스승의 은혜, 삼보의 은혜, 시주의 은혜 등을 가리켜 불자라면 모름지기 잊어서는 안될 은혜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그 다섯뿐이겠습니까? 지·수·화·풍 사대의 은혜도 큰 은혜이겠지요. 또 세상 어느 것 하나라도 감사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쫓고 쫓기면서, 먹고 먹히면서 수없는 아픔을 겪으며 인간까지 진화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거쳐 오면서 무엇은 아니 된 적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때는 짐승의 몸으로 부모도 되었고 자식도 되었을 것이고, 또 어느 때는 사람의 몸으로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넓게 생각하면, 좁게 한 가정에서 한 생애를 사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쳇바퀴 돌듯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진화해온 도리를 안다면, 아마도 남의 부모 내 부모 따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그러니 어느 부모의 은혜가 크다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 부모 아니고 남의 부모이니 은혜는 커녕 함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오종대은명심불망의 가르침은 쉽게 보면 무슨 윤리도덕 얘기 같지만 실은 둘 아닌 도리를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연기의 도리를 아신다면 곰곰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주인의 지구 조상설에 대해

문 최근에 책을 한권 읽었습니다. 우주인과 독일 농부의 만남에 관해 쓴 것입니다. 그 책에서는 지구인의 조상이 우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종교도 있습니다만 지구인은 진화한게 아니라 우주에서 왔다는 얘기를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순·광주 서구 쌍촌동〉

답 풀 한포기만 살아 있어도 망한게 아니고 물·불·흙·바람만 있어도 불법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종말론 따위는 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주인이라는 건 이름입니다. 이 우주에 주인 노릇하는 우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바로 우주의 주인이니 이 세상 사람쳐놓고 우주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시고, 뭐 지구인의 조상이 어떻다 그런데 정신 빼앗기지 마시고 '최초에 나온 것은 어떤 놈이며 지금, 그리고 앞으로 갈 놈은 어떤 놈인지' 그것부터 찾아보기 바랍니다.

과학이 무의 세계 밝힐수 있을지

문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물질을 쪼개보는 기술도 지구 높이져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앞으로 인간은 유의 세계의 궁극에 이르러 무의 세계로 넘어가는 문을 발견할 수 있을는지요. 〈김도완·목포시 북교동〉

답 따로 문이 있어 문을 발견하는게 아닙니다. 굳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나눈다면 그 교차로를 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교차로에 죽음과 삶이 있듯이,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데 생각을 들이고 내는 거기에 한마음 공부가 있듯이, 현대문명이 더 발달해서 그야말로 평화가 실현되지면 물질세계와 정신세계의 교차로를 알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벌개가 아닙니다.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이 심히 마른데 물 한컵 따라놓고 그것을 이리저리 분석한다 해도 갈증은 면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마시는 게 장땡이겠지요. 그와같이 과학문명이 발달해서 궁극에는 어디에 이를 것이냐를 따질게 아닙니다. 그런 것 따질 일이라면 왜 부처님께서, 역대 조사님들께서 마음공부를 가르치셨겠습니까? 이 점 잊지마세요.

선본 상대가 맘에 들어 관했는데

문 저는 혼기가 꽉찬 처녀입니다. 부모님의 걱정이 크신데 얼마전 선을 보고 상대가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싫어하는 눈치였는데 제 나름으로는 '그 사람과 꼭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마음에 다짐을 두며 관했습니다. 그러나 문득 이 또한 집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장미선·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답 관하는 것은 무엇을 해달라고 바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해달라' 하면 벌써 비는 것이 됩니다. 관이란 쉽게 말해 나의 근본 마음자리에 코드를 꽂아 놓고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꽃을 꽂고자 '없는' 중심에 놓고 지켜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관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코 돌이 아님을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석같은 믿음이 없이는 몰락 놓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놓고 말긴다면서 '이게 정말 놓는건가 아닌가?' 또는 '놓는다고 될까 안될까?' 이런다면 그것은 코드를 제대로 안꽂았거나 꽂았더라도 뺐다 꽂았다 하는 격이 됩니다. 이왕 관한다 할 것 같으면 코드를 콱! 꽂아놓고 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일체를 맡겨야 합니다. 그래놓고 평등한 마음으로 돌아니게 지켜보면 보고 보이는 구별이 없이 모두가 한다음인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착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마음의 용광로에 다 쓸어 넣으셔요.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책 ①
北韓寺刹研究
사찰문화연구원 편저

북한 땅에도 '불교 문화'는 살아있습니다.
모든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민족 정신의
근간이며 찬란한 민족 문화 유산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북한 불교'의 온전한 복원.
민족 동질성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불교 문화
남·북한 민족 동질성의 공통분모

분단 이후 최초로 시도된 '북한사찰연구'

Ⅰ. 총설
북한의 승려·신도 단체, 북한의 종교 정책을 통해본 '북한 불교의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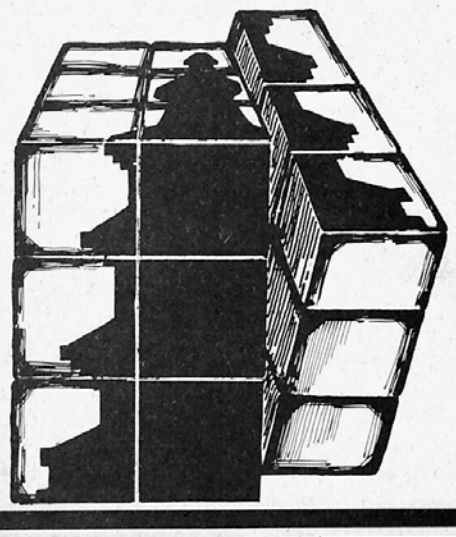
Ⅱ. 북한의 현존 사찰
북한의 현존 사찰로 알려진 60여 개 사찰의 역사적 고찰

Ⅲ. 북한의 주요 사찰
한국 불교사에 큰 자취를 남긴 12개 사찰의 역사적 인물, 귀중한 문화재의 모든 것

Ⅳ. 북한의 불교 문화재
북한에서 지정한 58점의 불교 문화재의 종교적, 예술적 의미

Ⅴ. 북한의 사찰 재산
분단 이전 사찰 소유의 재산 현황(과거 31본산의 북한 지역내 사찰 재산 목록 : 289개 사찰, 82,000정보)

Ⅵ. 북한의 사암 목록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북한 지역에 존재했던 1,793개 사찰과 문헌 정리(위치·창건·주요인물·문화재 : 도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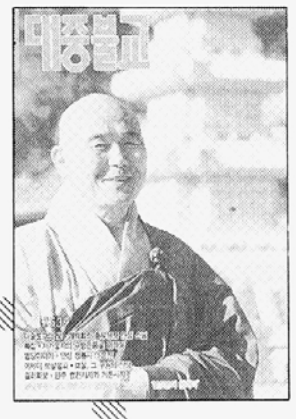


• 680쪽
• 4×6배판(사진 206매 수록)
• 값 30,000원
• 제작·발행 : 사찰문화연구원 02-566-4709

공급
불교서적 전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월간 〈대중불교〉를 만나십시오"

수행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도반은 필요합니다.
〈대중불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법에 입각한 신행운동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불자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과 역할을 끊임없이
모색해온 불교정론지 〈대중불교〉가
이제 수행운동을 함께 펼쳐갑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과 보람으로
이끌어줄 대중불교!
지금 당장 전화로 신청하세요!

불교방송교재
'경전공부'
'교리강좌'
'불교영어 한마디'을
권말부록으로
발행합니다

구독문의 :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재)대원정사, 월간〈대중불교〉
전화 : (02)773-5731, 752-7047 / 팩스 (02)771-6796

제2창종 의지로 승단화합 주력

수요인터뷰

진각종 신임 통리원장

락 혜 대정사



위덕대학 개교등 종단 차원 교육사업 지원

서울·대구·안성 등지에 대형불사 회향 발원

밀교중흥과 생활불교 구현을 주창하는 대한불교 진각종은 지난 20일 서울 통리원에서 임시종의회를 열고 제 24대 통리원장으로 락혜(대명심인당 주교) 대정사를 선출했다.

20여년간 정사로 활동하면서 종단발전과 교화에 힘써온 신임 락혜 통리원장은 "참여와 도전정신으로 한국불교를 선도하는 종단으로 이끌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일하는 풍토 조성할 터

-통리원장 당선을 축하합니다. 소감은.

▲현 통리원장과 종단내 스승들의 추천이 있었을 때만 해도 원로 스승들이 많이 있는데 통리원장직을 맡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10여일을 고민하다가 종단운영에 대해 평소 생각했던 것들을 실천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지난해까지 6년간 홍교부장을 역임하면서 세분의 통리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종단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바람도 많았습니다. 앉아있는 원장이기보다는 부지런하게 뛰는 원장으로서 그동안 느꼈던 일들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오랜동안 총인원에서 직접 종단운영에 참여하셨다니 누구보다도 종단의 문제점을 잘 알고 그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기중 어떤 부분에 주력하여 종단을 이끌 예정입니까.

▲우선 시급한 것은 승단화합입니다. 가정에서도 세대차이가 있듯이 승단내에도 세대차가 있어 이견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처님과 종조님의 가르침에 따라 원만한 조종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단발전은 교화일선에서 활동중인 정사와 전수들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종단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각종은 유일한 유발종단으로서 한국불교에 일대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종단의 위상을 높이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종단 안팎에서 제2의 창종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종도들의 뜻에 부응하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내년 6월14일은 진기 50년으로 창종 반세기가 됩니다. 저희 종단에서는 대대적인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기도 안성지역에 추진중인 진각성지조성은 진각종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갈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지조성에는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여 원만하게 회향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왕십리 밀각심인당이 신축되고있어 서울지역 포교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대구에도 지하 2층 지상 8층의 매머드 진각회관을 건립중입니다.

이처럼 종단차원으로 펼치고 있는 대형불사를 통해 대 내외적으로 거듭나는 종단 이미지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활기차게 움직여야 하고 젊은 층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폭넓게 수용하여 시대에 맞는 포교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진각종은 중앙집권제로 여느 종단에 비해 단합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교역자 양성 및 인재등용 등 교육사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내년에 개교되는 위덕대학의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요.

▲종립 위덕대학은 이타자리의 교육이념을 근간으로 9개학과 4백명의 입학생을 받아 내년에 개교하게 되는데 큰 어려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진각종은 25개의 종립유치원과 각 교당 자체에 어린이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설 자성학교가 있으며, 대구 심인중고와 서울 진성여중고 등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교육기관은 회당학원에서 일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종단 이름에 걸맞는 불교종립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해 재단이사장과 합의하여 종단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통리원장님은 홍교부장시절 종단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전국의 교당에서 교육과 종단소개용으로 활용하는 등 현대적 포교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현실에 맞는 포교를 위해 새롭게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지방순회법회 활성화

▲그동안 진각종은 내부발전에만 주력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한국불교가 요구하는 범불교적 불사에도 적극 참여하는 종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대구 진각회관이 건립되면 진각종도뿐 아니라 모든 불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대구불교방송개국에 도움이 된다면 회관 이용방안도 검토해볼 것입니다. 그밖에도 지방순회법회를 대대적으로 펼쳐 종도뿐 아니라 지역불자, 일반인에게 불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종단차원으로 펼치고 있는 청정국토 가꾸기운동이 대 내외적으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탐진치를 버리고 쓰레기분리수거를 하자' 등의 10선계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 운동의 취지와 활동상황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 운동은 불교사상과 그 핵심인 밀교사상에 기초하여 인간의 심성정화를 우선시하면서 3대사업인 환경정화,생명존중, 지은보은사업을 전개하는 운동입니다. 청심정토(淸心淨土)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일반사회 일각에서 전개하는 환경보전사업과는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현재 심인당별로 분리수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심인당에서는 무공해비누를 판매하는등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승단화합은 스승만의 화합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속 모두가 하나로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앞으로 교도(신자)들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모든 일에 도전하는 의지를 갖고 종단은 물론 불교발전을 위해 정진하도록 합시다.

이준엽 기자

약 력

- 1934. 3. 22 경남 창녕 生
- 59년 동아대 정치학과 수료
- 74년 대한불교 진각종 정사 임명
- 85년 대명심인당 주교
- 89~94년 홍교부장 역임

나의 수행일기

임현담 <광명방사선과의원 원장> 下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미린다팡하'와 '남방의 선지식'이라는 두 권의 책을 조우하게 되었다. 모든 것은 윤회한다, 그리고 우리 존재는 허깨비같은 무아(無我)라는 것이 아름다운 비유로 '미린다팡하'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 또한 '남방의 선지식'에서는 위빠사나 수행법이 친절한 방법으로 소개되어 있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마음공부를 시작했다. 여러 불전에 쓰여진 말씀대로 실행하고 느껴보고, 조사 선사의 어묵동정을 조심스럽게 추적하다가 다시 인도로 날아갔다.

그때 목표는 히말라야였다. 많은 책에 서술되어 있는 설산(雪山)이라는 표현이 히말라야임을 알았고 붓다가 출가하여 젊은 시절 한때, 수행했던 곳이 바로 히말라야였다는 사실이 강하게 설산행을 권했다. 더러운 인도 땅을 길게 여행하며 때로는 기차로, 때로는 버스로, 힘들게 설산 입구에 도착했다.

해발 3천미터가 넘는 능선을 힘겹게 오르면서 가쁘게 나가고 들어오는 호흡을 보고, 어 피어오른 존재였다. 아침이면 백련으로, 낮이면 청련으로, 그리고 석양이면 홍련으로 붉게 물들어 위대한 말씀을 전하는 경전이었다. 그래서 경전에 나오는 설산-히말라야의 비밀을 조금 눈치채게 되었다. 더러운 인도땅을 지나 우주를 향해 불타오르듯 펼쳐져 있는 설산은 연꽃이었고, 붓다는 '옴마니밧메훔-연꽃 속에 보석'이라는 말씀으로 경전의 참뜻이 자연속에도 있음을 암시하셨다는 것을….

이후 해마다 히말라야에서 열흘 이상 지냈다. 삼십년이상 따르던 로마가톨릭의 사상은 새롭게 넘쳐 흘러들어오는 물결로 인해 의식의 밑바닥으로 흔적없이 사라지고 모든 것은 순리대로 업보대로 삼보에 귀의했다.

매년 히말라야行…불법 참뜻 체험

30년동안 가톨릭서 못 얻었던 의문 윤회서 풀어



고산증으로 무겁게 들어올려지고 땅에 닿고, 또 들어올려져 움직이는 다리 동작을 주시했다. 역시 나는 사라지고 걷는 동작만 남고, 나는 사라지고 호흡만이 존재했다.

산에 앉아 야생화들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니 모든 것이 윤회였다. 하나의 작은 씨가 떨어져 땅속에 묻히면 다음 해에 다시 발아하여 야생화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 풍경은 사실 어디서나 볼 수 있었는데 히말라야에 앉아 윤회와 연관지어지는 것을 보며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풍경이 스승이 되기 시작했고, 조용히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수행인 것이었다. 경전에 쓰여있는 모든 말씀이, 만다라처럼 펼쳐진 꽃잎으로 바람에 날리는 야생화에 적혀 있었다.

아침이 되면 만년설이 덮힌 설산 고봉은 하얗게 빛났다. 낮이면 푸르른 하늘과 맞닿아 마치 푸른 물에 잠긴 듯 푸르게 보였고, 서방정토가 있다는 서쪽으로 석양이 떨어지는 시간에는 붉게 물들어 찬란하게 빛났다. 불타오르는 황혼의 설봉을 보니 붓다의 위대한 열반이 생각나, 문득 일어나 온몸을 던져 오늘 하루 이제 입적하는 설봉에 오체투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었다. 마치 진흙탕같은 더러운 인도땅을 지나 히말라야는 하나의 연꽃이 되어 피어나듯, 또 이 방에 머물다가 옆 방으로 새롭게 들어가듯이 자연스러운 흐름-윤회의 일부분일 뿐이었다.

죽고사는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니었고, 흘러왔고 흘러갈 곳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기 시작했다. 인도땅에서 수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죽음의 의식은 병풍뒤에 숨겨져 있던 내 나라의 죽음과는 달리 매우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듯이, 또 이 방에 머물다가 옆 방으로 새롭게 들어가듯이 자연스러운 흐름-윤회의 일부분일 뿐이었다.

법정스님의 말씀처럼 갠지스 기슭에 앉아 붓다의 출생지인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과 죽음을 보면서, 인간 존재의 심연에 대해서 사유하니,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었고 죽음은 구원되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초월되어야 할 과정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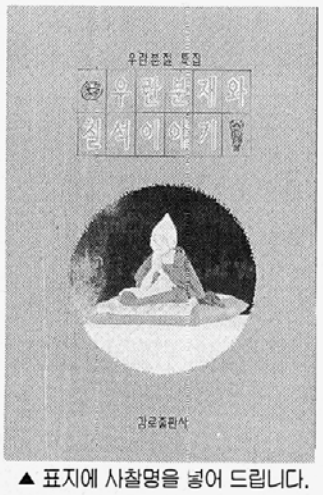
돌아보면 우연히 피서지에서 만난 책 하나가 인생을 엄청나게 바꾸었고 수행을 시작하라 권유했으며, 법정스님 글이 먼 길 떠나게 만들었고, 이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경전되어 말씀을 전했다.

아직 재가자로 도가 낮아 참선으로 용맹정진하지 못하고 그저 몸뚱아리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자연에 농인 존재를 바라보는 것에 불과하다. 잠들기 전에 내일 새벽 기차를 타리라 마음먹듯, 반드시 내생에 스님이 되리라 수시로 다짐한다.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란분절 법회 · 칠석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 안내 ①

우란분재의 연원, 우란분재의 의미, 우란분재에 얽힌 이야기, 칠월 칠석의 유래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우란분절 법회, 칠석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수록내용

제1부 발원문
1. 우란분절 발원문
2. 우란분절 봉축법회 식순

제2부 믿음의 근본, 효:우란분재
1. 우란분재의 연원
2. 우란분재란
3. 우란분재의 의미
4. 우란분절과 백중

제3부 우란분재에 얽힌 이야기
1. 나복의 출가
2. 어머니를 찾아 지옥으로간 목련존자
3. 우란분재를 올리다
4. 부처님께서 우란분재를 베풀라 하신 참뜻은?

제4부 칠월칠석
1. 칠석의 유래
2.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칠석재
3. 칠원성군 진언과 부적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그리고 인사말, 법회안내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 가격/1권당 1,000원
- 크기/신국판(152cm×223cm) 64페이지
-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온라인 번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

孝 사상의 3大 경전 부모은중경 · 우란분경 · 목련경을 한데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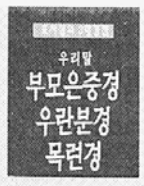
우란분절 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 안내 ②

부모님에 대한 孝사상을 고취시키십시다.

부모은중경 · 목련경 · 우란분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우란분회에 대하여, 우리말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으므로 우란분절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효사상이 고갈된 현시대에 부모님에 대한 효사상의 고취는 물론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부모은중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제2부 우리말 부모은중경
제3부 목련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제4부 우리말 목련경
제5부 우란분경이란 어떤경전인가
제6부 우란분회란
제7부 우리말 우란분경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그리고 인사말, 법회안내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가격/1권당 1,000원 ■ 크기/신국판(152cm×223cm) 64페이지
-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우리말 지장경

-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 비닐커버
- 법보시가격/4,000원
-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신앙영험록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법보시자,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문경 성불암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온라인 번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17〉

雲法師 務學十門(운법사 무학십문) ③

③ 不擇師 無以法
불택사 무이법
鳥之將息 必擇其林 人之求息 當選於師
조지장식 필택기림 인지구식 당선어사
師 乃人之模範 模不模範不範 古今多矣
사 내인지모범 모불모범불범 고금다의
爲模範者 世有二焉 上則智慧博達
위모범자 세유이언 상즉지혜박달
行業堅貞 猶密室燈 光徹窓牖
행업견정 유밀실등 광철창극

③ 스승을 가리지 않으면 법 받을게 없다
새는 쉬려함에 반드시 숲을 택하고 사람이 도를 배움(망념을 쉼)에는 마땅히 스승을 가릴 것이니 스승은 사람의 모범이어늘 본이 본답지 못하고 보기가 보기답지 못한게 예나 이제나 많다.
모범 되는 자 세상에 두가지 있다하니 먼저는 지혜가 널리 이치고
행업이 곧고 곧아 마치 밀실의 등불빛이 창 틈으로 새어나오는 것 같고

夫乃解雖洞曉 行亦藏瑕
차내해수통효 행역장하
如犯罪人 持證悟道 斯二高座 皆繇師法
여범죄인 지등조도 사이고좌 개은사법
其如厚德 遲時 名而不高
기여과덕 적시 명이불고

내위체발 지수구계 자기유학
投佛盥登 見以奇之 異哉 小童 眞世良驥
투불도징 견이기지 이재 소동 진세양기
不遇再眼 困竈盛車 自非伯樂 奚彰千
불우청안 곤가염거 자비백락 해창천
里之駿
리지준

변의경을 주니 경전을 들고 밭에 나가 쉬는 짬에 훑어보고
저녁에 스승께 돌아와 경을 외어 마치매 스승이 크게 놀라
머리 깎아주고 구족계를 주며 네 마음대로 유학하라 하였다.
불도징스님(인도스님 · 중국서 전법)에게 보내니 스님이 보고 기특하게 여겨 이채롭다 어린 아이여 참으로 세상의 좋은 준마로구나.
푸른 눈을 만나지 못해 곤하게 소금수레를 끌었구나. 백락(중국의 유명한 말 감정가)이 아니면 어찌 천리마를 가려내리오.

故 出家者 愼宜詳擇 察有成之能 方
고 출가자 신의상택 찰유장성지능 방
具資品之禮
구자품지례
故 南山 云眞誠出家者 怖四惡之多苦
고 남산 운진성출가자 포사원지다고

"출가한 이는 네 마구니 고통 두려워하고
오욕집착 끊어야 사생 제도 해탈경지"

望風依附 畢世荒唐
망풍의부 필세황당
東晋安師 十二出家 貌黑形陋
동진안사 십이출가 모흑형루
師輕視之 駈役田舍 執勞三年 方求師教
사경시지 구역전사 집로삼년 방구사교

다음은, 아는 것은 비록 둑틔어 밝으나 행함에는 허물을 숨기는 것이
마치 죄를 범한 이가 등불로 길을 비춰주는 것 같으니 이 두가지 높은 자리는 다 스승법을 쌓은 경우이다.
(그러나) 그 적은 덕이 때를 잘 만나 이름이 났어도 높지 않은 것을
바람 결 풍문따라 의탁하면 평생토록 황당할 것이다.
동진의 도안스님이 열두살에 출가했으나 얼굴이 검고 형상이 누추해서
스승이 가벼이 보고 밭일만 시켰는데 3년 간 열심히 일하다가 바야흐로 스승의 가르침을 구하거늘

授辨意經 執卷入田 因息就覽
수변의경 집권입전 인식취람
暮還師 經已暗誦 師方驚歎
모귀환사 경기암송 사방경탄
乃爲剃髮 至受具戒 恣其遊學
내위체발 지수구계 자기유학

厭三界之無常 辭六親之至愛 捨五慾之
염삼계지무상 사육친지지애 사오욕지
深着
심착
能如是者 名眞出家
능여시자 명진출가
則可紹隆三寶 度脫四生
즉가소륭삼보 도탈사생
利益甚深 功德無量
이익심심 공덕무량

고로 출가자는 신중하게 의당 상세히 가려서 재목감이 되는지를 살피고야 바야흐로 자질에 맞게 예를 갖춰야 한다.
고로 남산(중국 종남산 도의선사)이 이르기를 진심으로 출가한 이는 네 마구니(번뇌마 · 음마 · 사마 · 천자마)의 고통이 많음을 두려워 하고 삼계의 무상함을 싫어하며 육친의 지극한 사랑을 마다하고 오욕의 깊은 집착을 끊어라 하였다.
능히 이같이 하는 이는 이름 그대로 참다운 출가라 곧 가히 삼보를 이어 받들어 융성케 하고 사생을 제도해 해탈케 할 것인 즉
이로움은 더욱 더 깊어지고 공덕은 무량하리라. 龍眼

★ 지 상 법 석

"사리사욕에 끄달리지 말고



지종스님 〈불갑사 조실〉

악 력
· 1922. 4. 21 生
· 1938년 법안스님 은사로 득도
· 백양사 주지 · 정광학원 이사장 역임
·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현재)

많은 신도들이 읽고 외는 금강경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법문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부처님의 진리를 깨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법문만 듣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여법히 이 금강경의 도리를 받아 실천해야 됩니다. 이 금강경의 가르침 대로만 할 것 같으면 성불못할 사람이 없고 복 안지을 사람이 없으며 뜻대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도리가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맨처음 이 경의 이름을 지을 때 부처님께서 금강경이라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이것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기에 이미 반야바라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째서 반야바라밀이 아니냐고 하니 이름과 모습에 끄달리지 말라는 뜻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문자에 따라 해석하자면 반야는 지혜를 바라밀은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을 지닌다고 설명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뭐예요. 먹고 입는 것 아네요? 그럼 아무 걱정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야합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부처님 뜻을 따르면 극락세계에 가는 겁니다. 극락세계만 가면 아무 것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거기엔 추위도 더위도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 사시사철 좋은 꽃이 피고 향긋한 바람이 부는 이상적인 세계예요.

"금강경 가르침대로 받들어 실천하면 탐진치 다 없어져 누구나 성불합니다"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경이 금강경이란 말입니다. 마음을 닦아서 탐진치 삼독과 번뇌망상을 떼어 버리고 오직 모든 중생을 내 한몸과 같이 여겨라, 모든 중생을 부처님과 같이 받들어라 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지니지 않고서는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생사를 멸하고 모든 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도리, 그 도리를 이 반야바라밀경만 지니고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 큰 공덕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만 지니고 앉아 있으면 공부가 됩니까, 그 뜻을 알고 전하는 것이 큰 공덕이 되는 것이지요. 어째서 큰 공덕이 되는가 하면 탐진치 삼독이 다 떨어져 중생이나 축생이나 본래의 근본 자리를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49년동안 설법을 하셨지만 또한 내가 설한 바가 없다고 최후에 가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뜻은 무궁무진해서 한도 끝도 없는데 어떻게 말로 끝낼 수 있느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한량없는 무수한 중생이 있습니다. 삼악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부처님 법문 듣고 그대로 다 따랐다면 삼악도가 다 없어지고 중생세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불국토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법문만 들으면 공덕이 된다는 생각만 갖고 실제로는 공부도 안하고, 공덕도, 복도 짓지 않고 아무 것도 안했어요.
반대로 우리가 법문을 듣고 탐진치 삼독고뇌를 다 털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부처님 같이 여기고 나와 한 몸뚱이 같이 여겨 보세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불행이 있겠습니까. 한량없는 행복만 계속될 뿐이지요. 결국 우리가 부처님 뜻을 하나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그대로 남아 있고 삼악도도 삼악도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부처님 정법은 멀어지고 오직 우리에게는 탐진치 삼독만 꽉 차 있는거죠. 그러니 언제 이 세계가 극락정토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었어요. 육신은 태어났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시길 내가 제정한 계법 다섯가지 살생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먹지 말라 하시며 내 법을 항상 그대들의 스승으로 삼아라, 그 법을 스승으로 삼을지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지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조문객 —접대음식— 육개장 · 대구탕 外 중어회 · 전유어 · 북어쩌 등 이조 고방 924-9211 925-4961 소모종 제공 · 봉사료원 별도
크리아 요가원 요가는 강인한 체력과 아름다운 몸매를 약속하며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자아를 발견한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빌딩 402호) 전화:738-1291, 356-4271(팩)
승도인쇄 스티커 전문 불심과 공익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문의처 (02)273-1239 대표 이 강 화 합장
단청 · 불상 · 탱화 · 개금 ※문화재 단청기능 제892호※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8 6통 4반 ■문의처: 468-8329 ■호출기: 012-307-8329 박석언 합장
정통 중국어 속성강좌 냉 · 난방, 최고급 시설과 어학실습실 완비 중국 사범대학 교수 초청강의 책임지도 기초반, 회화반, 유학반, 비지니스반 ■스님 유학반 모집(이미 출국유학중) ■학위및 자격취득 책임보장 ■JW 202 유학허가및 입학통지서 보장 ■HSK 시험대비 중점 강의 中國語 : 漢文 : 書法 평일 6:30~22:00(9월 학기 유학생 모집) 특별반 토→14:00~18:00 일→10:00~18:00 정기 학원생 취업보장(수시접수) 상담 : 代 (02) 246-8256, 246-8257 韓中語學院 원장 : 중국 학민 사범대학교 경제학 교수 중국 학위 심사위원(한국인 최초) 관허 1670호 기업진흥상담
經營管理職招聘 當社는 Group 계열사로써, 기업상장을 대비하여 지점경영에 참여할 능력있는 경력인사를 널리 초빙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경영기획부: 기획관리 · 인령 : 만 35~60세 / 경영관리 · 本 · 公 · 社職 경력자 / 영업 · 홍보 · 영예퇴직 및 사회지도인사) 2. 제 출 처 : 종로구 관훈동(조계사 100m전) 3. 접수기간 : 95년 6월 19일 ~ 26일 상담문의 737-0588~9
부처님 말씀 친필 작품 보시하는 마음으로 써드립니다. 268-5702 남강서실
법화경 강좌 강사 최공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645-6224 대구:952-8711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02)279-2715 팩스:(02)275-3739
노고당 733-8743 지방은 조각하여 우송하겠습니다.
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 농협역삼동지점 096-01-239051(서클상사) ■전화: (02)556-3076-7 ■팩스: (02)556-3078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 법상 · 경상 · 의령사(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용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성남(봉룡사): 대웅전 문짝 닫집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수미단 용각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최근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쉽게 풀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 철저한 1 : 1「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 1명4도8)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자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1 노크하여 94년 4학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 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문황안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씨비스 080—023—4600

지 상 법 석

공덕쌓기 정진하세요"

"입으로 향기나는 세상만들자 하고 한순간 돌아서면 짜증내고 남 미워하고 죄지으니 세상살이가 지옥이 됩니다"

육신쾌락 좇지말고 불법만 스승삼아야 참 행복
자기보다 남위해 복짓는 노력이 정토가는 첩경

언정 육신덩어리를 믿고 스승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내 육신 덩어리는 없어지지만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뜻을 이어 실천하고 공부하면서 산다면 부처님을 속일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곧 내 마음을 속이는 것이니 부처님을 속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영리를 위해 남을 속이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짓누르고 없는 것을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런 짓을 지금도 우리 불자들이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부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시적인 자기 영리를 위해서 부처님을 속이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으므로 그렇게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업을 지어가므로 이 세계가 불국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 화내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형체가 없는 그 마음 자리가 이 우주법계를 삼켰다가 뱉었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형체가 있다면 이 우주를 못삼켜요. 없기 때문에 이 우주를 한숨에 들이켰다 뱉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 , 신령스런 그 마음 자리 이것을 우리가 알고 본다면 금강경 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형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고려자기가 좋아서 그것을 재현하려 하지만 그게 됩니까.

공에서 만들어졌다 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니 현상계는 전부 형체나 음성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부터 공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죽을 때는 소중한 재산, 자손 모두 다 내던지고 가장 소중한 내 몸뚱이까지 내던지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 내것이라 집착할 것이 도무지 없죠. 그러나 마음자리는 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몸뚱이 있을 때 지은 업을 뒤집어 쓰고 가게 됩니다.

어떤 업이냐 하면 염불을 외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극락세계에 갈 반야용선을 탈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돈, 명예, 이름 이런 거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 것도 못가져 가요. 그런데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공덕이예요. 열심히 공덕 지으면 반드시 그 마음자리를 가져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만을 위해 지은 업보와 죄를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삼독을 버리라 하신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과보를 받아요. 결국 화탕지옥 밖에 더 가겠어요.

그런 곳에 안가려면 부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해요. 부처님 법을 따르는데 형무소고 재판소고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 부처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이 자기 마음을 속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금강경의 도리는 현상계에 있는 모든 집착이 다 실체가 없다는 공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무서워졌다고들 하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 자기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이예요. 어디 이런 세상을 살아야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닦는 길 밖엔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마음을 닦고 공덕을 쌓아 보세요. 그러면 다시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잘못하면 이 세계가 극락세계가 아니라 화탕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 우리 모두는 죽을 때
> 돈·명예는 가져갈 수 없지만
> 공덕지은 마음은 가져갑니다

요즘 젊은 불자들이 자꾸 부르짖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밝고 향기나는 세계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구호로만 되는게 아니예요. 마음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정화, 정화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순간 돌아서면 쓸데없는 생각과 욕심으로 곽차버리고 쉽게 짜증내고, 화내고, 일하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그러니 어떻게 밝고 향기나는 세계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다시 부처님 앞에 서면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참회하고 또 돌아서면 언제그랬느냐는듯이 삿된 생각으로 자신을 어지럽히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요. 자꾸 돌이켜 보세요. 자신을 반성하세요. 그것이 바로 공부예요.

지금 이 늙은이가 뭐가 어떻다하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곧 나처럼 돼요.

이렇게 되기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을 정화해서 깨우쳐야 돼요.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금강반야바라밀은 금강반야바라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천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근본바탕 우리의 마음 자리에 서는 금강반야바라밀경이 자성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알기 위해 공부하고 깨우치면 그것이 곧 금강반야바라밀경이 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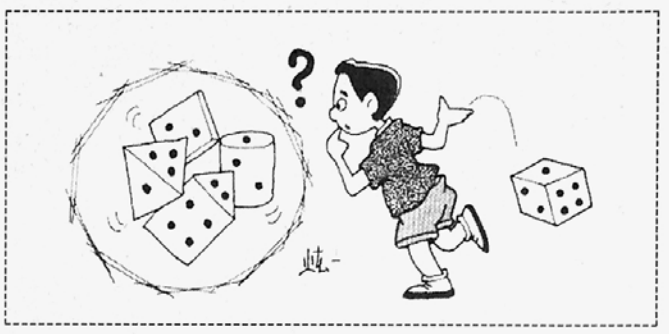
우리 노보살님들 이 세상을 떠날 밥상을 받아 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지요. 보따리를 가지고 갈 것인지 다 털어버리고 갈 것인지 고민도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따리에 나쁜 것만 싸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으로 무서운 일이예요.

나도 잘 때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자문자답을 합니다. 오래된 돌덩이 화단에 가져다 놓으면 보기에나 좋지만 이놈의 몸뚱이 어디에 씁니까. 죽은 몸뚱이 결국 여기저기 썩다가 자신이 지은 업대로 가요.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고 공덕 짓고 복 짓고 해야돼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얘기하죠. 우리 신도님들 종파에 관계없이 그저 아무 절이나 잘 다니지요?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신도들은 참으로 너그러운 편이예요. 그저 부처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면서 선덕을 짓고 모두가 잘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국정토를 이루는 길입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30

양 형 진

승의제와 세속제

양자역학에서의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에서 시작하여 언어적 개념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이와 연관하여 승의제(勝義諦)와 세속제(世俗諦) 혹은 승속이제(勝俗二諦)의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승의제란 언설 불가득공인 절대 세계의 진리요,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은 무분별지(無分別智)이다. 한편 세속제란 상대적인 언어의 표현으로 나타난 진리이다. 언설에 의하지 않고는 승의를 알 수 없으므로 방편으로서 나타낸 것이다.

우선 세속이라는 말을 살펴보자. 세속에 대응되는 말에는 vyavahara, samvriti, prajnapti 등이 있다고 한다. 이 세 단어에 공통되는 의미는 세속(世俗), 속(俗), 언설(言說), 세간(世間), 가명(假名) 등이다. 이들 단어에는 언설등과 관련하여 각각 조금씩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점이 있으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vyavahara에는 언어활동이라는 의미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학자가 있다. 그렇다면 언어에 의한 개념이나 개념을 기초 단위로 하는 논리까지도 세속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리의 문제를 양자역학과 관련시켜 살펴보자.

우리의 일상적인 논리체계와 정합적으로 구성되는 대수학을 불리안 대수(Boolian algebra)라고 부른다. 그러나 양자 역학에서는 이 불리안 대수학이 성립되지 않으며, 그래서 이를 비불리안 대수라고 한다. 확률과 관계되는 양자 역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음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양자역학의 대수와 관련하여 주사위의 예를 하나 들어 보도록 하겠다. 주사위의 1과 2가 나올 확률은 각각 1/6이다. 그러면 1이나 2가 나올 확률은 1/3이 된다. 이것은 불리안 대수의 간단한 예가 된다. 그러나 양자 역학에서의 주사위는 그렇게 간단한 주사위가 아니다. 양자 주사위에서는 1과 2가 나올 확률은 0에서 부터 1/3사이에 있는 값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하면 양자 역학에서의 확률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친숙하게 생각하는 그런 확률이 아니다. 양자 주사위는 어린 아이가 가지고 노는 주사위가 아니라 아주 기묘한 주사위인 셈이다. 이러한 셈법이 비불리안 대수학의 예가 된다. 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논리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논리학에서의 명제가 자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경험 한계 내에서 형성된 의식의 틀 안에서만 자명한 것일 뿐 그것을 조금 벗어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과학은 양자역학의 발전에 힘입어 20세기에 와서야 겨우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나 숫타니파타에서는 이미 '세간에 있어서의 어떠한 세속의 것이라도 그들 일체에 지자는 집착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모두 호칭이고 명칭이고 표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samvriti에는 '가리다'라는 의미가 있

논리는 인간 경험 한계서만 증명될 뿐
실체없는 假相은 연기설로 이해해야

'실체성이 없는 가상(假相)'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연기이기 때문에 자체로서 생하지 않고 오직 상대적으로 의존해서만 생겨나니 연기무자성공이라고 하겠다. 용수보살은 중론 관사제품(觀四諦品) 제24장 18, 19게에서 '인연으로 생겨난 모든 것을 우리는 공이라고 한다. 이는 가명이며 중도(中道)이다. 인연따라 생겨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으므로 일체법에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 모든 세속의 논의는 언설로 표현된 것이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최상승의 절대 진리는 어떻게 알려야 하는가. 다음 번에 승의제를 살펴 보면서 논의하여 보도록 하겠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질병인을 건강하게 건강인은 더욱 건강하게
당뇨 위장·변비·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 : (02)552-1470(대) / 팩스 : 562-3205
문의시 상담 및 자료무송
주소:강남구 역삼동 827-4 금성B/D 2층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한남상사
Tel: 02)795-4083, Fax: 02)792-9659

스님 및 지도교사를 위한
찬불가 피아노 반주 3개월 완성
교과특성
개인지도 원칙, 레슨기간 자유선택, 찬불가를 통한 음악이론 및 실기지도, 시창청음 별도수업실시
•등록:수시접수(725-7527~9)
•장소:불교교육연구원(조계사 옆)
불교교육연구원

탈 종 공 고
대한불교 법화종 종정 법하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산 98-9
사칠명 : 보각사
상기 사찰의 주지스님 열반으로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함을 이에 공고함
불기 2539년 6월
보각사
주지 안성만(광응) 합장

직인무효공고
상기 사찰의 주지 직인을 95년 6월 22일 개인하였기에 이전 사용분은 무효임을 공고함
보각사
주지 안광응(성만) 합장

평문대가집
현미먹는 비법
먹기어렵다 현미 이렇게 먹으면 된다!
2분도현미 (먹기 어렵다)
3분도현미 (먹기 쉽다)
4분도현미 (먹기 더쉽다)
5분도현미 (먹기 더욱 쉽다)
6분도현미 (먹기 더더욱 쉽다)
백미10분도 (쌀눈이 전혀 없다)
"입맛대로 주문,배달"
조상의 얼을 지키는 쌀바르게먹기운동중앙회
TEL. (02)231-5421~2
235-1846~7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출판 운주사
·종로구 청진동 6번지
·TEL (02) 720-9372~3
·FAX (02) 723-0646

역학·성명학에 관심이 있으신 비구니 스님만을 모십니다
최여래심 합장
연락처:987-2721
주소:강북구 번2동 주공APT 408동 803호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업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하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작품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벽화·병풍 및 액자화 작품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시내·지방·외국 어디나 그림만 또는 표구작품을 해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동 173-1 전화 (02)3273-0081
온라인:국민은행 납영지점 822-24-0171-328(우만)

박사 과정연수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8일간 연수 수료증 교부
■대상 : 한의사, 한약사, 스님, 불자
■출발일 : 7월 10일(대아여행사앞)
■남경중의약대학
중국남경 : 660-7129
서울사무소: 02-511-1080, 511-2026~8

윤 조각실(불교미술원)
■부처님 조성
■청동불 조성
■대불조성
■천불전
■개금
제14회 불교미술전 우수상수상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16-1
전화 713-3560, 214-8963

전화로 주문하고 집까지 배달되는

가진 홈쇼핑 HOME SHOPPING

'95 현대불교신문 독자만을 위한 통신

영원한 생명의 상징 —호신불 목걸이—



• 실물의 약 1.4배
• 뒷면은 반야심경이 양각되어 있습니다.
• 체인길이 42cm

• 상품코드 KJ 6201
• 상품명 호신불 목걸이(14k/6.01g)
~~₩ 116,600~~ → ₩ 104,400 (10%)
(체인포함가격)
• 체인무게 1.87g

용마니반대홍, 항마진인 호신불로 혼탁한 세계와 그로 인한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안정과 평화를 찾으십시오.

만사형통으로 이끄는 작은 호신불 —불자 목걸이—



• 상품코드 KJ 6202
• 상품명 불자 목걸이(14k/3.53g)
~~₩ 70,600~~ → ₩ 63,000 (10%)
(체인포함가격)
• 체인무게 1.87g

거북이는 부귀와 장수, 행운의 상징입니다.



• 상품코드 KJ 6203
• 상품명 거북반지
(14k/11.17g, 2Ø/0.9g
루비 ×2, Q ×24)
~~₩ 398,000~~ → ₩ 358,20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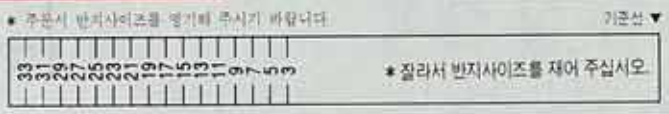
밝고 고요한 마음 속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거북과 함께 건강장수를 누리시고 행운도 차지하세요.



• 상품코드 KJ 6204
• 상품명 거북 목걸이
(14k/11.85g, 2Ø/0.9g
루비 ×2, Q ×24)
~~₩ 400,000~~ → ₩ 360,000 (10%) (체인포함가격)
• 체인무게 3.7g

• 주문시 반지사이즈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당사의 통신판매 광고에 보내 주신 현대불교신문 애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호에는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자 더욱 많은 상품을 수록하였습니다.
당사의 판매가격은 시중가격보다 평균 30%, 최대 64% 할인된 가격입니다.
본판매수익의 일정액은 현대불교신문에서 주관하는 불자가정 스티커 보급운동에 쓰입니다.

한국가진산업(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75-1(가진빌딩 2F)

산뜻하고 촉감좋은 대나무 시트

• 대나무 겉대만을 골라 얇은 것으로 탄력이 좋고 열전도율이 낮아서 항상 시원합니다.
• 구슬 방석에서 생기는 옷의 구김현상 방지
• 전차종 공용, 10pcs(1set)
• 기계작업이 아닌 수작업 제품(고운밥)
• "란" 문양이 새겨진 독특한 품위를 유지함(고운밥)



• 상품코드 KJ 6238
• 상품명 대나무 카바
~~₩ 50,000~~ → ₩ 40,000 (20%)
• 상품코드 KJ 6239
• 상품명 고운밥 대나무 카바
~~₩ 70,000~~ → ₩ 58,000 (17%)



시원하게 사우나할 때 필수품 —사우나 슬림—



이태리 여성들이 애용하는 사우나 슬림. 몸선체 또는 부위별로 날씬하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세요. 외부현상에 관계없이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제품특징
• 콜라입(셀룰라이트 효과)
• 젤타입으로 경제적
• 비만감소에 따른 부작용이 없음
• 원산지 이태리 전문화장품으로 수입완제품



• 상품코드 KJ 6205
• 상품명 사우나 슬림
~~₩ 39,000~~
→ ₩ 29,700 (10%)
(250ml)

25세 전후로 일어난 피부 트러블 — 고농축 에센스로 해결하십시오.

20층 피부 세포 속 까지 영양을 공급하는 —첨단 미용 마스크 팩—

• 효능 동부분 위어엘센스가 함유된 부드러운 겔팩마스크는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와 저절 피부에 새로운 활력과 윤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특히 주부의 심설된 피부에 영양보습작용이 뛰어나며, 지루성 복합등성과 대반추출물의 성분은 탄성 젊고 탄력있는 피부를 유지시켜 줍니다.
• 주요성분 태반추출물—노화억제, 주름방지, 탄력강화, 영양공급
알로에추출물—미백작용, 피부세정, 지루성억제, 피부완화
복자추출물—활성산소억제, 멜라닌색소침착억제, 수렴보습
• 사용방법 세정고에 피에 보관된 제품을 주시 꺼내어 사용하에 피부에 밀착시킨 후 20분간 방치하시다 두드리듯 방사시킨다



* 특히 햇빛이나 바람에 많이 약 날에 이용하세요

• 이태리 장클레베르사 수입완제품
• 상품코드 KJ 6207
• 상품명 마스크 팩
• 상품용량 20ml × 10EA
~~₩ 85,000~~ → ₩ 68,000 (20%)



• 구성 및 디자인
• 이태리 장클레베르사 수입완제품

여름을 시원하게 —삼베패드 / 이불 / 베개 카바 세트—

천연 고급 삼베로
꼼꼼하게 만들어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예쁜 자수 처리 꼼꼼한 끝마무리
까실까실한 삼베의 촉감을 느껴보세요.

100세트 한정

* 삼베 이불의 상단 부분은 두겹, 가슴 이래 부분은 홑겹입니다.



• 크기
이불 190×210cm(소), 210×210cm(중), 210×230cm(대)
베개커버 40×60cm
• 소재 천연삼베 100%

• 상품코드 KJ 6208
• 상품명 삼베패드/이불/베개카바세트
• 구성 이불1, 패드1, 베개 카바2
~~₩ 105,000~~
→ ₩ 75,000 (28%)

깨끗한 치아, 아름 다운 치아 덴탈화이트가 지켜 드립니다. —덴탈화이트—



치아의 겉표면만을 표백시키는 기존의 미백제와는 달리 치아 모공 사이의 각종 노폐물 제거로 누런 치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며 구취제거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최신 치아미백 시술법—'93년 미 치과의사 조지 바드레이 박사가 개발해 미국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제품입니다.

• 치과에서 스켈링한 뒤에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원산지 미국

• 상품코드 KJ 6209
• 상품명 덴탈 화이트
~~₩ 77,000~~ → ₩ 55,000 (28%)

주방의 만능 박사 —동양 핸드 믹서—

국내최초 KS마크 획득

신세대 주부의 필수품 도깨비 방망이!



• 스텐레스 칼날을 사용하여, 녹슬지 않고 견고함.
• 민서남, 거품남, 혼합남, 컷트남, 분해기로 구성
• 세련된 디자인
• 안전하고 실용적인 제품
• 영양분 손실 방지
• 220V 전용

• 상품코드 KJ 6210
• 상품명 동양 핸드믹서
~~₩ 120,000~~ → ₩ 43,000 (64%)



요리가 즐겁습니다 —동양더블팬—

국내최초 KS마크 획득



• 전골용, 구이용 2개의 팬:요리선택 폭이 증가
• 전골용 팬:각종 볶음 요리 및 전골 요리
• 구이용 팬:특수 기름받이가 있어, 확실한 기름 제거 및 고기의 감칠 맛을 살려줌
• KS마크 획득한 우수한 제품
• 100V/220V 겸용

• 상품코드 KJ 6211
• 상품명 동양 더블 팬
~~₩ 130,000~~ → ₩ 57,000 (62%)

수납량 많고 심플한 실속형 —스텐레스 식기 건조대—

심플하고 세련된 스텐레스 식기건조대, 공간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3단으로 세팅하였으며 각 단별 분리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각 칸마다 스텐레스 물받침대가 있습니다.
• 수저꽂이와 칼꽂이는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본수출품(일본통신판매 히트상품)
• 국내 최초의 100% 스텐레스 식기건조대
• 무게 3.2kg
• 재질 18-8 스텐레스(27종)
• 본체크기 (폭)38.5×29(길이)×58(높이)cm
• 일본 Daiyu사와 기술제휴

• 상품코드 KJ 6212
• 상품명 스텐레스 식기건조대
~~₩ 65,000~~ → ₩ 52,000 (20%)

주부 만족 —산본 냄비, 끓어도 넘치지 않습니다



모양으로 상상해 보세요.
"만능냄비"로서 한없이 용도가 넓습니다.



끓어도 넘치지 않는 이유(그림참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냄비의 삼중 바닥면은 평면으로 일체되어 있지만, 측면은 위로 올라감에 따라 점점면의 경사가 넓어 지도록 완만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에 의해서 냄비속에서 끓어 오른 수증기 등은 냄비의 측면을 따라 상승하고 냄비내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자연스럽게 순환합니다. 이 때문에 냄비 바깥으로 끓어 넘치지 않습니다

• 치수 小 — ø24cm / 3.7ℓ
中 — ø27cm / 5.1ℓ
大 — ø30cm / 7.3ℓ

살음: 끓어 넘치지 않으므로 가까보지 않아도 안심.
데침: 도란을 그냥 끓아도 거품이 일지 않습니다
볶음: 조로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튀김: 적은 양과 기름으로 바삭바삭하게 튀기십니다.
찜: 많은 양의 밥을 할 수 있습니다.
무침 - 버무림: 볼(BOWL)로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품코드 KJ 6213 ~~₩ 28,000~~ → ₩ 43,200 (小)(10%)
• 상품명 산본냄비 ~~₩ 53,000~~ → ₩ 47,700 (中)(10%)
~~₩ 58,000~~ → ₩ 52,200 (大)(10%)

패션의 고장 파리에서 온 알코팔의 품위!

유럽과 동남아에서 아니,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파리의 귀족풍 알코팔을 아십니까? 우리의 식탁을 고전적이고 세련된 유럽의 스타일로 바꿔놓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 얼어져도 잘 깨지지 않음
• 냄 온 냄새나 얼룩제거가 매우에 편리이 의함
• 전자렌지에도 사용 가능
•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적인 용기
• 재질 최우량 강화유리
• 환경의 고장은



• 구성
23.5cm 6PCS(디너접시 6개)
19.8cm 6PCS(국그릇 6개)
15.8cm 6PCS(공기 6개)
8.4cm 6PCS(커피잔 6개)
13.8cm 6PCS(컵받침 6개)

• 상품코드 KJ 6214
• 상품명 알코팔 세트(30pcs)
~~₩ 210,000~~
→ ₩ 99,500 (52%)

주문 접수기간
95년 7월 11일까지

• 소비자 상담: 02-529-7873
• 주문 접수 시간: 평일-오전 10시~오후 8시
토요일-오전 10시~오후 5시
• 배달 기간: 입금확인후 7일 이내

• 주문시 유의 사항
· 주문접수: 주문접수기간 외에는 제품 생산 및 배송 관계로 접수치 않습니다
· 추가 할인 혜택: 20만원 이상 구매시 → 7% 할인혜택 (보석류와 10만원 이상 구매시 → 5% 할인혜택 카드구매시는 제외)
· 교환 및 반품: 상품을 받으신 후 7일 이내 교환 및 반품 가능

판매 특별 가격 파괴전

지금 주문하십시오
무료전화 : 080-900-4900, 080-900-4901
대표전화 : 02-529-4900, FAX주문 : 02-529-4905

뱃살이 줄지않아 걱정이신분 책상앞에 직장인, 수험생들은 윗몸 일으키기를!



국선몸매를 위한 곡면 설계로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하체들어 올리기 상체펴기등의 운동효과를 극대화시켜 줍니다. 푹신한 쿠션 구조로 디스크를 예방해 주며, 높 · 낮이기 조절되어 누구나 간편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을때 접어서 보관
- 사이즈 75×30×100cm
- 슬림밸트 조임효과로 탄력기 미용효과에 도움
- 다리 [illegible] 다리 높낮이 조절

• 상품코드 : KJ 6215
• 상품명 : 카빙벤취
~~₩ 80,000~~
→ ₩ 55,000 (20%)
(접어서 보관)

걸기는 최고의 운동! 10분 씩만 걸읍시다

—신미니스 탭퍼—



현대인에게 가장 좋은 운동인 걷기를 어디서나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거실, 사무실에서 손쉽게 온가족이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직업운전자나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에게 좋습니다.

■ 운동효과
- 심폐기능 강화
- 하체 근육단련
- 비만해소
- 성인병 예방

• 계이지부착 적절회수/시간 표시

• 상품코드 : KJ 6216
• 상품명 : 미니스탭퍼(신형)
(계이지부착 56×31×51cm)
~~₩ 39,000~~ → ₩ 84,000 (15%)

주물러 주는 우리집 홈 닥터 —효 자손 맛사지기—

Q마크를 획득한 효자손의 특징

고품질 · 고성능 · 고신뢰성의 효자손은 카바 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효자손은 두개의 지압 봉이 부드럽고 강하게 움직이면서 저리고 쑤시고 아픈 어느 부위라도(목, 어깨, 허리, 팔, 다리, 허벅지)를 사람의 손처럼 시원시원하게 주물러 드립니다.



■ 특히 이런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 등이 뻐근하고 어깨가 무거우신 분
- 정상시 허리통증이 있으신 분
- 팔, 다리, 어깨가 결리시는 분
- 배가 나오신 분(팔, 다리, 배군살제거)
- 숙변을 제거하고 싶으신 분
- 운동 전후에 근육을 풀고자 하시는 분
- 수험생의 건망, 초조, 불안에 의한 피로를 방감해!

■ 특징
1. 효자손은 물리적인 요법으로 경혈과 경락을 자극하여 본 신체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시켜 줍니다.
2. 효자손은 어디서나 하루 10분간 주물러 지압해줌으로써 굳어진 근육을 풀어줍니다.
3. 정격전압 : 100V~220V
4. 소비전력 : 40W 무게 : 9KG
5. 규격 : 36(L)×22(W)×15(H)cm



꼭 카바를 덥고 사용하십시오

• 상품코드 : KJ 6217
• 상품명 : 효자손 안마기
~~₩ 230,000~~ → ₩ 85,000 (63%)

한반신! 군살, 지방 정말 싫으시죠?

—다이어트 바지—



하체의 불필요한 군살 제거 효과가 있는 체중감량용 바지입니다.
입는 순간 놀랄 정도로 많은 양의 땀을 발생시키고 지방, 군살제거와 탄력있는 각선미를 가꾸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에어로빅, 헬스 조깅시에 입으면 효과가 더욱 빠릅니다.

• Size
긴바지 : S, M, L, XL
반바지 : S, M, L
• 원단 : 일본수입품
• 재질 : 네오프렌

• 상품코드 : KJ 6218-1
• 상품명 : 다이어트 긴바지
~~₩ 125,000~~ → ₩ 87,500 (30%)

• 상품코드 : KJ 6218-2
• 상품명 : 다이어트 반바지
~~₩ 88,000~~ → ₩ 61,600 (30%)

다양한 기능의 자동 카메라 —현대카메라—



세련된 디자인, 간편한 휴대기능 및 편리한 조작으로 당신도 작은 영상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모델명 : FREE CAM — 30



• 자동노출, 자동플래시 기능
• 필름감기, 되감기 자동
• 도중 되감기 가능
• 촬영날짜 표시가능
• 원대전자 추) 제품

• 상품코드 : KJ 6219
• 상품명 : 현대전자동카메라
~~₩ 157,000~~ → ₩ 98,000 (38%)

여행의 즐거움은 짐꾸리기부터

—여행용 가방 3점 세트—

여행갈 때마다 고민이었던 짐꾸리기
이젠 여행용가방 세트로 해결하세요!
모던한 디자인과 파격적인 가격!



• 상품코드 : KJ 6220
• 크기 : 방수망 특수원단
大 56×30×28cm
中 47×25×24cm
小 42×23×21cm
• 상품명 : 여행용 가방 세트(3개 1세트)
~~₩ 58,000~~ → ₩ 39,000 (33%)

미국 Polo 사에 납품했던 그 품질 그대로입니다. —핸드 백 3점 세트—

세련된 칼라와 디자인, 몸꼴한 바느질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성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분위기에 맞게 선택하면
외출이 즐거워집니다.

• 미국 수출품



50세트 한정

• 소재 : 소가죽+캔파스지 (캐스팅레지)
• 상품코드 : KJ 6221
• 상품명 : 핸드백 세트
~~₩ 94,500~~
→ ₩ 60,000 (37%)

표정까지 편안합니다 —다용도 안락의자—

조립이나 완전한 안락 의자
가볍, 휴무일 집에서 완전한 휴식을 위한 안락 의자의 기능에서 분리의 필요한 간이 접이기 지는 적신형
침실과 부엌이 겸하게 적도 조립
크기 (등받침 폭 62×56×90cm
세팅폭 폭 62×36×35cm
재질 : 본체(도장
고무 우레탄 발포 스폰지
안락의자 + 보조대

• 상품코드 : KJ 6222
• 상품명 : 다용도 안락의자
~~₩ 79,000~~ → ₩ 55,000 (20%)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골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샷은 프라이브낫을 위한 동작이는 개인 골프장으로 저장, 정렬, 측정 등 제반 여정의 골간만 골프사만 간편하게 편하는 시간에 경제적으로 골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상품코드 : KJ 6223
• 상품명 : 오토 골프
~~₩ 198,000~~ → ₩ 158,400 (20%)

• 강한 스윙에도 견고한 특수프레임 및 고급합성으로 반영구적이며 아이들 이구 연습용으로도 적합
•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손간 설치이며 휴대 이동이 용이 • 크기 300(폭)×220×30cm 설치시

휙~ 던지면 펴지는 —3초 텐트—



휙~ 던지면 그냥 텐트가 됩니다.
펴는데 3초,
접는데 5초.
던지면 펼쳐지는 초간편 텐트로 시간도 수고도 절약하세요.

• 상품특징 및 상품설명 • 크기는 세 사이즈 제공 60cm/휴대 여행 겸비 가방) • 세련된 디자인과 칼라 • 가볍고 튼튼히 간편한 • 텐트 본 체 사이즈 180×120×120cm(4~5인이 충분한 휴식공간)

• 상품코드 : KJ 6224
• 상품명 : 3초 텐트
~~₩ 39,000~~ → ₩ 35,000 (10%)

• 소재 : 나일론 옥스포드(원단), 스틸 프레임(폴)

30초면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집니다.

가족 야외놀이, 낚시, 해변에서 꼭 필요한 그늘막텐트

가족 야외놀이, 낚시, 해변에서 꼭 필요한 그늘막텐트

• 소재 : 나일론 다우다(원단)
화이바 그라스(폴)
• 무게 : 2.3kg
• 9 ~ 10인용

• 상품코드 : KJ 6225
~~₩ 125,000~~ → ₩ 45,000 (64%)
• 재료는 제외



이런 분은 장(腸)을 청소 하십시요 !! —코러스—



• 배변시 가늘게 나오거나 변이 빌알처럼 딱딱한 분
• 쉽게 피로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숨을 마시면 살 사하시는 분
• 얼굴에 여드름과 기미기 자나치게 많이 나는 분

• 상품코드 : KJ 6226
• 상품명 : 코러스
~~₩ 60,000~~ → ₩ 50,000 (17%)
(2개월분 120포×3통)

■ 코러스로 장(腸)청소를 해야하는 이유?

노벨상을 받은 소련의 생물학자 메치니코프 박사의 「장의 부패균과 노화」라는 이론에 따르면 장벽에 끼는 숙변으로 많은 병이 발생하며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사실이 밝혀냈습니다. 보통사람은 1~2kg 심하면 10kg까지 장속의 숙변이 장벽되어 있으며 이유없이 피부가 거칠어 지는 것도 만성변비 만병이 안된는 것도 바로 이 숙변 때문입니다. 코러스를 먹은 후 2~3일이면 원활한 변통으로 숙변 등 장벽된 많은 장의 변을 보아 병속이 편안해집니다.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는 2개월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체공학과 스탠드의 만남!

—인버터 3파장 형광램프 스탠드!—

인버터란 인간의 시각각으로는 빛의 흔들림을 감지할 수 없도록 1초당 몇백서릉을 10만회로 증가시킨 스탠드입니다. 3파장 램프란 인간의 눈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380~780mm의 파장의 빛으로 보내주는 형광램프입니다. 그러므로 인버터 스탠드와 3파장 램프가 하나로 결합된 인버터 3파장 형광램프 스탠드는 장시간 사용해도 눈에 피로를 주지않고, 난시나 근시의 방생을 예방합니다. 일반 전구에 비해 80%의 절전효과가 있고, 밝기는 30% 향상되며 수명도 8000시간이나 지속됩니다.



• SUN-27W 삼파장 램프
• 전자음 패턴 터치 스위치
• 깜박거림, 소음제거
• 220V 전용
• 크기 : 75×300×350m/m

• 상품코드 : KJ 6227
• 상품명 : 카이저스탠드
~~₩ 125,000~~ → ₩ 75,000 (40%)

접으면 소파, 펼치면 멋진 침대 —소 파베드—

낮에는 깔끔한 소파로,
밤에는 편안한 침대로...
팔걸이까지 있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제품

접었다 폈다 공간효율은 최대!

100×60×80cm(접었을 때)





100×205×10cm(펼쳤을 때)

• 색상 : 핑크, 그린
• 상품코드 : KJ 6228
• 상품명 : 데이베드(침대+소파)
~~₩ 120,000~~
→ ₩ 96,000 (20%)

바디라인을 살려주는 고탄력 거들 팬티

- 배가 나온 여성, 출산후 체형관리 중인 분들에게 좋습니다.
- 허리부터 팬티까지 이음 새봉선이 없습니다.
- 인체공학적 디자인
- 면 90%, 스판 10%
- Free Size
- 세계 15개국 특허
- 5매 1세트
- 이태리 BONITO사와 기술제휴

• 상품코드 : KJ 6229
• 상품명 : 거들팬티
~~₩ 35,000~~ → ₩ 25,000 (30%)



몸매를 소중한 옷 보관에는 —홈 센스 옷 카바—



■ 제품특징
- 통기성이 좋은 부직포(PP) 사용(재입합성 원단)
- 접착식은 하단에 벨크로(찍찍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크기 60×95cm(양복용)
60×130cm(드레스용)
- 구성 양복용15+드레스용5(공통)

• 상품코드 : KJ 6230
• 상품명 : 넘클우늬 옷카바A(접착식)
~~₩ 37,000~~ → ₩ 26,000 (30%)

• 상품코드 : KJ 6231
• 상품명 : 넘클무늬 옷카바B(지퍼식)
~~₩ 48,000~~ → ₩ 33,600 (30%)

집안정리! —홈 센스 이불보, 고자상 카바—

■ 제품특징
- 통기성이 좋아, 흠, 곰팡이가 습지 않음
- 지퍼식으로 수납이 용이하고 이불 세탁까지 수납(이불보)





• 상품코드 : KJ 6232
• 상품명 : 이불보세트(5개 1세트)
~~₩ 41,000~~ → ₩ 31,000 (25%)

• 상품코드 : KJ 6233
• 상품명 : 직교자상카바(2개 1세트)
~~₩ 32,000~~ → ₩ 25,000 (22%)

• 상품코드 : KJ 6234
• 상품명 : 정교자상카바(2개 1세트)
~~₩ 26,000~~ → ₩ 21,000 (20%)

초밥이 간편한 —홈 센스 정리함—

이사할 때에도 꼭 필요합니다.

- 재질 : 백색팔프지+미날라지
- 사이즈
37×57×19cm(투명식)
40×60×20cm(서랍식)



• 상품코드 : KJ 6235
• 상품명 : 파스텔정리함(서랍식 10개 세트)
~~₩ 57,000~~ → ₩ 45,200 (20%)

• 상품코드 : KJ 6236
• 상품명 : 앙상블정리함(투명식 10개 세트)
~~₩ 49,000~~ → ₩ 34,300 (30%)

물기제거, 강력흡입, 간편사용

—종전식 진공 청소기—





우유, 커피 등 물기제거

먼지, 부스러기제거

■ 제품의 특징
- 자동차, 집안 어디에서나 사용가능
- 벽에 걸어두고 충전과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석진 틈새, 청소용 흡입구가 있어 다목 편리
- 충전교환이 없으므로 영구 사용
- 본체 270g(240cc) 별의 물품수 가능

• 상품코드 : KJ 6237
• 상품명 : 가정용 진공청소기
~~₩ 45,000~~ → ₩ 36,000 (20%)

입금 납부 방법 : 은행 등에 온라인 입금 또는 카드 결제가능

1. 온라인 이체 계좌로 먼저 입금하시면 확인 후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예금주 한국기린산업(주)

2. 카드 결제 당사에서 보내는 카드전표를 작성한 후 동봉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되돌려 보내주시면 됩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할부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카드 : 국민, 비씨, 유니스피드)

백화점 바겐세일=교통대란
결코 싸지도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편안한 가진 홈쇼핑과 함께 하십시오.

당 사는 높은 광고비를 소비자 이익으로 돌려 드리기 위하여 다 광고매체별로 최소단위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상품이 없더라도 본 광고지를 잘 보관하셨다가 필요한 때에 전화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행 사용품이나 판촉물 특별 상담합니다.
귀가 좋은 고가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관로가 없으신 분은 02-529-4900으로 연락 바랍니다.

고은 불교 대하소설

지옥의 남각



33

남각은 지난 날의 한 죄업이 분명하게 떠올랐다. 그가 예성강에서 왜인(倭人—日本人)의 섬 대마도로 가는 밀무역선(密貿易船)배를 탔을 때의 일이었다.

평소 부딪치기만 하면 까닭없이 으르렁대던 사이의 털보 사공이 있었다. 그 털보는 자주 배를 옮겨 타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는 물에서도 배에서도 누구와 싸우는 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성강 하류 이쪽 저쪽의 나루의 술집 주모들이 그가 나타나면 "아이고 아수라(阿修羅)가 왔네"라고 꼬리를 사리는 것이었다. 아수라는 무엇인가. 쉴 틈 없이 싸우고 다투는 일로 하루하루를 다하는 중생이 아니던가.

바로 이 털보 아수라와의 동행이 대마도에까지 이르렀다. 송도 일대의 비단과 홍삼을 허가없이 배에 실어서 신새벽에 떠나 난바다 복판으로 나아가 거기서부터 남쪽의 사타구니를 내질렀다.

두 사람이 함께 무너져서 주저 앉았다. 남각이 털보한테서 농여났고 그 일은 흐지부지 된 것이다. 때마침 선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배가 그 안개 속의 대마도 새벽에 떠났다. 제주도 앞바다의 무인도 관탈봉(冠脫峰)을 지나면서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때 털보 아수라가 남각을 몽둥이로 쳤다. 그러나 등 뒤의 찬 기운이 감도는 느낌 때문에 그 순간 돌아서다가 그 몽둥이질을 피할 수 있었다.

마침 파도는 얌전하였고 배에 탄 사람이나 밀수품들도 고즈넉하였다. 오직 남각과 털보만이 살기를 품게 된 것이다.

"나쁜 종자 같으니라구… 뒤에서 치는 놈이라니… 너에게 달린 X값도 못하는 놈이라니"하고 남각의 노여움이 컸다. 남각은 발길질로 이름이 나 있었다. 바로 그 발길질로 털보의 뱃구리를 질러댔다.

어떤 부자나 지배자가 영원불멸을 위한 제왕의 능을 쌓아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세의 장난일 뿐이다. 죽은 자는 터럭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으로 뱃머리를 틀었다.

웬만한 일로는 조선 서해안의 포구에 배를 댈 수 없는 사정이었으므로 며칠을 두고 먹을 것이나 물 따위도 착실히 준비해 둔 것이어서 세폭 돛의 배 홀수선이 물에 잠겼다.

그렇게 해서 5일만에 대마도에 이르러 그 안개 속의 북쪽 암초 사이를 스며들어 정박하였다. 한밤중 섬 쪽에서 전마선(典馬船)이 서너번 불빛 신호를 받고 가까이 왔다. 왜인 막부(幕府)와 서쪽 번(藩) 우두머리들이 지극히 좋아하는 피륙과 홍삼이 부지런히 옮겨졌다.

이 은밀한 하역이 끝나면 이번에는 왜땅의 도기나 삼목(杉木)으로 만든 목공예품 그리고 예성강의 풍류에 팔려가는 왜녀 약간명 따위를 실어야 하였다.

털보가 선장이 잠깐 눈을 붙이는 사이 바로 그런 왜녀 하나를 끌고 왜의 전마선에 타고 도망치려는 것을 남각이 막아야 하였다.

"안되어! 털보나리께서 왜놈이 되어 살작정인가. 하필이면 왜놈의 종이 되어 왜놈 발바닥이나 핥아주고 살 것인가 … 안되어! 그 계집이야 예성강에 가서도 그대의 돈으로 얼마든지 사들일 수 있지 않은가."

"이 작자가! 오늘밤이 네 제삿날이 되었구나" 하는 말과 함께 남각의 멱살이 잡혀 공중에 떴다. 그때 남각의 정갱이가 털보

"어이쿠!" 하고 털보가 뱃전에 몸을 절반쯤 걸치더니 그 한쪽 무게로 말미암아 물속에 빠져버렸다.

그런데 물 속에서 허우적대는 기척도 없었다. 그것은 남각의 발길질 한번으로 그의 명치끝이 꽉 막혀버려서 숨을 놓았기 때문이다.

"털보!" 하고 남각이 어둠 속의 물에 대고 불러보았다.

"……."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배는 이미 털보의 시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털보의 시체에는 재빨리 고기들이 모여들어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뜻밖의 과실치사사건을 저지른 남각은 끝내 그가 털보를 죽인 것을 자백하는 일이 없었으나 이제 와서 그가 지옥에 갈 수 있는 죄업이 되지 않는 바 아니었다.

그래서 남각은 며칠 전에 마련해둔 두 길짜리 소나무 하나와 함께 물속에 잠겨 헤엄쳐 갔다. 그 소나무는 사람 하나의 체중을 넉넉히 실을만 하였다.

정작 남각은 헤엄치기를 아끼고 있었다. 그저 발로 물을 밀어내는 정도였다.

이렇게 해서 남각이 무욕도에서 멀리 나아가는 밤이 다하고 그의 뒤에서 먼 동이 트고 있을 때 새로 거칠어지는 파도 속에서 소나무를 놓아버렸다.

그때부터 그는 헤엄치기 시작하였다. 이미 밤새도록 찬 물 속에 있었으므로 남각의 몸에는 체온이 담겨질 수 없었다. 몸이 식어버린 것 뿐 아니라 굳어져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가 헤엄치려 했을 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다.

이미 남각의 저승길은 시작된 것인가.

명도(冥途)는 어둡다. 남각이 이따금 죽을 힘을 다하여 헤엄을 치다가 파도더미에 타고 오를 때의 본능으로 눈을 떠도 그의 눈 안에는 하늘이나 바다가 아니라 다만 어둠만이 쌓여있었던 것이다.



그림 · 조향숙

하지만 그의 몸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였다. 아마도 그 파도 위를 가르는 헤엄으로 아침해가 떠올라 하늘과 바다 사이가 환한 세상으로 될 때까지 갔다. 그런 다음 그는 너무나 지쳐서 송장헤엄으로 누운 채 나아갔다.

이러기를 반복함으로써 그의 몸안의 힘을 거의 다 소모시키게 되었다. 문득 남각의 눈에 그가 손을 흔들기만 하면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어선 두척이 먼 바다의 어장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살려주오!" 하는 소리는 그러나 남각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고 남각의 손이 치켜들어지지도 않았다.

그는 그의 몸안에 들어오는 힘의 극한까지를 헤엄치는 힘으로만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옛날 동양과는 다른 고장에서도 이런 어둠의 산인 사출산(死出山)이 있어서 그곳에 먼저 간 영혼이 다음에 올 영혼에게 심부름하는 곽공조(郭公鳥)가 있었다. 뻐꾸기가 바로 그런 새였다.

하지만 남각의 귀에 뻐꾸기 소리가 들릴리 만무하였다.

현세의 양(陽)과 달리 생명이 갖추고 있는 마르마(말마—末摩)가 끊기면 바로 음의 세계인 중음(中陰)의 세계로 편입되는 것이다. 삶과 죽음 사이의 구슬픈 중간 정류장이기도 하다.

어떤 부자나 어떤 지배자도 그가 현세에서는 수많은 부장품(副葬品)으로 만들어진 영원불멸을 위한 제왕의 능을 쌓아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세의 장난일 뿐이다. 죽은 자는 터럭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저승은 고사하고 중음의 세계조차도 다만 향기만을 머금고 살기 때문에 일체의 물질세계는 허용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저승에의 여행은 향기를 먹는다(食香)'라고 말하고 있다.

어쨌거나 남각은 그야말로 죽을 힘조차 없도록 몸 속의 힘을 다 써버림으로써 그가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곳에 이르러서 두 팔과 두 다리를 쭈욱 뻗어버렸다. 남각의 의식으로는 의식의 마지막만 남아 있음으로써 현세에서 쓰던 의식은 다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에게는 공포도 절망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허물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되었다. 아니 그 따위 감각의 마지막까지 다 사라진 것이다. 누가 중얼거렸던가.

떠나면서 눈을 뜨니
시방세계 아름답도다
무 가운데 길 있으니
서방 극락이 여기
(臨行擧目 十方碧落
無中有路 西方極樂)

한낮의 하늘에서 이 따위 노래가 들린다 한들 남각의 뻗은 몸은 오직 파도 위에 떠 있다가 슬슬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어디에 그의 자취가 남아있겠는가.

"…"

한동안 파도소리 뿐이었다. 갈매기 따위도 여기까지 날아올 줄 모르는 곳이었다.

다시 남각의 몸이 떠올랐다. 그것은 몸의 어느 마디에도 목숨이 남아있지 않은 시체였다. 그 시체는 한 굳센 생명체가 그의 힘을 한 움큼도 남기지 않고 다 바쳐서 움직였다가 그 움직임을 끝마친 성과이기도 하였다.

이제 남각의 영식(靈識)으로는 지옥으로 가는 절차에 의하면 죽음 뒤의 첫 7일째에는 아직 지옥이라는 행선지가 밝혀지지 않았다.

첫 7일의 심판은 진광왕(眞廣王)이다. 그는 죽은 자가 생전에 살생을 했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일은 간단하다.

두번째의 14일에는 석가모니부처님이 초강왕(初江王)의 화신(化身)으로 죽은 자를 살핀다. 세번째는 문수보살, 네번째는 보현보살, 다섯번째 7일에는 지장보살, 여섯번째 7일인 42일에는 미륵보살 그래서 49일에는 약사여래가 나와 심판한다.

그런 다음 삼도천(三途川)을 건너가는 것이다. 저승을 가로지르는 큰 강이다.

세군데의 나루로서 산수탄(山水灘) 강심탄(江深灘) 유교탄(有橋灘)이 있다. 그런데 다리가 있는 여울은 지옥 쪽으로 가는

남각의 혼백은 지옥으로 가는 복잡한 절차를 싫어했다.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인 초강왕에게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지옥으로 가고자 합니다. 촌음을 다투는 일입니다"

자에게는 해당될 수 없다. 나머지 여울 중에도 물살이 거센 곳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다.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이었다.

강을 건너서 가까스로 숨을 내쉬는 혼백은 의령수(衣領樹) 밑의 노인과 노파를 만나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각각 현의옹(懸衣翁)과 현의구(懸衣嫗)이다.

죽은 자의 혼백은 그곳에서 지난 날의 옷을 벗어서 의령수 가지에 걸면 생전에 지은 업장에 따라 가지가 휘거나 덜 휘거나 한다.

남각의 신랄한 혼백은 이런 절차가 무척이나 싫었다. 그런 나머지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인 초강왕에게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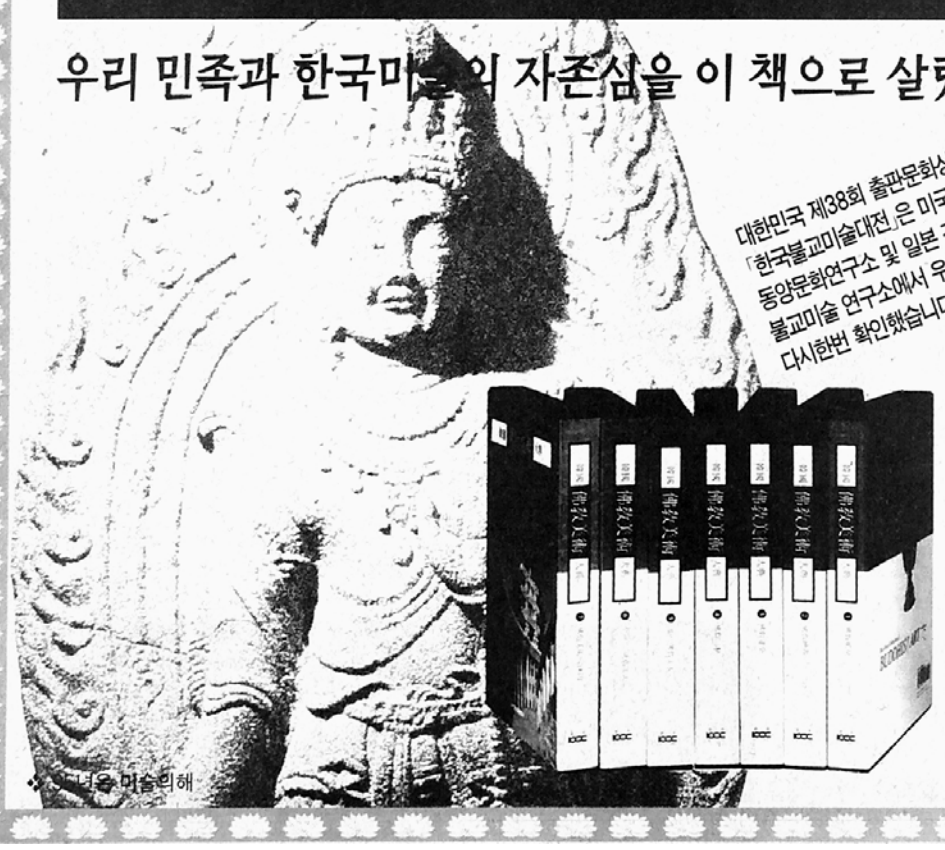
"저는 지옥으로 가고자 합니다. 촌음(寸陰)을 다투는 일입니다."

그때 초강왕의 보좌가 채찍으로 바닥을 쳤다.

"지옥이라고…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가게 되는 줄 아는가. 그것은 그대가 갈만한 일을 했을 때에만 갈 수 있는 곳이야… 지장보살의 지옥 원력은 그가 보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야."

韓國佛教美術大典

우리 민족과 한국미술의 자존심을 이 책으로 살렸다!!



대한민국 제38회 출판문화상에 빛나는 「한국불교미술대전」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및 일본 경도대학 부설 불교미술 연구소에서 우리문화의 역량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 한국 불교미술 집대성.
■ 팔만대장경 이래 한국불교문화사 최대의 불사.
■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 불교미술
■ 국문판에 이어 일어판, 영문판도 곧 이어 발간.
■ 한국출판사상 보기드문 대기획에 최고급 인쇄.

○ 8절판(26.5×36㎝)의 초대형크기
○ 각권 312~376페이지의 올컬러 인쇄
○ 본문 180g의 스노우화이트지 사용
○ 호화양장제본에 낱권케이스, 금박 포클로스
○ 정가 630,000원(전7권)

※ 우리의 미술의 해

韓國佛教美術大典 중요내용

① 佛教彫刻 —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불교조각사와 함께 컬러도판을 싣고 도판해설을 하였다.
② 佛教繪畵 — 한국불교회화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컬러도판과 함께 도판해설을 실어 이해를 도왔다.
③ 佛教建築 — 사찰의 건축과 함께 불탑, 부도, 불비 등 불교건축을 논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④ 佛教工藝 — 불교의 공양구, 의식구, 사리기, 기와 등의 불교공예품을 서술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⑤ 現代佛教美術 — 오늘날에 제작된 대표적 불교미술품을 게재하고 대표적인 불교미술가를 작품과 함께 소개하였다.
⑥ 世界의 佛教美術 — 우리나라와 함께 불교미술이 발달된 인도, 중국, 일본, 몽고, 동남아 제국의 불교미술의 컬러도판으로 소개하였다.
⑦ 佛教美術資料集 — 불교미술에 필수적인 불교미술용어사전과 함께 불교미술품의 실측도와 각종 문양을 실었다.

현대불교 구독자 사은행사로 선착순 100명에 한하여 전권 630,000원을 490,000원에 현금 및 할인 분할해 드립니다.
법보시용으로 최적입니다.

주문처
현대불교신문사 사업부
TEL:(02)737-0695
FAX:(02)737-0696

공급처
(주) 한국색채문화사
TEL:(02) 333-0051
FAX:(02) 338-7781

사찰생협, 신토불이 앞장

석왕사 우리는 선우등 지역농민 판로 제공

무공해 쌀등 유기농산물 직거래 "식탁 건강"



◇ 석왕사 생협은 우리밀, 무농약 쌀, 무공해 옹기, 환경세제 등을 물자들에게 공급하며 함께사는 참삶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부천석왕사 신도인 김보리심보살(40세)은 지난 3월 석왕사 생활협동조합(생협)의 조합원으로 정식 가입한 이후 가족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는 일 하나에까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무농약 쌀 등 유기농산물을 조합을 통해 직거래로 구입해 먹는 쉬우면서도 당연한 일이 바로 우리농촌을 살리기 동체대비의 가르침을 이어 공동체적 삶을 엮어가는 중요한 일이라는 자부심에 마음이 흐뭇합니다"라고 말하는 김보살. 수입농산물과 각종 화학약품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농산물들이 우리의 환경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요즘,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 한 몫을 담당하며 생협활동이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다.

고계에서 유일하게 조합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는 석왕사생협은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등지에서 생산되는 믿을 수 있는 우리농산물들을 직거래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재생화장지, 폐유로 만든 세제 등 환경상품까지 갖춰 우리 농산물 이용과 환경보호 운동을 함께 실행해 옮기는 실천도량이 되고 있다.

신선한 유기농산물을 생산자와 직거래 함으로써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기여하고 소비자는 생산자가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며 유통질서를 개선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적정가격으로 구매해 소비자권리를 지킨다는 취지로 결성된 소비자 조합이 바로 생활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

생협은 뜻맞는 사람들이 모아지기만 하면 지역단위, 직장단위로 공동체결성이 가능하기때문에 타종교의 경우 이미 전국조직으로 퍼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 출자방식의 석왕사생협과는 달리 교계 몇몇 사찰과 단체에서도 소규모 구판장 형태의 생협을 최근들어 하나둘씩 개설하고 있다.

지난해 생활협동조합의 문을 열고 신도들에게 쌀과 잡곡류, 생필품등을 판매하고 있는 강남포교원은 신도회에서 자원봉사조를 구성해 생협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선우 생협의 경우는 매월 1회 정기법회시간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김 깨 참기름 등을 판매한다. 이밖에 금강경독송회가 포항본부에서 직접 생산한 메주와 된장, 고추장, 막장, 죽염간장등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마산등 6개 지역법당으로 공급해 원하는 불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이들 생협들은 지역사찰과 지역농민의 연계, 전문운영진의 부족 등 풀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생협은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먹거리로 신도들을 결속시키고, 그 먹거리를 통해 사찰이 신앙공동체이자 곧 생활공동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우리 불자들의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현재 생협중앙회와 재정경제원 등에서 생협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소비자협동조합법이 올가을 제정되면 생협을 통한 공동구판매 사업, 공동시설 이용등이 보다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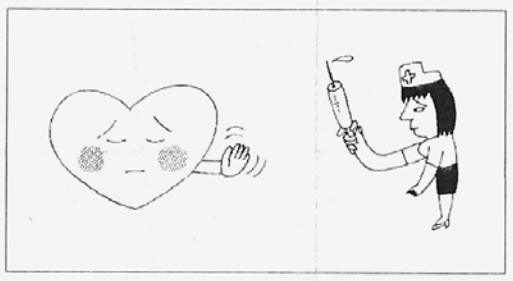
따라서 사찰을 중심으로한 생협의 활성화는 포교의 또다른 방편으로 지역사회 개발과 결속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확산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찰의 적극적인 관심과 종단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이근후 건강칼럼 <27>

사랑의 눈물

신경전달 물질 마음까지 바꾸기는 어려워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은 의학적으로 그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오래도록 연구를 해왔었다. 그러나 이런 의학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의학적인 영역이라기 보다 오히려 철학이나 종교적으로 더 많이 회자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근대의학이 발달하면서 뇌의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의 발달에 힘입어 생화학적인 발달에 이르기까지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최근에는 인간의 정서나 사고 행동등에 관여하는 독특한 신경전달물질이란 것을 밝혀냄으로써 마음의 일부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얼마전 전해진 '사랑신경전달물질'이라고 생각되는 물질을 분리해내어 실험적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재미있는 문을 열게되었다. 한 이집트의 저명한 신경과의사가 연애중인 사람들과 부부사이가 아주 좋을 때 훨씬 많은 양을 분비한다는 뜻이다. 이미 의학계에서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통증과 같은 특별한 자극을 수용하기 위한 특별한 신경전달물질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현재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사랑이 충만하여 기쁨에 넘쳐있는 사람과 화가 많거나 적개심으로 인해 흥분해 있는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학적인 증상이 물론 다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확연히 다른 현상을 관여케 하는 어떤 물질이 있을 것이란 추정은 했지만 지금처럼 '사랑신경전달물질'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진 못했었다.

앞으로 이 분리물질이 학계의 인정을 받아 더 진전된 연구가 계속된다면 많은 마음의 실체에 접근할 수가 있을 것이다.

벌써부터 장사속의 관심들이 많아 이 묘약을 생산하여 시판을 하게 되면하고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런 약을 먹는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이런 사랑신경전달물질이 풍부하게 분비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학계에서는 오히려 사랑이 결핍되어 일어난다고 믿고 있는 질병들에 이런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그 질병이 일으킬지도 모를 여러 증상을 치료해 보자는데도 착안을 하고 있다. 발상은 그럴듯하나 단순히 약리작용만으로 사랑이 발생할 것이란 추측은 착각이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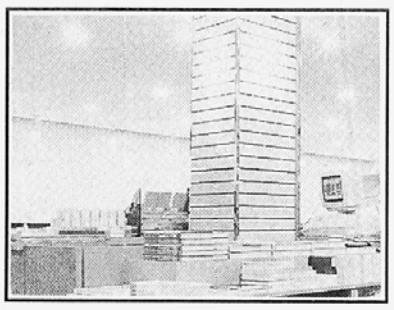
* 일천(丁)의 장 *
쓸모없는
말을 위어
늙이 농는
천 마디보다

이 항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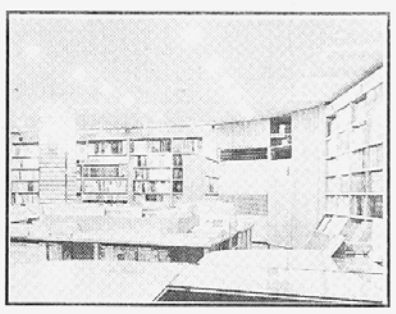


불음가득 · 법향가득

책 방 여 시 아 문 으로 오십시오



· 저자와의 만남(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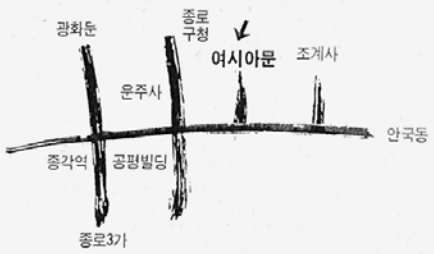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 4. 1.부터 시행)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 · 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

오시는 길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대표) 737-8881 (서점직통)737-0695 / 팩스 737-0696 /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9,84,159,331,588-2번

BBS 야외 나들이 더위 식히는 '바람'

'백팔가요' '밤의 창가에서' 자연농원·인천등서 공연



◇불교방송의 야외무대가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용인자연농원 백팔가요 공개방송 장면.

여름을 맞아 불교방송이 야외공개방송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지난 18일 용인 자연농원 야외무대에서 5천여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룰라, 듀스, 녹색지대, 서지원등 가요계 최고의 인기가수들이 총 출연하여 백팔가요 공개방송을 개최했다.

올 여름 불교방송의 야외무대 계획은 6월25일 인천시민과 함께(12시 인천실내체육관)를 필두로 7월2일 백팔가요 여름맞이 축하공연(자연농원), 7월23일 밤의 창가에서 여름방학 특집방송(자연농원), 8월2일 95뮤직페스티발 가요의 밤(자연농원), 8월12일 95뮤직 통기타의 밤(자연농원)등.

불교방송의 공개방송은 청취자와 방청객이 함께하는 마당이 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신행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어 불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 신행에 활기" 불자들 호응

불교방송은 공개방송을 전국 각지역에서 줄이어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어 방송의 신선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불교방송의 공개방송은 사찰이나 단체등을 찾아가는 세미(작은)공개방송도 높은 효과를 얻고있다고.

특히 지난5일 부산에서 열린 '중앙승가대 발전기원대법회'에서는 불교방송 연예팀이 후원하여 행사를 준비, 법회를 보다 알차게 이끌었다. 11일 수원 영각사 납골당 기공식 행사에서도 공개방송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불교방송의 유병직 차장은 "불교방송을 알릴 수 있는 이벤트를 더욱 넓혀나갈 것"이라며 "가을 쯤에는 전국 투어와 미국공연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전문인 양성·효율 관리 필요"

방송인 이영숙씨 석사논문서 밝혀



◇이영숙씨

불교방송 청취자 대다수가 불교라송(BBS)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월1일부터 불교방송 가청권인 서울과 경기지역 그리고 부산과 광주등 전국에서 20일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국 특수방송에 대한 청취자들의 의식과 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불교방송을 중심으로'라는 석사논문(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내놓은 이영숙씨(방송인)에 의해 밝혀졌다.

"불교가 문화·정치·사회적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종단의 지도자들과 불교인들은 어떤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조사했다"는 이씨는 조사결과 불만족스럽다 15.2%, 그저그렇다 56.6%등 71.8%가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도출해 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불교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것은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의견 또한 많았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

이 같은 결과외에도 이씨는 불교방송이 불교인들을 주 청취층으로해서 제작, 편성하고 있는데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은 "일반인들이 주 청취대상이 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달라진 방송환경속에서 불교방송의 위상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스님들의 방송진행과 프로그램 제작편성 참여는 전문교육 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또한 이씨는 이 논문을 통해 불자들은 불교방송이 종단의 권익보호와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 포교 및 오락 프로그램보다는 보도시간의 확대와 교계뉴스의 확충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도 환기시켰다.

이씨는 결론적으로 "질 높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이 급선무며,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방송 전문인력의 취약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재의 제작관행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 방송직분간의 통합을 이뤄 부족한 제작인력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심깊은 방송인력의 확충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설립과 지속적인 재정적 투자를 종단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도 이씨의 논문이 내놓은 놓칠 수 없는 과제다.

청취자 설문결과 '체질개선' 요구 높아

도필선 기자

불교텔레비전 일부 프로 조정

btn 특강·32스페셜·불자수첩 신설 명상산책등 폐지

내달 1일부터 시행

불교텔레비전은 'btn특강' '32스페셜' '불자수첩'을 신설하고 '여기에 숨은 뜻' '명상산책'을 폐지하는 등의 일부 프로그램 개편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또 '기획다큐멘터리'를 주 4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여러분의 btn'도 일요일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이번 신설된 'btn특강'(일 12:30~13:20)은 현대사회속에서 불교가 수행해야할 역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시청자와 가까이 갈수 있도록 하기위해 매주 불교관계자 및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특별강연을 듣는 프로이다.

'32스페셜'(일 13:20~13:30)은 교계의 각종 공연이나 학술, 행사 등을 녹화하여 중계한다.

'불자수첩'(월~금 13:20~13:30)도 교계행사나 공연을 시청자에게 안내하는 프로이다.

한편 '문화라인'은 지난 17일부터 한국외국어대학 민용태교수가 새롭게 진행을 맡았다. 또 '우리들의 찬불가'는 연극인 김성녀씨가 진행한다.

FM 광고단가 조정 내년 1월 연기

청취율 조사해 차등 배정

불교방송 홍자운영의 관건이 됐던 한국광고공사의 FM 광고단가 조정이 내년 1월로 연기됐다.

한국광고공사는 지난 18일 AM방송의 20%에 불과한 FM 방송사들의 광고단가 상향조정의견을 받아들여 인상안을 준비해왔으나 일부 방송사들의 영업권 환원 주장과 맞물려 인상을 자제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고공사는 조사기관에 의뢰, 청취율 조사를 통해 각 매체별로 차등을 주기로 했다.

한편 광고공사의 1년 예산이 2조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불교방송은 월7억2천의 광고물량을 받고 있어 일반방송사 보다 20배까지 적은 광고물량을 배당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초의 전쟁상처 생생히 소개

불교방송 6·25특집 다큐 '아물 수 없는…' 방송

불교방송은 한국전쟁 45주년을 맞아 6·25특집 다큐멘터리 '아물수 없는 상처들'이라는 프로를 25일 11시5분에서 12시까지 55분간 방송한다.

증언록이 아닌 6·25의 기억을 민초들의 생생한 육성으로 시대의 아픔을 얘기하고 있는 '아물수 없는 상처들'은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며 전쟁이 갖는 몰 개인성을 비판한다.

담당 PD 조은정씨는 "아주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전쟁담을 통해서 민족의 아픔을 얘기하겠다"고.

30일 1차회의 열어

충북BBS 개국 준비위

충북불교방송개국준비위원회(위원장 월성스님)는 준비위 1차회의를 오는 30일 오후 5시 개최, 개국추진계획을 확정지을 전망이다.

이날회의에서는 지난 21일부터 부산과 광주불교방송을 실사한 채훈관 집행위원장의 각지역국의 현황분석 보고와 재단법인 설립건, 재산출현방안에 관한 건 등이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TV 주식 구입 결의

부산·경남 후원회 운영위

불교TV 부산 경남 후원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6일 오후 7시 중구 코모도호텔 2층 '희락정'에서 열렸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불교TV의 현황과 발전전망, 불교TV 주식의 의의설명과 함께 운영위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주식구입 결의가 있었다.

불교영화 '카루나' 몽골로케

불교통일영화 '카루나'가 국내 처음으로 몽골 로케를 하고있어 화제가 되고있다.

이번 몽골 로케는 주인공인 분님이 비구니가 되어 '오백나한'을 설명할 때 나오는 화면장면으로 실제로 5백여명의 몽골 현역군인이 나한으로 출연.

스타불자 만·나·봅·시·다

친구같은 사이 김청씨 모녀



'친구같은 모녀'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김청씨 모녀.

'꿋꿋하게 잘 지내는 것이 곧 부처님 덕'이라는 김청씨는 어머니 김영희씨와 함께 바쁜 일정에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염주를 차고 다니며 일념으로 정진한다고 .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절에는 자주가지 못해요. 하지만 늘 부처님 말씀처럼 살려고 하지요."

원래 할머니 때부터 불교집안이였다며 김청씨 이름도 스님이 지어준 것이라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절에 가면 절을 잘했다는 김청씨는 소문난 효녀로도 칭송이 자자하다.

프로진행에서 연기에 이르기 까지 만능탤런트로 인정받고 있는 그녀는 "사실 엄마의 꿈이였던 영화배우의 끼를 본받은 것"이라고 한다.

김청씨 모녀는 전통도예와 민족통일을 기원하는 이일목감독의 불교통일영화 '카루나'와 한 유선방송의 리포터로도 모녀가 출연하여 연예가의 화제가 되고 있다.

불교영화 '카루나' CATV 함께 출연 화제

어머니가 선물…걸지 않으면 흉 안나

군자 목걸이 주인공 가수 김민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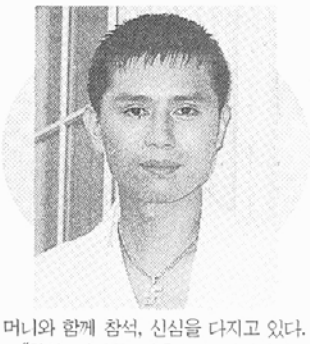
군자 목걸이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나의 곁엔 언제나'의 가수 김민종씨.

지난 18일 SBS 'TV인기가요'가 생방송중인 용인자연농원 특설무대에서 어김없이 군자 목걸이를 하고나와 청소년불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다른 연예인들은 십자가를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목걸이가 없으면 흉이 나지 않습니다."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 김복인 보살이 선물해준 군자 목걸이를 하루도 빼지않고 3년을 걸고 다녔다는 김민종씨는 얼마전 한 TV 프로에서 번지점프 시범을 보이며 "부처님!"을 외쳐 불자임을 당당히 밝히기도.

외할머니가 스님이였다는 김민종씨는 능인선원(주지 지광스님) 법회에도 어머니와 함께 참석, 신심을 다지고 있다.



"항상 자비를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연이 됐건 필연이 됐건 인연에 대한 부분도 자비심으로 대하니 마음이 편안하다고 한다.

김민종씨는 평생 군자 목걸이를 걸고 다니겠다며 "부처님 자비 아래 온세상이 행복으로 가득찼으면 한다"고 발원.

〈원〉

방송 하이라이트

btn ch32

기림사의 우담바라 설화

한국의 명찰(26일 11:10~12:00) 경북 함월산 기슭의 기림사. 기림사는 부처님 생존 때에 인도에 세워졌던 인도의 기원정사를 뜻한다. 이 사찰에는 천년에 한번 핀다는 우담바라라는 약초가 있었다고 하는데….

변신의 배우 김보연 인생담

김병조의 스타쇼(28일 11:10~12:00) 늘 변신하는 배우 김보연. 그녀가 출연했던 영화와 함께 연기관, 항상 힘이됐던 어머니의 불심을 얘기한다.

코카서스산맥 기슭의 비단

실크로드(29일 12:30~13:20) 중국과 로마사이에 뻗어있는 실크로드는 페르시아를 통과한다. 코카서스산맥 기슭에 있는 모스케바야발카에서 비단을 확인해 본다.

태종 역경사업 추진 유언

삼장법사 현장(1일 12:30~13:20) 현장스님을 아끼는 태종은 삼장법사와 의형제를 맺은후 환속하여 국사를 같이할 것을 권유한다. 태종은 역경사업을 계속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결국 승하한다.

BBS FM 101.9MHz(서울) FM 89.9MHz(부산) FM 89.7MHz(광주)

미륵신앙의 잘못된 관념

비로보는 불교역사(26,27일14:10~15:00) 익산 미륵사지를 찾아 미륵신앙의 잘못된 관념들을 되짚어 본다.

네팔불교의 현황과 문화재

세계의 불교는 지금(28일 10:05~10:55) '네팔 이야기'편에서는 노승대(삼신사 수련원)씨가 출연하여 네팔불교의 현황과 문화재를 소개한다.

소비자 불편사항 상담

BBS 생활상담실(29일 11:20~12:00) 아프터서비스와 불량제품 문제등 소비자의 각종 불편사항을 소비자연맹 도영숙실장의 상담으로 해결해 보는 시간.

주말 여행정보 전달

생방송! BBS 정보시대 1,2부(30일 18:00~18:40, 19:20~20:00)여행전문가 문정건씨가출연하여 주말여행정보를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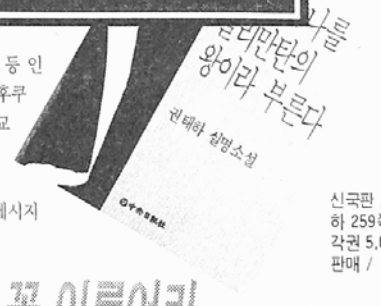


일상의 평범을 거부하고 세계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꿈을 이룩한
大韓國人 최계월의 불꽃같은 인생드라마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권태하 실명소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옛 보르네오)에 경상북도만한 정글을 개척, 원목·조림사업을 하는 한국인을 아는가. 인근 자바해 마두라 지역에 횃불을 밝히고 「産油 한국」의 국가적 과업에 마지막 승부를 거는 사업가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동경 시절 낮에는 야쿠자의 두목들을 휘어잡고 밤이면 일본 정계 거물들과 천하대세를 논했던 통 큰 사나이. 서슬퍼런 일본 군국주의 시내에 건습사관(소위) 임관식을 앞두고 「나는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기개와 배짱의 사나이. 일찍이 수카르노·수하르토 등 인도네시아의 전·현직 대통령, 기시·사토·미키·후쿠다·스즈키·다나카 등 일본 역대 수상들과 맺은 교분을 바탕으로 이미 수십 년전 사업의 영역을 국제무대로 넓힌 세계인 최계월. 이제 그가 바쁜 일상속에서 자꾸만 왜소해지는 우리들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전한다.



신국판 / 상 254쪽, 하 259쪽
각권 5,000 원
판매 / 751-9468

한국인이여, 그대 가슴에 꿈을 품어라.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어라.

中央日報社

천태종 중국 국청사 조사기념당 낙성식 취재기

시공넘어 천태법맥 이었으니…

중국 절강성 천태산에서 한국 천태종의 법맥이 명실상부하게 복원되던 6월17일, '韓中 천태종 조사기념당' 낙성법요식(본지 32호 참조)이 거행되는 동안 장엄한 隋代의 고찰 國淸寺는 비에 젖었다. 그러나 법요식에 참석한 한국불자 2백 50여명과 중국불교계 인사, 일본하객, 천태현 신도등 1천5백여 사부대중은 국적을 초월하여 오직 부처님 제자로 합장했다. 그리고 천태사상이 오늘 이시대에 새롭게 피어나길 발원했다.

광소 묵언수행하듯 과묵한 천태종 종정 道勇스님은 부처님께 이렇게 봉고문을 올렸다.

"천태종 근본성지 국청사 도량에 조사당을 세우고 개산조 천태 지자(智者)대사, 고려 대각국사, 한국 천태종 중창조 상월조사의 존상(尊像)을 봉안하게 된 것은 불보살이 찬탄할 뜻깊은 불사이므로 한중 불교교류의 일대전기로 삼아 천태 일승묘법의 위신력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조박초 중국불교협회장은 수석부회장 명량 법사가 대독한 치사를 통해 "한중 천태법손들의 우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기쁨을 표했다.

국청사 가명(可明)방장은 환영사에서 '상월대사의 위업이 천태 6조의 공덕과 같다고 인식돼 불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불사를 합의하고 추진하느라 중국을 8번이나 오가며



◇ 천태종은 지난 17일 중국 국청사에서 「중한 천태종 조사기념당」 낙성식과 아울러 지자대사(중앙) 대각국사(오른쪽) 상월조사(왼쪽) 청동좌상을 봉안, 법맥을 복원하고 법통의 뿌리를 내렸다.

1천5백 사부대중 국적초월 합장

지자·대각·상월존상 봉안 "종통 바로 세운 대불사"

작업을 마무리한 전운덕 총무원장스님은 감격에 찬 어조로 기념사를 했다.

"이제 한국 천태종의 법맥이 확고해 졌습니다. 오늘 이자리를 정법인연으로 받아들여 그 역사적 몫을 다하도록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이기영, 이재창, 권기종, 이영자교수 등 동국대학교 원로 중진 불교학자들의 참석은 이날의 낙성 법요식을 더욱 빛냈다. 불교방송 강한필사장도 함께 했다.

이기영 박사는 축사에서 천태종이 서기 594년 창종된 이래 신라의 스님들과 일본스님들이 국청사에서 천태학을 배워간 역사를 되새기면서 "오늘을 계기로 천태종이 다시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상해주재 박종선 한국영사, 일본 천태종 연력사 쓰쿠미법사, 신재부 중국불교협 부비서장, 절강성 불교협 수석 부회장은 이번 불사를 기리는 축사를 했다.

현판식이 시작될 무렵 비는 멈추었다. 붉은 편액에 선명한 황금색글씨 '韓中 天台宗 祖師 記念堂'은 조박초 회장이 썼다. 이어 천태 지자를 중심한 대각국사, 상월조사의 청동좌상이 점안됐다. 도용 종정스님은 지극하게 절을 올렸다. 조선조이후 끊어진 법맥을 중창30년만에 복원하여 뿌리를 착근시킨 천태종도들은 한 목소리로 반야심경을 봉독했다. 그리고 세분 조사의 비문을 낭송, 법이 이어지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 비문은 검은색 화강암에 새겨져 올가을 조사상 뒤에 세워진다. 벽면의 법통도표도 함께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청사는 지자대사 입적 1년후인 서기 598년에 창건됐다. 문화혁명후 국무원령 제 1호로 복원중수됐다. 일본에서 세운 조사비와 비각이 있는 경내 가장 윗 건물인 관음전 왼쪽 위 5백평 부지에 한국이 3분의 2, 중국이 3분의 1의 공사비를 부담하여 70여평의 목조건물로 세워진 조사당은 많은 의미를 지닌다.

즉 뿌리를 찾은 한국 천태종의 위상을 높였을 뿐 아니라 한중불교교류의 새 장을 연 불사로 평가되고 있다.



◇ 절강성 국청사 조사기념당 낙성법요식에 동참한 한국 중국 일본 등 1천5백여 천태종도들은 이를 계기로 한층 우의를 다져나갈 것을 발원했다.

조사기념당 낙성식 이모저모

대형 프랑카드 내걸어

○… '중한 천태종 조사 기념당' 낙성에 대한 중국측의 관심은 대단했다.

절강성 항주의 샹그릴라 호텔에서는 '열렬 환영 한국 천태종 종정 김도용 예하 솔하'라는 붉은색 대형 환영 프랭카드를 내걸었다.

또 지방정부에서는 한국대표단 차량을 에스코트하는 등 정중히 손님을 맞았다. 한국 천태종에서는 도용 종정스님의 첫 해외나들이이므로 행사진행 대중인솔에 신중했다.

구경나온 주민들 많아

○… 전형적인 시골마을 절강성 천태현에 외국인이 3백여명이나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경나오는 주민들도 많았고, 만약을 대비해 경찰에 비상이 내릴 정도였다.

천태현 마을 "외국인 3백명 온 건 처음 있는 일"

비가 오는데도 낙성식을 보려는 인근 주민들이 많아 국청사는 행사 시작전에 출입문을 닫았다.

점심공양 야채 14종

○… 국청사에서 5백여 대중이 공양을 한 것도 처음있는 일이어서 화제. 특히 오찬에 나온 야채음식은 무려 14가지.

○… 낙성식을 마친 후 한 중양국 대표단 간부들을 기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여 국사방운영 및 교류관계, 한 중 일 3국 천태종의 형제애를 나누는 건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천태산 참배행렬 '장사진'

○… 낙성식이 끝나면서 하늘은 맑게 개이고 천태산은 더욱 푸르렀다. 한국측 대표단은 마이크로 버스로 '지자대사 육신탑' 참배에 나섰는데 천태산 오르는 차량행렬이 길게 꼬리를 이었다.

각계 화환·축전 답지

○… 조사당 낙성식에는 국내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관심과 축하를 보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주돈식 문체부장관, 서석재 총무처장관, 신경식 의원, 황병태 주중대사 등이 화환과 축전을 보냈다.

천태종은 조사당 낙성기념 특집으로 〈천태산과 한국의 천태종〉을 펴냈다.

교류논의 간담회 열려

○… 낙성식에 참석한 천태종 대표단은 항주 영은사, 상해 옥불사 등을 참배하고 백두산에서 통일법회를 가진 후 도문, 연길, 용정, 북경을 거쳐 25일 귀국했다.

중국 절강성 = 최정희 국장

모든 이들의 안락을 위하여 4Y

지구촌 전법이야기

숭산 스님 ④

68년부터 홍콩에 절을 짓기 시작했다.

절을 짓는 것이 아니라 법(法)의 자리를 짓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행원스님은 일본에서의 포교활동으로 해외 포교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전법의 길이 있다."

행원스님은 세상 어디든지 인간의 삶이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란 확신을 갖고 홍콩에 새로운 전법의 터를 닦게 된 것이다. 이미 홍콩에 머물고 있던 세진스님과 성회스님 등이 많은 도움을 줬다.

홍콩 홍법원 설립은 2년이란 시간이 걸려야 했다. 행원스님이 홍콩 현지에 줄곳 머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스님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여러 행사를 주관하고 또 대규모 법회에 참석해야 했다. 현지의 스님들과 제자들의 도움으로 2년만에 문을 열게 된 홍콩 홍법원은 청하스님(현, 통도사부방장)에게 일임했다.

의 외모때문은 아니었다. 비행기에 올라 앉는 순간부터 그는 어떤 말을 하고 싶다는 듯이 힘끗힐끗 스님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시간쯤 지났다. 그는 무슨 결심을 했다는 듯 스님에게 인사를 청해 왔다.

"스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삭발염의가 말이나 되겠소."

"아, 네. 그렇군요."

행원스님은 저으기 놀라운 마음을 감추기가 어려웠다. 그는 한국인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내는 매우 엉성한 한국말이었고 그것도 경상도 억양이 강했다.

"경상도 말투이신데 한국인이십니까."



◇ 홍콩 홍법원 설립의 주역들. 좌로부터 성회, 금산, 세진, 숭산스님. 이 사진은 일본 홍법원에서 찍은 것이다.

"사람사는 곳 어디나 전법 현장"

2년만에 홍콩 홍법원 세우고 다시 미국행 비행기

청하스님은 찾아 드는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며 신도를 확보해 나갔다.

홍콩에 홍법원을 세우는 일로 분주한 가운데 행원스님은 다시 미국으로 갈 것을 결심했다. 동경에서 만난 사업가 유영수씨가 "스님, 미국에 가십시다. 미국에서도 포교해야 하십니다"라며 사뭇 매달렸던 것이다.

"미국에 갈 생각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일본과 홍콩이 정리되지 않아서 힘들겠어요…"

행원스님이 이렇게 미국행을 피일차일 미룬 것은 유영수씨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던지 72년 봄에 그에게서 편지가 왔다. 초청장과 비행기표가 동봉돼 있었다.

"그래 가자. 구경삼아 가서 석달쯤 있다가 돌아 오지 뭐."

행원스님은 동경에서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를 타며 석달을 생각했었다. 그리고 '어차피 미국으로 가게 된 바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곳의 문화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자'고 다짐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비행기는 태평양상공을 날아가고 있었다. 행원스님은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자꾸 신경이 쓰였다. 그는 긴머리를 한 남자였는데 일본사람 같기도 하고 한국인인 것도 같았다. 그러나 차림새는 미국인에 가까웠다. 스님이 그에게 신경이 쓰인 것이 그

"예…"

"어디에 사시는지."

"미국에 삽니다."

스님은 스스로가 그에게서 어떤 정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를 다녀 오십니까."

"예, 스님. 저는 미국 보스톤 아래쪽의 로드아이랜드 주립대학 교수입니다."

"아, 교수님이시군요."

"동양역사 교수인데 공부를 하다보니 불교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오고 미국에서는 알아보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일본에 와서 석달을 머물며 공부를 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 사내가 힐끔힐끔 스님을 쳐다보며 무엇인가 말을 건네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조금전의 스님의 느낌은 이쯤에서 틀린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지고 있었다.

"그래요.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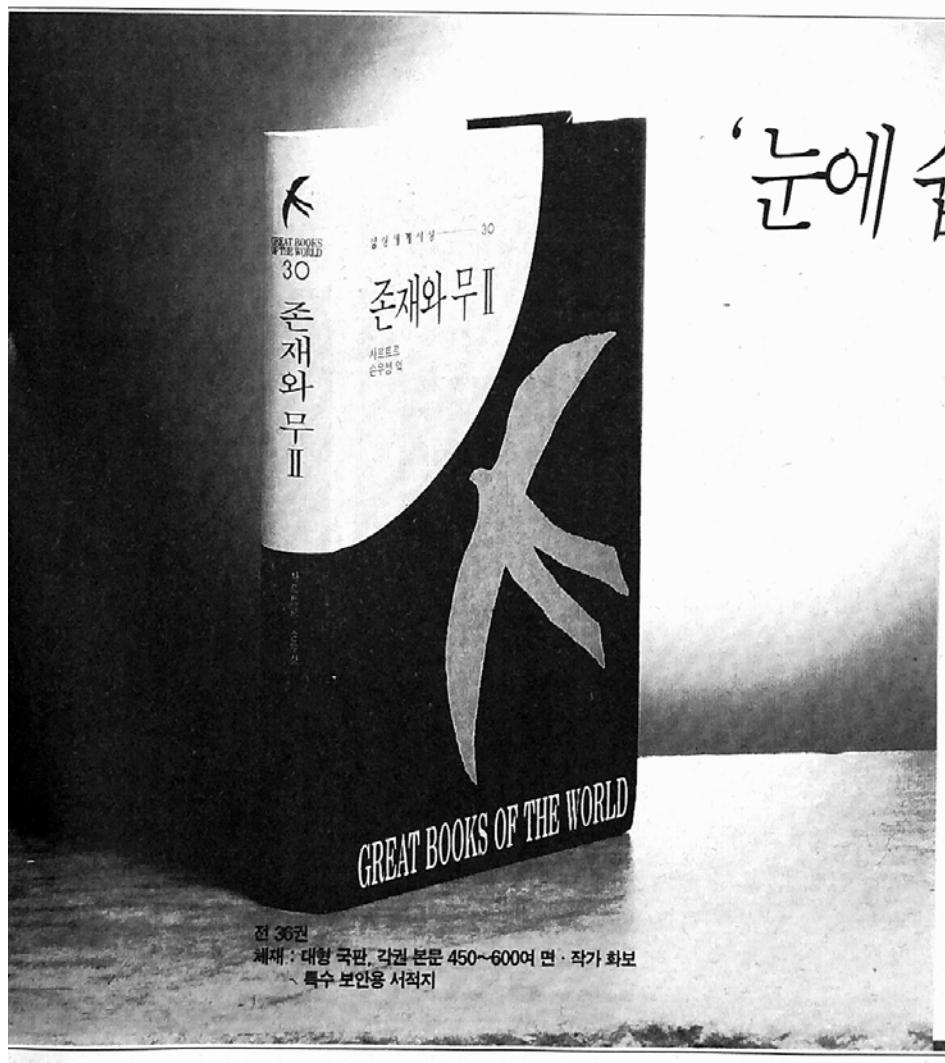
"일본 대학들을 다니며 동양불교를 배웠습니다."

행원스님은 이 사내가 배운 불교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어허, 교수님은 불교를 배운 것이 아니고 불교를 오해하고 가시는 군요."

교수의 눈이 갑자기 커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임연태 기자



삼성출판사
(02)783-8331~40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운명의 책'

한 권의 책이 한 사람과 한 사회와 그리고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꿔 놓는다는 말을 흔히 한다.
그러나 책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청량제처럼 목만 축이는 그런 책에서 이를 상하게 하는
달콤한 사탕 같은 책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책이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간다.
입에 쓴 약처럼 운명의 책들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법
이다. 삼성에서 기획된 이 세계사상
전집은 문자 그대로 닭의 무리에
섞어 있는 한 마리 학을 가려 얶은
책이다.

李御寧 (전 문화부장관)



삼성세계사상
GREAT BOOKS OF THE WORLD

1 한국의 유학사상 2 논어/중용 사서집주 I 3 맹자/대학 사서집주 II 4 노자/장자
5 시가열전 6 국가/소크라테스의 변명 7 정치학/시학 8 이솝우화 9 군주론/리바이어던
10 팡 세 11 한국의 불교사상 12 방법서설/성찰 외 13 통치론/자유론 14 순수이성비판
15 역사철학강의 16 종의 기원 17 전쟁론 18 정신분석입문 19 현대의 신화/아이덴티티
20 시간과 자유의지/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1 한국의 민속 종교사상 22 자살론/사회분업론 23 사회경제사
24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25 역사의 연구 I 26 역사의 연구 II 27 과학과 근대세계/우연과 필연
28 간디 자서전/시민의 불복종 29 존재와 무 I 30 존재와 무 II 31 한국의 살학사상 32 꿈의 정신분석/초의 꿈꽃 외
33 1차원적 인간/부정 34 슬픈 열대 35 황금가지 I 36 황금가지 II

전 36권
체재 : 대형 국판, 각권 본문 450~600여 면 · 작가 화보
특수 보안용 서적지

문고판 불서 "불심 키운다"

'현대불교신서' '불일소책' '읽기쉬운 경전…' 등 다양
출퇴근시 쉽게 접할 수 있어 불교 대중 확산 기여

문고판불서가 소책자운동으로 불립만큼 불서출판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소책자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현대불교신서(동국대 역경원) 불일소책(불일출판사) '읽기쉬운 경전시리즈'(불교시대사) 고요한소리의 '법륜' 시리즈를 꼽을 수 있다. 여기에 도서출판 만다라가 합류해 진각소책자운동 시리즈를 펴내고 있다.

소책자는 주로 시리즈로 펴내며 상업적 고려보다는 출판문화 또는 불교사상의 대중적 확산이라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불교신서는 지난 78년 첫권으로 〈고려고승한시선〉을 펴낸 이후 지금까지 83권을 펴내 가장 많은 종수를 기록했다. "현대인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한 새로운 형태의 서적이 많이 보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불교신서의 발행목적.

신서 가운데 〈불교사입문〉〈인도사상사〉는 연세대 원광대 등에서 교양과정의 교재로 채택하는 등 학술·출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불일소책은 초심자와 일반인이 부담감없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주제의 책을 엄선해 출판하고 있다. 〈선〉〈현대인을 위한 불교〉〈깨달음의 거울〉등 16권을 펴냈으며, 특히 〈진리의 말씀 - 법구경〉은 13쇄를 찍어낼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불교시대사의 '읽기쉬운 경전시리즈'는 소책자출판에서 드물게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예에 속한다. 법구경 사십이장경 옥야경 유마경등 32개 경전을 10권에 모은 이 시리즈는 전체가 91년 초판을 펴낸 이후 7, 8쇄를 찍어내 경전의 대중적 보급에 크게 기여한 기획물로 기록된다. 한글세대의 언어생활에 맞는 깔끔한 번역이 경전 읽기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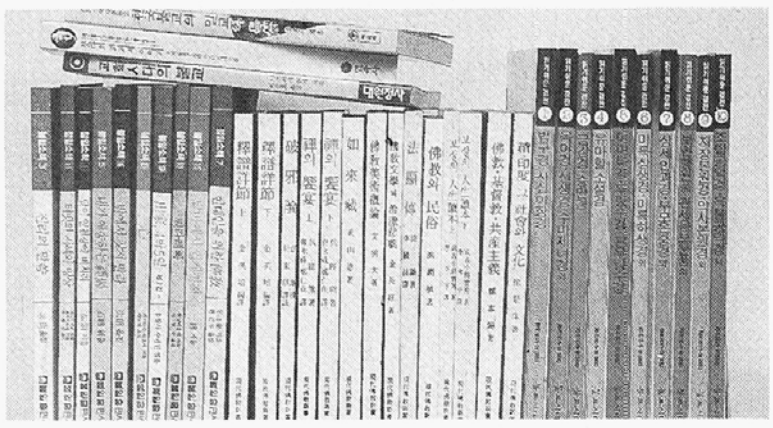
고요한소리의 '법륜' 시리즈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번역되지 않은 근본불교 대장경인 '빨리어경전'을 텍스트로 삼아 근본불교 불교철학 수행법 심리학 등 실생활과 연관된 책을 출판하고 있다. 〈부처님 그분〉〈마음, 과연 무엇인가〉〈죽음은 두려운 것인가〉등 11권을 펴냈다.

도서출판 만다라는 '진각소책자운동' 시리즈로 〈현대한국밀교 안내서〉〈한국불교의 밀교적 특색〉을 펴낸데 이어 올해안에 〈석존과 밀교〉〈만다라 이야기〉〈선과 밀교〉등 5권을 펴낼 예정이다.

그동안 소책자는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해왔다. 민족사의 '마음으로 읽는 불전'은 자타카 미린다팡하 붓다차리타 등 초기 불전을 10권으로 펴낼 예정이었으나 판매가 저조해 4권까지 내고 기획자체를 취소했다. 초기불전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민족사의 분석이다. 대원정사는 '대원불교심서'를 기획해 〈불교와 정치철학〉〈과학시대의 불교〉등 5권을 펴내고 발행을 중단했다.

대원정사 편집부장 고명석씨는 소책자가 독자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를 "볼품없는 편집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그러나 "출퇴근시 전철이나 버스안에서 읽는다는 점을 고려해 간략한 편집,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획이라면 상업적 성공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운 기자



'불교수행교본' 5권 나왔다

체계적인 수행과정을 밝힌 '불교수행교본'이 중급과정까지 출판됐다. 지은이는 김재영씨(청보리회 지도법사·동덕여고교사).

불광출판부가 바라밀총서 시리즈로 펴내는 불교수행교본은 ▲수계과정-〈이 기쁜 만남〉 ▲기초과정-〈나는 빛이요, 불멸이라〉〈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까지〉 ▲중급과정-〈무소의 뿔처럼 상·하〉 등 5권으로 구성, 수계불자가 되는 불교입문부터 일상적인 보살행을 실천하는 '선우(善友)불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를 나누었다.

이 책은 자학자습하거나 법회에서 법사의 지도로 공부할 수 있게끔 각권을 6개월(매주 1과)과정으로 마칠 수 있도록 꾸몄다.

현재 고급과정(2권)을 집필중인 저자는 깨달음을 실현하는 불교수행은 단순한 교리·이론공부가 아니라며 "각장마다 한가지씩 제시되어 있는 '실천수행'을 힘껏 실행하고 각장의 '창작' '법담의 시간'을 대중들이 함께 열심히 시도할 것"을 권했다.

출판 화제

명사추천 불서 100선

틱낫한의 '소설 붓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행하신 대로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자 제자들이 모여서 부처님을 회고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다. 이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추상적인 세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말씀하신 것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삶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깨달음을 구해가는 종교이다.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의 현실적인 삶을 전하기보다는 부처님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불경이 부처님의 삶보다 부처님의 사상에 치중하다 보니 부처님의 삶과 사상이 서로 떨어져버린 것 같다. 그 결과 우리가 얻어야 할 깨달음이 마치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초월적인 신비의 영역으로 오해되고 있는 것 같다. 불교가 어렵다는 것은 이렇게 불교의 교리가 삶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부처님의 삶과 사상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책이 있어야만 불교가 바르게 이해되고 실천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책을 직접 쓰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이 작업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우선은 자료의 방대함이다. 부처님의 생애를 기술하려면 한역 아함경과 남전 니카야, 율장, 본연부의 여러 경전들을 근본 자료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대승경전의 내용이 참고되어야 한다. 결국 대소승의 모든 경전과 율장이 면밀히 연구되어야만 충실한 부처님의 전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어려움은 다른 곳에 있었다. 모든 삶과 사상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의 인도 사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부처님의 삶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대와 문화와 사회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식견과 지혜가 부족한 필자가 부처님의 삶과 사상을 기술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욕심이었음을 절감했다.

좌절감을 느끼면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자



이 중 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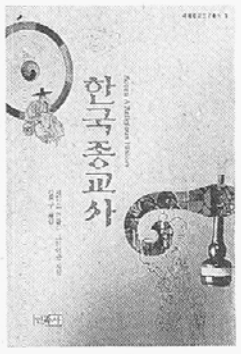
부처님 생애·사상 일목요연 정리
삶속에 녹아있는 깨우침 보여줘

료를 모으는 과정에서〈소설 붓다〉를 보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쓰고자 했던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느꼈다. 2600년 전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을 따라 수행하는 한 비구가 된 듯한 착각 속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불교의 교리들을 우리의 삶과의 연관속에서 실천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생활하셨으며 그 분의 사상이 어떤 것인지가 이 책에 잘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소설 붓다〉(원제:OLD PATH WHITE CLOUDS)는 소설이 아니다. 프랑스에 망명 중인 베트남의 틱낫한 스님이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을 여러 불경을 토대로 정리했다. 자신의 수행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 책은 이 시대의 불경이다.

3분 독서

한국종교사



역사의 외형은 과거의 재구성이지만 그 내포는 오늘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다. 최근 민족사에서 펴낸 〈한국종교사〉(제임스 H. 그레이슨 지음, 강돈구 옮김)는 이런 의미에서 주목되는 책이다.

이 책은 한국종교를 선사시대 삼국시대 신라·발해시대 고려전기 고려후기 조선전기 조선후기 근대이후 등 8시기로 구분하고, 각 종교의 전개과정과 그 배경 그리고 성격을 서술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레이슨은 △특정의 종교전통이 특정시기의 문화와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특정종교가 특정시기에 어떻게 주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각종교에 끼친 무속의 심대한 영향을 밝히는 서술방법을 택하고 있다.

시기별 구분 한국인의 종교문화 밝혀

맺음말에서 한국종교의 성격을 △무속의 강한 영향력 △특정종교가 특정시기를 지배했다는 점 △한국인의 종교심성을 강한 보수성으로 규정한 것은 한국인의 종교문화를 해명한다는 점에서 충실한 기조발제로 받아들일만 하다.

또 불교와 관련, 근대한국불교의 재건배경의 하나로 "일본의 지원에 의해 제도적으로 재건될 수 있었던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점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규명과 역사해석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저자는 71년부터 8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국내 대학에서 인류학 종교학을 강의한 적이 있는 감리교목사이다. 현재는 영국 웨일드대학의 한국학과장으로 한국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삶에서 깨어나기	틱낙한	장경각
2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일타	효림
3	히말라야·인도에 빠진 닥터	임현담	효형
4	선 100문100답	진제	파란나라
5	하산	홍주	불지사
6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7	영가천혼법어	석성우	토방
8	42장경	라즈니쉬	성하
9	알기쉬운 불교	권성부	불교방송
10	어린이 불교	능관 외	역경진흥회

구입문의:(02)737-0695

새로나온 책……

▲향가신해독법연구(강길운 지음)=향가의 새로운 해독법을 밝힌 향가연구서. 지금까지의 향가해독은 이조 초기어에 의한 향가의 번역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 비교언어학적 고찰을 통해 신라어와 고려초기어를 재구성 했다. '원왕생가' '도솔가' '예경제불가' '청불왕세가'등 40편의 신라·고려향가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학문사, 1만7천원.

▲차요리(이연자 지음)=우려먹고 남은 차잎을 이용한 요리법을 소개했다. 차잎무침 차팥죽 차빵 차냉면 등 68가지를 소개하고, 각종 문헌에 나타난 차의 효능·성분을 밝혔다. 초롱, 6천원.

▲흰 연꽃피는 소리(구본일 지음)=재미 불교신자인 저자가 수행중 떠오른 생각들을 묶은 수행단상. 74편의 짧은 글속에는 신앙의 마음가짐, 수행의 중요성, 부처님과 만나는 환희로움이 담겨있다. 토방, 3천원.

청소년 불교 수련의…



화제의 책

불서출판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청소년수련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서는 빈약했던 게 현실이었다.

〈청소년 불교수련의 길잡이〉는 본격적인 수련지침서로 청소년지도의 원리 및 수련대회의 기획에서 평가까지의 모든 과정을 풍부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 일상적인 청소년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청소년을 위한 도서목록, video걸작선, 청소년 관련단체 연락처등을 수록했다.

수련유형·진행방법등 상세소개

△청소년수련의 유형과 방침 △수련준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수련지도자의 자질과 기능 △수련의 실무지침 △신앙프로그램 지도 △생활불교 프로그램 지도 등 11편으로 구성해 청소년포교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에게 체계적인 수련준비와 진행 및 평가에 세부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정토출판사, 6천4백원〉

효림의 책에는 깨달음의 향기가 있습니다.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읽기 쉽습니다. 배우고 행하기 쉽습니다.
일타 큰스님의 가르침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불교 초심자들이 배워야 할 수행생활의 기본정신 『초발심자경문』. 일타 큰스님의 해설로 세 권이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죽음 뒤의 세상……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가는 인생……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저절로 얻게 된다.
I. 큰스님 주변 이야기
II. 유명인이 실증한 윤회와 인과
III. 민간에 전해지는 인과 윤회담
IV. 축생으로 태어나기까지
V. 부처님도 순응한 전생업보
〈총 53가지 이야기 수록〉
신국판 / 242면 / 값 4,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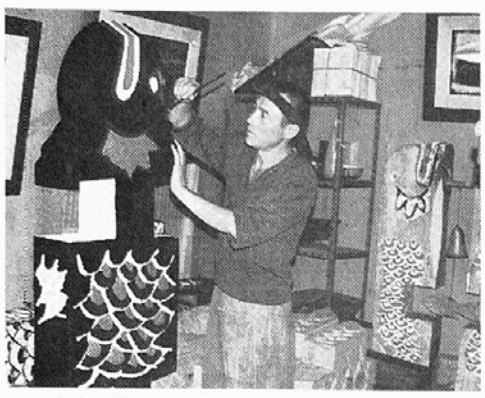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 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이 책을 펼쳐들면 누구나 알기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작하는 마음≫과 함께
진리를 향한 첫걸음을 옮겨 보자.
자유롭고 깨어 있는
나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신국판 / 342면 / 값 5,000원

신간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후회없는 구도자의 삶으로 이끄는 열가지 보배경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 큰스님께서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알기 쉽게 설명한 이 책은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불교신행의 나침반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바로 이 속이 복된 삶과 성불의 비결이 있다.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뿍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신국판 / 283면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환희롭고 평화로운 삶의 길잡이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 줄 것이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법공양문
신간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
72년 초판 발행 이후 끊임없이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수많은 불자들에게 전해져 읽혀온 책.
불서가 귀하던 시절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렵사리 구해다 놓고
두고두고 읽었던 책.
이제 그 책을 효림에서 새롭게 증보
발간하여 불자님들 앞에 선보입니다.
시원시원한 편집, 읽기 쉬운 가로찌기,
한글 번역문과 함께 실린 원문으로
초심자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친근하게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발심·수행·구경(究竟)의 길을
법공양문 과 함께 여행하며
참다운 법공양의 기쁨을 느껴 보십시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동서출판 효림 전화:(02)587~6612·6613 팩스:(02)586~9078



◇폐쇄된 국민학교를 창작실로 새단장한 한창스님의 작업모습.

폐교된 敎舍를 미술포교에 활용한다

전북 임실군 신덕면에 미술센터 개원

폐교된 국민학교 교사가 불자 미술인들의 창작실로 단장됐다.

전북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에서 지난 23일 문을 연 전북미술문화센터(촌장 한창스님)는 폐국민학교 건물을 창작실과 상설 전시장으로 꾸민 새로운 불교미술의 명소.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미술가 9명이 입주한 이 미술문화센터는 교실 10개와 강당 1개를 미술의 창작과 전시실로 꾸며 만든 것.

입주한 작가는 김한창스님(조각)과 송계일씨(한국화, 전북대 미술대학장) 박인현씨(한국화, 전북대) 선지현씨(서양화, 한국미협 전북지부장) 강신동씨(서양화) 임석윤씨(조각, 전국조각협회장) 조성민씨(조각, 전주대교수)등 불자와 이상조씨(서양화, 전북대) 조성민씨(조각)등 기독교인 2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 작업실에서 창작한 작품들을 70여평 강당을 개조한 상설 전시실에 전시하게 된다.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관훈동 백상갤러리에서 기획전을 가졌던 김한창스님의 주도로 문을 열게 된 이 미술문화센터는 창작, 전시 외에도 지역민들을 위한 교육마당으로도 개방된다.

김한창스님은 "신도들을 초청해 미술법회를 가질 계획이며 인근의 신평국민학교에 미술반을 개설해 미술지도를 할 생각"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또 스님은 방학을 이용, 무료 미술학교를 열고 지역청년들에게 영산작법 강의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정읍의 한 사찰에서 여름미술학교를 통해 포교했던 경력을 토대로 이 미술문화센터를 미술교육과 포교의 마당으로 연계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23일 전북미술문화센터 개원식에는 조남조 전북도지사와 지역 미술인 및 학생, 불교신자 등이 참석했다.

한창스님등 9명 원력모아 강좌·전시 문화마당으로

불교음악계 저작권등록 추세

유료공연땐 사용료… '특약' 경우 예외

일부 불교음악 작곡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저작권협회에 등록함으로써 공식적인 공연에서 연주되는 불교음악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의 지불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찬불가는 누구든지 아무곳에서나 자유롭게 부르고 공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반면 작가의 입장에서는 '작품을 모방이나 표절로부터 보호받고 공연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저작권 관리규정에 종교음악에 대한 특혜가 적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같은 이견은 불가피할 것이란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또 '저작물의 보호는 당연한 것인만큼 불교음악 작가들도 작품성으로 경쟁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도 고 있다.

찬불가는 전법과 불교음악의 발전을 위해 개방돼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대부분의 작가들은 저작권 관리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저작권협회에 등록한 작가는 변규백, 박범훈, 서창업(서윤재씨가 권리 승계)씨 등을 비롯 7~8명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씨의 경우 작년 10월에 협회에 가입 '천수천안관음송가'등 1백곡 이상을, 박씨는 국악곡등 126곡중 불교음악 '아제아제' '보현행원송' 등을 등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곡들은 입장료를 받고 공연할 경우 저작물 사용료를 내야한다. 요금은 1천석 공연장 규모에 1만원의 입장료를 받을 경우 1곡당 2만1천원 가량이 적용된다. 문체부의 규정에 의한 이 사용료는 1곡의 길이를 5분 정도로 정하고 있어 20분 분량의 곡일경우 4배가 적용되게 된다.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협에 등록된 곡목일 경우 사전 사용신고제가 원칙이지만 사후신고 내지 추적 적용이 대부분이다. 작가와 사용자의 특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 특약이 우선시 되고 사용료 분배는 등록회원에 한한다.

불교음악의 저작권에 따른 사용자의 인식전환과 작가들의 좋은 작품 만들기 노력, 그리고 찬불가의 특수성 인정부분 등이 저작권 등록 작가가 늘어날수록 교계 음악계가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임연태 기자

故서창업씨 유작 모은 찬불가집 출간

도서출판 여시아문, 장소·쓰임새따라 130곡 분류



◇故 서창업씨



찬불가의 시원을 개척한 故서창업씨의 유작을 중심으로 한 찬불가집이 출판됐다.

'동글고 밝은 빛' '홀로 피는 연꽃' '반야심경'등 찬불가 창작에 한 생을 살다간 故서창업씨의 유작과 정부기 변규백 김용호씨의 찬불가를 한데 모은 〈찬불가〉(도서출판 여시아문)가 그것.

〈찬불가〉는 故서창업씨가 1976년 펴낸 〈찬불가 100곡집〉(불교음악연구원 편)을 바탕으로 엮은 것으로, 불리워지는 장소와 쓰임새에 따라 의식·생활·불교가곡·수행선법가·어린이 및 청소년 찬불가·합창곡 등으로 분류돼 특징적. 특히 생활 속에서 수행의 힘이 될 수 있는 내용만을 담은 찬불가 '수행선법가'를 따로 분류했다.

서윤재씨가 엮어 낸 〈찬불가〉는 총 296쪽으로 〈찬불가 100곡집〉중 외국곡을 뺀 대부분의 곡과 수사본(手寫本)으로 널리 불리고 있는 故서창업씨의 곡, 쉽고 대중적으로 연주되고 있는 곡등 1백30곡의 찬불가를 담고 있다. 또 불리워지는 쓰임새와 자음의 순으로 정리돼 있어 전체를 한눈에 색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윤재씨 인터뷰

"부친의 평생작업 책으로 묶었어요"

"〈찬불가〉는 생전에 아버지가 못다하신 작업이죠.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의 뜻을 잇게 됐습니다."

〈찬불가〉를 펴낸 서윤재씨는 생전 아버지의 불교음악에 대한 사랑과 창작의지를 불교계에 펴보였다.

서씨는 또 "1년여의 준비기간 동안 줄곧 부족한 저로 인해 부친의 영전에 누를 끼쳐드리지나 않을까 조심스러웠습니다"고 그동안의 고심을 토로했다.

한마음선원 합창단을 지도하면서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에서 불교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서윤재씨는 故서창업씨만의 작품세계를 펼쳐 보였던 '불교가곡'들을 한데 모으는 작업도 할 계획이라고.

도필선 기자

'현대미술 이해하기—손에 의한 그림전'

이석조·이왈종씨 작품 전시

조선일보사가 주최하는 '현대미술 가깝게 이해하기—손에 의한 그림전'에 불교화가 이석조씨와 이왈종씨의 만다라를 주제로한 작품이 출품된다.

내달 6일부터 26일까지 조선일보전시관에서 전시되며 전시작품들은 CD롬으로도 제작된다. 동산방화랑과 다인테크(주)가 후원하는 이 전시회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미술을 이해시키는데 기획의 중심을 두고 있다.

'함께 피울 육화의 연꽃' 통일문화제

7월1일 동국대 만해광장서 열린다

불자들의 통일 염원을 대형야외 무대로 집중시키는 통일문화제가 오는 7월1일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분단의 장벽을 걷고 민족불교 자주의 시대를 열 제2회 통일문화제 「함께 피울 육화(六和)의 연꽃」은 작년의 음악제라는 한정된 소재의 행사에서 벗어나 음악제뿐 아니라 미술제, 무용제등 광범위한 문화대축제 마련을 위한 도약의 장으로 기획됐다.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지선)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3개년 프로젝트로, 작년 20여평의 조계사 임시무대보다 무려 3배나 되는 60여평의 공간에 총연출 이태범씨등 스텝진과 2천여명이 함께하는 초대형 문화행사로 꾸며진다.

또한 공연은 집체음악극 형식의 총 4부로, 문화제의 움트는 기운을 법고소리로 돋우는 제1부 「민족의 웅혼한 기상과 불교와의 만남」에서는 과거 우리 민족이 빛냈던 문화와 불교사상의 어우러짐을 되짚어 본다. 2부 「민초들과 운명을 함께하는 민족의 종교」는 도탄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바로 세우고 민족의 종교로 자리잡아 가는 불교의 위상을 담는다. 코미디언 전유성씨의 진행으로 송창식 정태춘 박은옥등 대중가수들의 노래공연을 중심으로 통일의 의지를 대중적으로 고양하는 3부 「통일음악제 축하공연」. 이어 피날레를 장식할 4부 「육화(六和)의 대합창」. 깨달음을 구하고 깨끗한 행을 닦는 자가 서로 사이좋게 공경하며 지내는 육화의 의미를 보살거사 청년불자 어린이합창단등 1백8인의 대합창을 통해 남북통일을 기원하며 행사를 갈무리 한다.

김회경 작곡집 출시

내달초, 찬불가요등 담아

찬불가 작곡가 김회경씨의 신작 작곡집이 카세트 테잎과 CD로 내달초에 출시된다.

(주)태광레코드가 기획 제작하는 김씨의 작품집에는 지난달 26일 본사(本社) 초청에서 첫선을 보인 찬불가요 '홀로 보낸 겨울'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을 보면 어쩌나' 등이 수록된다.

불심시심 〈22〉

허공에서 큰 깨우침 얻다

山前風動心搖樹 (산전풍동심요수) 산앞바람 불자 마음은 나무 흔들고
天末雲起性起塵 (천말운기성기진) 하늘끝 구름나니 본성에 먼지 인다
坐覺虛空生大覺 (좌각허공생대각) 허공임을 깨닫자 대각 얻었으니
丈夫於世孰爲親 (장부어세숙위친) 장부라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친히 할까

지난 호에서 보았던 중관대사의 '용문한거' 두 수 중의 글수이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이기는 하나 거기에서 스님으로서의 깨우침을 배우고 있다. 지난 호의 시에서는 거미의 분주함과 새의 한가로움에서 깨우침을 얻더니 이 시에서는 허공에서 깨달음을 얻고 있다.

바람은 앞산에서 불고 있어 나무가 흔들리지만, 바람이 나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무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물의 움직임은 내 마음이 먼저 움직이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모든 사물의 존재가 마음에서 인식된다고 한다면 이런 논법은 더더구나 타당한 논리이다.

하늘 끝에 이는 구름에 맑고 맑은 하늘은 흐려지고 만다. 저 흐려지는 하늘, 바로 우리 인간의 밝은 자성이 흐려지는 것과 같다. 흐려진 허공을 보고 하늘이라 하면 하늘은 어둠의 상징이 된다. 불성을 간직한 우리 자성본체를 알려면 먼지에 가리워지기 이전의 그 맑음을 찾아야 한다.

끝 귀절에서의 이 인간 세상의 누구와 친할까 하실은 읽는 이로 하여금 크나큰 숙제를 제공한다. 비어 있음의 허공은 누구의 것도 아니니 친해질 수도 친해지지도 않는 것이다.

이중찬 〈동국대 교수〉

달마·혜능대사등 육대선사를 만날 기회

중국작가 이전기 초대전 개최



◇이전기作 '달마대사'

부산 학교법인 동성고등학교 대강당(대연동)에서 개최된다.

한·중간의 문화교류를 도모하고 우의를 다지는 계기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육대선사외에도 다양하게 응신하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달마대사에서 혜능대사까지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중 교역개발주식회사의 주최로 마련되는 중국 자금성 「이전기 초대전」은 지난 27일까지 운현궁미술관에서 열린데 이어 7월2일부터 12일까지 부산 학교법인 동성고등학교 대강당(대연동)에서 개최된다.

금상에 윤보상씨 '맥'

대한불교신문 사진전

대한불교신문사가 개최한 제4회 한국전통문화 사진전에서 윤보상씨가 '맥'으로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총 1천81점이 출품된 이번 사진전에서는 또 '불심'을 낸 조대근씨가 은상을, '봉불식'을 출품한 성흥창씨가 동상을 각각 차지했다.

수상작품의 전시회는 7월5일부터 7일까지 부산국제문화센터 대전시실에서 열린다.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
●광고국 02-737-0692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전화 051-634-5114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전화 062-375-9986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전화 053-427-8008
경기지사 ●전화 032-613-4027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전화 0416-856-3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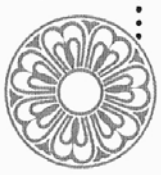
청소년을 위한 불교이야기

나는 오늘 부처님을 만났다!

이야기로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변화되어 갑니다.



이·야·기·로·풀·어·쓴·부·처·님·의·전·기
석가모니의 생애와 가르침
죽음도 두려움도 욕망도 없다 오직 진리만이 있을 뿐이다
생과 사의 고통 속에서 윤회하는 인간들에게
모든 번뇌와 집착을 벗어버린 진정한 해탈을 가르쳤던 석가.
그의 구도의 생애와 진리의 가르침을 여기에 집대성 한다.
김형중저 • 280면 • 5,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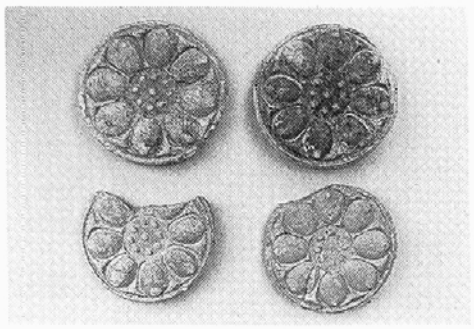


이·야·기·로·풀·어·쓴·현·우·경
코끼리의 눈물
부처님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솝이야기?
<현우경>의 내용을 22가지의 재미있는 우화로 풀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안델센의 '이솝이야기'처럼 쉽고 재미있는 불교우화집!!
고우익저 • 212면 • 5,000원



이·야·기·로·풀·어·쓴·숫·타·니·파·아·타
살아있는 모든것은 다 행복하라
세상의 온갖 애착에서 벗어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경전<숫다니파아타>중에서 주옥같은 법문만을 골라 말씀을 편안하게 풀어 놓았다.
살아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의 삶에 대한 석가의 깊은 성찰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요한 깨달음을 준다.
이학송저 • 272면 • 5,500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2동 320 계암빌딩 밀알 전화 5290140~5 팩스 5792312



◇천방사 절터에서 출토된 백제시대 8엽연화문 숫막새기와.

보령 수몰지역 천방사지 발굴

공주대 박물관(관장 이해준)은 지난 4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충남 보령댐 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천방사지(千房寺址)와 와요지(瓦窯址)에 대한 발굴조사를 벌였다.

발굴팀은 4등분의 사찰 건물터와 12기의 와요지가 백제시대부터 만들어져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다.

출토유물로는 △흙으로 구운 가옥형(家屋形)다층탑 유물과 △건물에 사용된 치미(장식용 기왓장)편 △백제 8엽연화문(八葉蓮花紋) 등의 막새기와가 다량으로 나왔다.

특히 이지역 불교문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흙으로 구운 가옥형다층탑 유물은 우리나라에서 처음발견된 것으로 미술사및 건축사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각국사비 탁본 중국서 입수

고려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의 묘비문 해석에 결정적 자료가 되는 대각국사비(개성 소재)의 고려말 탁본인 〈고려오관산비명(高麗五冠山碑銘)〉이 최근 중국 가덕(嘉德)경매장에서 낙찰돼 국내로 입수됐다.

이완기씨(도서출판 문화재사 대표)가 경매 목록에서 찾아내 매입한 이 탁본은 세로 25.5cm 가로18cm, 78페이지의 서첩형태로 중국 문화재 전문가들에 의해 제작년대가 명나라 초기(14세기말)로 고증돼 있고 보존상태가 양호해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비문내용 판독에 중요한 자료로 국내 학계에 의해 평가됐다.

문화재전문가 박순돈씨에 따르면 1930년대 조선총독부에 의해 제작된 〈금석총람〉과 비교한 결과 총글자수는 2천3백자로 밝혀졌으며 그중 59자를 새로 확인했고 6자가 〈금석총람〉에 잘못 기록됐음이 판명됐다는 것.

장흥사 존재입증 문화재 발견

8만대장경 초판을 만들었다고 전해오는 고려시대 사찰인 장흥사(長興寺)의 존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 국립진주박물관에 따르면 20일 진주시 명석면 남성리 312번지 논에서 주민 김성도씨(66)가 소류지 수로공사중 고려중엽때 유물인 청동합 요령(搖鈴) 금강저(金剛杵) 등 10점의 매장문화재를 발견했다는 것.

박물관측은 "청동합에 '大定20년(명종10년) 장흥사…'라 표기된 것으로 보아 당시 이 근처에 장흥사란 절이 있었으며 이번에 발견된 문화재는 이 절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첨단장비로 탐사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소장 장경호)는 다음달부터 물리탐사용 첨단장비를 이용해 땅속 문화재를 탐지하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진국에선 5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가 시행되면 택지개발 등 각종 건설공사로 인한 매장문화재 파괴를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문화재 연구및 고고학등 관련 학문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밀교연구 활성방안 마련

불교총지종 발전안 수립…도제양성 등 교육불사도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안효강)이 종단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안을 내놓았다.

총지종은 이 종단발전계획안을 실현, 종단의 면모를 쇄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총지종의 종단발전계획안은 법장원에 의해 이미 수년전부터 준비돼온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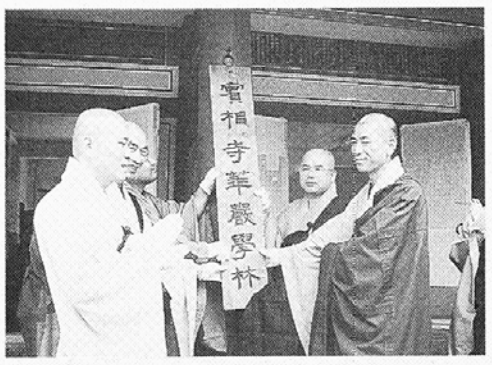
72년 종단 창종때부터 주요 종책입안기구역할을 해온 법장원이 최근 통리원에 보고한 종단 발전계획안은 △밀교연구소의 활성화 △교육불사를 통한 도제양성 △대사회적 홍보사업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리원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전격 수용, 종단발전을 위해 종도의 의지를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총지종의 종단발전방안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밀교연구소의 활성화 방안. 밀교연구소는 시대변화에 따른 대응책과 종단발전의 일환으로 총지종의 소의 경전인 대일경, 금강정경을 비롯 각종 경·소 번역사업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총지종은 현종단의 최대과제인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도제양성을 위한 일환으로 금년 12월까지 고양대학인 총지대학(가칭) 설립에 대한 제반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96년 3월 정식 개교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 12월 종보간행소를 설립, 신도들의 신앙체험등을 공유함으로써 화합 도모, 경전강의를 비롯 논문 등을 게재함으로써 승려와 신도의 효율적 교육과 함께 대사회적 역량을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장단기 계획과 관련 안효강 통리원장은 "향후 종단의 교상확립에 전념하는 한편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화활동을 전개, 한국 밀교의 정통종단으로서 위상을 강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중근 기자〉



선우도량 화엄학림 현판식

교계 최초로 전문학림으로 공식 지정된 화엄학림 현판식이 지난 20일 오후 1시 실상사서 열렸다.

이날 현판식에는 도법스님(선우도량 상임대표)을 비롯 현봉(공동대표), 운산(실상사 주지), 원산(조계종 교육원장), 연관(화엄학림 학장), 지선(백양사 주지), 도영(금산사 주지) 스님과 학인스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현판식에 앞서 원산스님은 운산, 연관스님에게 화엄학림 운영위원장과 학장 위촉장을 각각 수여했다.

한편 화엄학림은 지난 5일 조계종 교육원에 신청한 화엄학림 설립안이 교육원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원으로부터 4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태고종, 사이판 진혼제 봉행

광복절 맞아 '과거' 교훈삼는 계기

태고종(총무원장 박서봉스님)은 8월 15일 사이판 만세절벽앞에서 '사이판 한국인 전사자 진혼제'를 봉행한다.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진혼제는 2차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징용돼 희생한 유주무주 고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게 되며 박서봉 총무원장을 비롯 종도 2백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총무원측은 "이번 진혼제가 희생자들의 영령을 천도하는 차원을 넘어 뼈아픈 과거를 되돌아 보고 교훈삼아 남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호국불사"라며 종도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사이판에는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비와 위령탑이 세워져 있고 해마다 추모제가 실시되고 있다.

교구 연석회의 개최

조동종, 재원확보 논의

대한불교 조동종은 지난 19일 부산시 해운대구 동해사(주지 남촌스님)에서 '95년도 제1회 중앙간부 각교구 종무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종단발전 방안과 현안을 토의했다.

박운파 종정 운지명 총무원장을 비롯 종단간부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문제 등 종단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참석한 스님들은 "조동종은 재정운영에 있어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오직 전종도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종단의 최우선 과제는 재원확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불교텔레비전 주식공모 동참과 94·5년도 분담금, 9월1일부터 5일까지 중국 소림사 창건 1천5백주년 기념식 참석과 건당기념비 건립 제막식에 대한 사항도 논의됐다.

진각종 한마음 수련대회 열어

스승 1백여명 동참 교화 활력 발원

진각종(통리원장 최지광)은 지난 15·16일 양일간에 걸쳐 전북 남원에서 전국 각 심인당 스승1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 심인당 스승들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마련된 수련법회에서 최지광 통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선교화사업에 노력하고 있는 스승들이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교화활동에 큰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도 연수교육 실시

여래종 약사사

여래종(총무원장 김법우)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총본산 약사사에서 종도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각 사암 주지스님을 비롯 법사들의 소양함양과 종단의 위상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연수교육은 불교교리교육, 교양교육, 종단의 위상강화를 위한 토론회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천마 재활원 축구부는 지난 26일 장애인 특수올림픽 출전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며 선전을 다짐했다.

천마 재활원 축구부 장애인 올림픽 출전

부산천마재활원(원장 박근련) 축구부가 오는 7월1일부터 9일까지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븐시에서 열리는 제9회 장애인 특수 올림픽에 출전키 위해 지난 26일 출국했다.

지난해 열린 전국 장애인 체전에서 1위를 차지, 장애인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천마축구부는 주장 이태근 선수를 비롯 8명이 참가해 준우승을 차지한 대구 선명학교, 3위의 경기도 흡트 일산복지 축구부 5명의 선수와 함께 경기를 펼치게 된다.

천마재활원의 정신지체장애인 20여명으로 구성된 천마축구부는 지난 2년동안 장우선 코치의 지도아래 열심히 실력을 연마해 왔으며 지난 4월 열린 정신지체인 애호협회장배 축구대회에서도 선전을 거듭한 끝에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루 평균 1시간 30분정도의 규칙적인 훈련으로 선수들을 지도해온 장우선 코치는 "정신지체인 선수라는 특수성 때문에 모든 훈련은 제가 먼저 행동으로 시범을 보이고 기본기를 지도한 후, 미니연습게임으로 선수들이 수비와 공격에 대한 흥미를 갖고 축구의 묘미를 스스로 느끼게끔 유도했다"며 연습과정을 설명했다.

올림픽 출전을 한달여 앞둔 지난 6월초 부터 20여일간 합숙훈련으로 팀웍을 다지기도 한 천마축구부는 이번 장애인 특수 올림픽에서도 기필코 좋은 성적을 거둘것이라 장담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목탁소리

회관 공사 재개돼야

이 윤 호 〈대구 주재 기자〉

대구시 동구 신천 4동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시커먼 철근 뼈대만 드러낸 채 공사가 중단된 흉한 몰골의 건물을 보면서 왜 저렇게 방치되고 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것이 '불교회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불자들은 쳐다보기조차 민망해 하며 지나간다.

10여년전부터 대구지역 불자들의 숙원사업인 회관 건립 불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93년 6월, 착공 6개월만에 완공의 그날이 언제인지 기약도 없이 병든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佛心깊기로 자타가 공인하는 '불교도시'이다. 그러나 불교도시를 자처하고 있는 대구시에 불교신자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넉넉한 포교공간, 전시회나 행사를 열 만한 변변한 회관이 없다. 많은 신도단체들이 모여 살고, 다양한 법회와 행사를 열 수 있는 대형 불교회관은 대구불자들이 오랫동안 꿈꾸어 온 대불사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불사가 시작되자마자 중단,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올 장마에 어쩌면 붕괴의 위험마저 있다니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물론 재정난이다. 총 공사비가 워낙 엄청난데다 불교회관 건립비로 쓰여진, 선본사 갓바위 돈의 유용문제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회관의 조속 완공만을 기다리고 있는 불심들만 멍이 들고 있는 것이다. 건립 주체인 마하아나불교문화원은 조계종에 회관 증여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이사선임권 즉, 관리권은 넘겨줄 수 없다고 버티는 데서 조계종 총무원 또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다.

회관 건립에 들어간 돈은 삼보정재이다. 정성스레 부처님전에 올린 정재가 녹이 슬어가고 있는 것은 누구 잘못인가.

회관불사를 감당할 수 없는 곳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대구는 오랫동안 두개의 불교로 나뉘어져 있다가 지난 3월 대승적 마음으로 통합을 약속, 대구불교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나서기로 했다.

진각종이 지금 짓고 있는 매머드 회관과 더불어 대구불교회관이 명실상부한 대구불교 포교의 중심지가 되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회관공사가 빨리 재개돼야 한다.

진리의 전화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구룡사 부설 인생상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혜의 문이 있습니다.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 579-3033

계간 《多寶》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불교계 유일한 종합 학술정보지 계간 《多寶》가
이번 호(통권 제13호)부터 더욱 알찬 내용으로 선보입니다.

현실의 제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불교와 현실을 하나로 잇기 위해 발행되고 있는 《多寶》는 한 걸음 나아가 더욱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른 매체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해외에서 발표된 각종 학술 논문 및 집중 기획물을 대폭 보강하였으며 편집형태도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치 있는 문서포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계간 《多寶》를 앞으로도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정기구독 신청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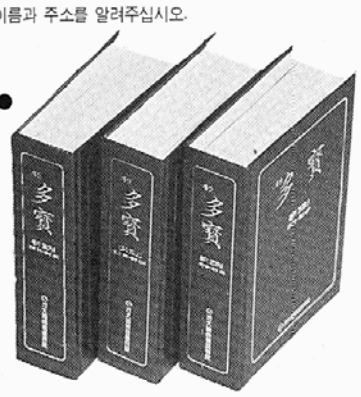
구독료 1년 (4호간) 20,000원

은행구좌번호			
	국민은행	827-25-0006-047	(재) 대한불교진흥원
	외환은행	189-13-02685-0	(재) 대한불교진흥원
	우체국	012245-0090499-11	(재) 대한불교진흥원
	농협	069-01-197161	(재) 대한불교진흥원

* 구독료를 입금하신 후 전화로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계간 《多寶》 합본호 보급안내

불교계의 유일한 불교종합학술정보 잡지,
계간 《多寶》 합본호가 나왔습니다.
1992년 3월 1일 창간호부터 1994년 12월 1일
제12호까지 3년간 발행된 잡지를 총 3권으로
묶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합본호로 보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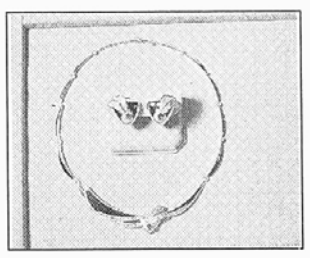
합본 1호 (1992년 발행)
합본 2호 (1993년 발행)
합본 3호 (1994년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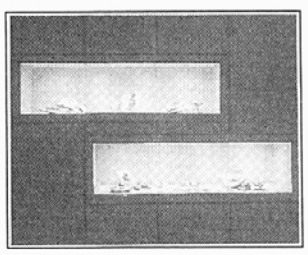
* 보급가:
각 권당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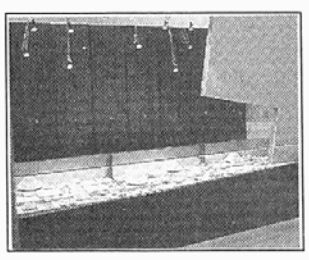
• 발행/보급 :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계간 《多寶》 (전화) 02-719-1855

'이제 당신의 우아함이 깊이를 더해갑니다'

귀금속 靑雨







섬세하고 정교한 제품,
서정적인 주제와 독특한 감성표현,
각 개인의 개성을 소중히 하는
디자인……
靑雨 귀금속은 유행을 넘어선
남다른 아름다움의 깊이를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녹음이 짙어져가는 계절
클래식한 우아함과 세련된
현대 감각이 함께하는 곳
靑雨에서 당신만의 개성을
만나십시오.

'靑雨' 劉慈也 씨 전시경력

1971~1972 국전 서양화 부문 입선 20, 21회
1976 파리 니델재산 공모전 입상
1977 파리 Cite International des arts 주최 전람회 출품
1978 불란서 전국 사진 공모전 출품
1979 파리 프리마그 로지에 공모전 입상
1980 파리 화랑 전람회 출품
1977 불란서 예술원 공인 미술작가
1980.6 제1회 개인전(신세계 백화점 화랑)
1982 한국 공예가회 출품
1983 한국 공예가회 출품
1984 한국 공예가회 출품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5-1, 2 한양타운 107호 / 우편번호 135-120 / TEL 3442-4434~ 5

사찰운영위 구성 '거북이 걸음'

스님·신도들 인식부족… 홍보·교육 선행돼야

지난 5월말 경북 선산 도리사에서는 주지 법등스님과 삼직스님, 신도회장 이병춘씨(도교육위원)등 13명의 운영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사찰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운영위원들은 5월까지의 도리사 수입·지출을 점검하고 법당보수, 운달불사, 유아원 개축, 양로원 개원 문제등 사찰의 당면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찰운영위원회 구성 후 첫 모임인 이날, 스님들과 신도회 간부 등은 허심탄회하게 사찰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병춘씨는 "사찰 경상비를 아껴 법당보수 등 불사에 주력키로 했다"며 사찰 경영에 참여하게 됨을 흐뭇해 했다.

이처럼 사찰의 관리와 운영을 공영화·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의 조계종 사찰운영위원회가 아직껏 전체 사찰의 20%에 불과한 총 3백60개 사찰에만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월10일 현재).

조계종 종헌 제101조에 의거 지난 4월25일까지 완료됐어야 하는 사찰운영위원회 구성이 이처럼 미미한 것은 스님들 및 신도들의 사찰운영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부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홍보와 교육부족으로 신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스님들이 사찰운영위원회에 대해 인식이 전혀 없거나 실시에 대해 꺼림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0월26일 공포된 사찰운영위원회법에는 시행 6개월(4월25일)까지 구성해 총무원에 보고토록 했다. 구성할 수 없는 곳은 합리적 사유를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인사 금산사 송광사 등 큰절에서조차 이렇다 할 사유없이 사찰운영위원회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사찰운영위원회법상 신도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단 내외의 여러 사정으로 신도회 구성이 미뤄지는 현실도 사찰운영위원회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총무원은 주지 인사사고과제 반영, 다양한 행정통제 방안 마련 등 강력한 실행의지를 천명하고는 있으나 위낙 구성안된 곳이 대다수라 엄두를 못내고 있다.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이 지난 1월 발표한 상반기 종무계획 중 제도개혁의 정착과 보완을 위한 중요 종무정책으로 발표한 '사찰운영위원회'가 전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관철시키려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받쳐주는 행정지침이 시급하다. 〈이경숙 기자〉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는 지난 17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청소년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원까지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도시사찰 등록세 비과세 전환

내달중 국무회의 상정…교계 "큰이익 없다"

서울 부산과 수도권 도시에 한해 부과되던 사찰 등록세가 비과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내무부가 마련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과 수원 안양등 수도권 14개 시의 종교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해오던 등록세를 비과세로 추진키로 하고 이같은 지방세제 개선안을 7월중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사찰 신축, 토지매입 등과 관련한 등록세는 서울시 지방세 수입의 경우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교계는 내무부가 주장하는 민원에 따른 타지방과의 과세형평원칙보다는 6·27선거를 앞두고 특정지역과 계층을 겨냥한 선거용 선심행정이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동국학원 승려 이사 조계종 추천권 강화

조계종은 지난 21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종립학교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사정원 13인 중 9인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추천하는 승려로 하는등 정관을 개정, 승려이사 및 감사에 대한 추천기관을 조계종의 공식기구로 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7월9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4인(현근 정우 지하 명훈)과 승가학원에서 추천한 원산(조계종 교육원장) 동광(도선사 주지) 도호 (소림사 주지)스님과 종립학교관리위에서 추천한 지홍(신흥사 주지) 광우(비구니 회장) 무상(봉은사 주지)스님등 10인을 이사후보로 복수추천했다.

"범어사앞 아파트 시대착오 발상"

정관·덕명스님등 대책위 구성…건립철회 여론 확산

범어사 입구 경동아파트 건립 규탄 및 저지대회가 지난 6일에 이어 21일 오후 2시 범어사 대웅전 앞에서 1천5백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건립반대 여론을 폭넓게 확산시키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 민자당 불교신도회장인 곽정출의원과 김진재의원은 "범어사와의 합의없는 관할구청의 건축허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저지대회에 이어 공사현장까지 가두행진을 펼쳤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비공개로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정관 덕명 대정스님이 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됐다.

"불법통해 가치관 재정립"

신도협, 윤리·도덕성회복 기원법회 봉행

한국불교신도단체협의회(대표회장 김용직)는 지난 17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광복 50주년기념 및 윤리·도덕성회복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녹원스님(직지사 주지), 홍파 관음종총무원장, 대운 원효종총무원장, 청봉 염불종총무원장, 광태 법화종총무원장을 비롯 스님 30명과 송석구 동국대총장등 29개 종단 재가신도 1천5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도단체협의회는 도덕성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고 △5계 지키기 △6바리밀 생활화 △효도하기 △더불어 살기 △주인의식 갖기등 5개항을 실천덕목으로 채택했다.

대통령사과·책임자 문책 촉구

조계종, 6·6 교권 유린특위 구성…정부와 대화 모색

조계종 총무원이 6·6교권유린과 관련 특별대책위를 구성하고 정부측과의 대화모색에 나섰다.

총무원은 지난 20일 법타(총무부장) 시현(문화사회부장)스님을 상임위원으로, 각부 부장 및 국장을 위원으로 한 교권유린 특별대책위를 구성하고 "이번에 구성된 대책위는 15일 열렸던 시국법회때 월주스님이 밝혔던 입장과 원칙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위는 지난 16일 국무총리의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이 공식적 사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대통령의 공식사과등을 계속 요구하되 종교와 정부간의 지속적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강경일변도가 아닌 정부와의 공식 대화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는 22일 오전 10시 임시종회를 열고 정부권력의 폭압과 이를 비호한 일부언론에 엄중히 항의하고 대통령사과와 책임자문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범불교대책위와 실천승가회, 전승련은 국무총리의 담화문 내용과 관련 성명을 통해 "종교계의 노력을 무시한 오만한 변명"이라고 비난하고 "이 문제가 납득할만한 선에서 해결될 때까지 종교적 정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승가대 발전방향 조계종 세미나서 모색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스님)은 7월 5,6일 양일간에 걸쳐 해인사 홍제암에서 '지방승가대학 교육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방승가대학이 의무교육과정인 기본교육기관으로 정립됨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세미나는 5일 법성스님(교육원 역경위원장)의 '승려 기본교육의 체계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6일 무관스님(전 해인사 강주)이 '지방승가대학 교육발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호국영령 추모행사 잇달아

군불교진흥회·법화경불교대등 기원법회

광복 50주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

군불교진흥회(회장 박상길)와 육해공군 군승단(단장 강남석)은 21일 오후 7시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광복 50주년 호국보훈의 달 기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군법사 30여명과 군불자, 재가불자등 모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호국영령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주먹밥 시식회도 함께 열려 6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법화경불교대학(학장 공덕스님)도 같은 날 오후 1시 대전 국립묘지에서 부산, 대구, 포항등 영남지부 법화경대학 학생 및 신도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영령위령제'를 봉행했으며,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회장 법혜스님)도 23일 오전 11시 금오산 은저수지에서 '호국영령추모 및 부산아시안게임 원만성취발원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자연공원내 골프장등 건설 금지

내무부 21일 입법예고

내무부는 지난 21일 국립·도립·군립공원등, 자연공원에 골프장과 스키장 설치를 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립공원등 자연공원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라 골프장이나 스키장 건설을 신청, 시행허가를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가야산 해인사 부근에 건설예정인 가야개발 골프장은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시행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골프장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교계의 항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0일 청와대, 국무총리, 문체부, 환경부등 14개 각급 장관 및 정당대표에게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차한잔 보시로 불교점자도서 보급"

마포 점자도서실 점역시스템기금마련 녹수청산서 하루찻집

마포점자도서실의 '점역시스템 기금마련 하루찻집'이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지명, 명조스님 등 몇몇 뜻있는 스님들의 주도로 오는 7월 8일 녹수청산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하루찻집은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점역도서 제공, 중도실명자를 위한 상담 및 재활교육 등을 펼치고 있는 마포 점자도서실(마포구 망원동)의 점자도서 제작에 필요한 문자인식 스캐너, 스캐너프로그램, 점자프린터 구입을 위해 준비됐다.

특히 이곳 마포점자 도서실은 지금까지 불교성전, 전등록 강의, 지장경, 법구경, 묘법연화경, 금강경, 초발심자경문, 육조단경, 보현행원품 등의 점자 경전을 꾸준히 제작해 왔으며 전체 도서의 30% 정도를 불교관련 점역도서가 차지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맹인불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어 불교관련 점역서의 대출이 꽤 많다"고 말하는 마포점자도서실 이민경실장은 "하지만 아직 부족한 도서들이 많아 앞으로도 계속 불교관계서적을 점역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전북지역 불교대학 체육대회

전국불교대학, 화엄불교대학, 이리불교대학, 군산불교대학, 남원불교대학 등 전북지역 5개 불교대학은 7월2일 전주교육대학 실내체육관에서 '95 한마당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전북지역불교대학 학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배구, 줄다리기, 이어달리기등의 체육활동과 흥겨운 놀이마당이 펼쳐진다.

광주불방 낙도청소년 백일장

불교광주방송은 지난 16일 전남 완도 소안국민학교에서 광복50주년기념 낙도청소년초청백일장을 개최했다.

소안도 보길도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8백여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 초등부 '동시' 금상에는 이유미(소안국교6), 중등부 '시' 금상 문지후(소안중1), '산문' 금상은 허혜란양(소안중3)이 차지했다.

대불청 75주년 기념법회 봉행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 '창립 75주년 기념법회'가 지난 2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지선스님(백양사 주지) 등 교계 중진스님 및 청년회 회원 2백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충남지구 유석근회장과 김철현 사무국장이 제14차 불청대회에 대한 표창패를 수상했다.

사랑방전화 사단법인 인가

교계 최초 노인상담전화 사랑방전화(회장 로반스님)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인가받았다.

60세이상 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월 결성된 사랑방전화는 사단법인 인가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통도사 옥련암 '큰빛의 집' 낙성

통도사 옥련암 '큰빛의 집' 부처님 점안식 및 법당 낙성식이 지난 22일 사부대중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낙성식을 가진 '큰빛의 집'(대적광전)에는 비로자나불과 1천2백50위의 아라한이 봉안됐다.

부산 소림사 대웅전 착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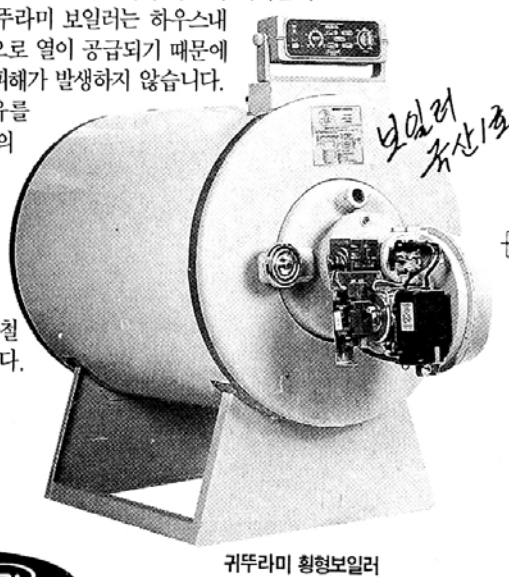
부산시 동구 소림사(주지 정일) 대웅전 착공식이 지난 20일 정관(범어사 주지), 혜인(제주 약천사 주지)스님과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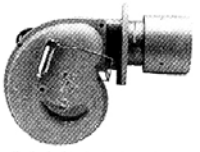
신축 대웅전은 대지 6백평, 연건평 1천1백61평,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종교시설과 각종 전시시설, 근린 생활시설로 꾸며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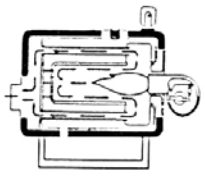
귀뚜라미 비닐하우스 양어장용 보일러가 풍요한 결실을 약속합니다

국내 보일러 판매 1위 회사인 저희 귀뚜라미가 만든 횡형 보일러는 수박, 토마토, 특용작물 재배 및 양어장에서 그 진가가 빛납니다. 가동이 중단되면 급속하게 공기가 냉각되어 작물에 피해를 주는 기존 온풍기와는 달리 귀뚜라미 보일러는 하우스내 흙바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열이 공급되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운기기름 등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귀뚜라미의 세계적인 신기술인 터보 소용돌이버너가 부착되어 연료비가 훨씬 적게듭니다. 또한 이상이 있을시 전국 161개 대리점망을 통한 신속한 A/S실시로 사시사철 안정적인 수확이 보장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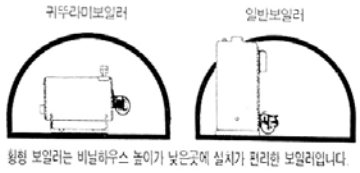




세계적인 연료절약형 터보소용돌이버너



강압통풍식 3PASS구조
별다른 송풍장치 없이도 노내의 높은 압력을 형성하는 구조의 연료절약형 횡형보일러입니다.



횡형 보일러는 비닐하우스 높이가 낮은곳에 설치가 편리한 보일러입니다.

귀뚜라미보일러 SINCE 1962
대표전화 : 02) 798-5126

귀뚜라미 횡형보일러
보일러 국산 1호기로서 최상의 수명을 자랑합니다. 횡형구조로 천정의 높이가 낮은 하우스 설치에 적합합니다.

귀뚜라미보일러는 부품수명이 다할때까지 무료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심 상 - 풍 경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자유 향한 끊임없는 물음은 새가 되고 꽃이 되고

임상에 쫓겨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발버둥치며 욕망으로 괴로워 할 때 우리는 자주 "마음을 비워야지"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림을 통해서 자신만의 조형언어를 갖고자 하는 마음도 어찌 보면 스스로를 얽매는 부자유의 사슬인 것 같다. 인간의 욕망과 그로 인한 번뇌의 고통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혹은 먹는 것 등 오관을 통해서 온다. 시각을 통해 봄으로써 갖고자 하는 소유욕을 느끼고, 집착하게 되는 것에 시달리기도 한다. 잘못된 말을 듣고, 미움의 마음을 갖기도 하고, 세치 혀로 남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생활인으로 살면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을 수는 없다. 특히나 내가 하는 조형작업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안되는 작업이다. 시각적인 아름다움 만을 좇는 장식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싫증이라는 이름으로 퇴색해 버리는 것과 달리, 예술은 늘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고 작가 내면의 무계만큼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색채를 많이 사용하는 나는 늘 그것이 속되지 않을까, 탐미에 흐르지 않을까 고민한다.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일만큼 추한 것이 없음을 알기에 절제하려 애쓴다. 마음을 덜어내고, 화편을 덜어 내는 일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인 것 같다. 마음속에 던져지는 끊임 없는 물음들을, 어짜어찌…. 어떡하게 풀어 가려 하지만, 아직 어설픈 모습을 정말 어쩔수가 없다. 이 세상에 덩그러니 던져진 내 자신이 어떤 인연으로 여기에 와 있는지.

가만히 새장 속의 새를 들여다 보고, 들판의 꽃들을 바라 보면서, 돌고 돈다는데… 혹 나와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색다른 감상에 젖어 본다.

나의 조형언어를 찾는 일은 내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좀 더 침잠함으로써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 함이다. 새장속에 갇힌 새인가, 세상을 바라보는 새장안의 새인가. 내속에 내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물음을 나는 그린다.

임연숙 〈서양화가〉

폭풍이 지난 들에 핀 꽃 ③

주부신행담

신앙생활을 하다보니 내 몸에 들어온 늑막염이 고통도 주지 않은 채 자연히 치유됐다 나는 병원문을 나서는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되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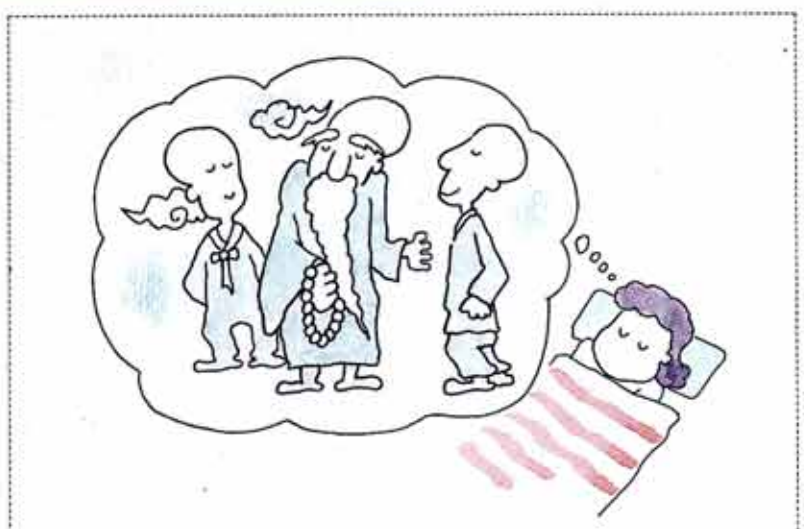
수덕사에 도착해서 저녁 예불이 지나서야 그 곳 주지스님과 대면할 수 있었다. 처음 수덕사를 대하는 인상이 전혀 낯설지도 않고 오히려 편안하고 푸근한 마음이 생겼다. 인자하게 생기신 주지스님은 남편의 얘기를 듣고 난 후 한달간 기도를 하라며 절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시며 자상하게 불교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씀해 주셨다.

"일주일도 못가서 집에 가고 싶을거야"하셨던 주지스님이 지금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을 맡고 계신 설정스님이시다. 불교와 인연맺고 처음으로 대한 스님이다. 한달간 있으면서 나는 사분정근을 빠놓지 않았으며 새벽예불이 너무 좋아서 한번도 거른 적이 없었다.

그때 부전스님으로 계셨던 수암스님의 가르침대로 천수경, 반야심경, 지심귀명례를 다 외웠다. 정해사에 올라가서는 틈나는대로 그림을 그렸다. 계곡사이를 오르내리며 그때 외웠던 기도분들이 지금까지도 내 중심에 언제나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달을 보내고 집에 와서도 아침 새벽예불을 거르지 않고 천수경, 반야심경, 관음정근, 때로는 108배 대불정능엄신주, 금강경 등 닥치는 대로 열심히 외웠다. 처음에는 뜻도 모르고 읽던 금강경은 어느새 환희심이 일고 열심히 읽게 되어 지금은 한번 외우는데 9분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일상화되었다.

"악이색견아 이음성구아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가끔 중얼중얼 읊조린다.



조계사를 혼자 다니다가 도반을 만나게 돼 구파발 흥국사를 다니며 합창단 임원, 흥국사보 편집장을 하면서 계속 신앙을 키웠다. 하루는 왼쪽 옆구리가 심하게 아파옴을 느끼면서도 그냥 참다가 어느날 병원문을 노크했다. 아픔을 의사에게 호소하자 의사는 X-레이를 찍자고 하더니 사진촬영을 끝내자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젠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늑막염이 다 나아서 상처가 아물었습니다"고 하면서 사진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나는 늑막염을 앓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왼쪽 무릎이 아파오게 되었다.

아마 절을 많이 해서 그런가 하고 자가진단하다가 정형외과를 찾았다. 무릎 관절염인 것 같다고 물리치료를 오랫동안 받으라고 했다. 더운 여름 날씨에 며칠을 받다가 여름 지나고 시원해지면 받기로 하고 그만 두었다. 병원치료를 받으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기 때문이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하루는 꿈을 꾸는 데 스님 세분이 나타나셨다. 가운데 분은 눈이 커다란 데 다른 두 분은 얼굴이 기억나질 않는다. 나는 꿈에서도 스님들을 뵙자 엎드려 절했다. 가운데 스님이 나를 보고는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 것이었다. 내가 왼쪽 다리를 가리켰더니 가운데 스님은 옆에 계신 다른 스님을 보고 "저 보살 아픈 곳을 낫게 해주라"하시는 것이었다. 그순간 나는 "가지고 온 불전이 하나도 없는데"하면서 어리둥절해 하다가 잠이 깼다. 너무나 분명하고 희한한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나서도 식은 땀이 흘렀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왼쪽다리를 폈다 구부렸다 해보았다. 다리가 아파서 펴지를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말이다. 그런데 거짓말 같게도 다리가 아프지 않고 자연스럽게 오무렸다 폈다 해지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도 신기해서 자는 남편을 깨워 다 나은 다리를 보였다. 남편도 다리 아파 밤마다 끙끙대던 나를 신기해 하며 다리를 지켜보았다. 나는 이토록 신앙생활을 하며 남다르게 많은 가피를 입었다. 글로 다 쓸 수 없는 많은 가피를 말이다.

그러나 늘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생에서 이어져 오는 업이 있기 때문에 가끔 괴로움을 당하기도 한다. 열심히 살려고 하던 때 뜻하지 않은 사건이 두번째로 또 터졌다.

김 묘명심 〈파주 보광사〉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①

팔리어로 Sutta는 경전, Nipata는 모음(集)이란 의미이다. 그러므로 숫타니파타(Suttanipata)란 곧 경집을 말한다.

숫타니파타의 구성은 사품(蛇品), 소품(小品), 대품(大品), 의품(義品), 피안도품(彼岸道品)의 5장으로 되어 있다. 사품(蛇品)은 12개의 경을 수록, 수행자는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차안과 피안을 다 버린다는 구절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소품은 짧은 14개의 경을, 대품은 비교적 긴 11개의 경을 수록하고 있다. 의품은 원어인 Atthakavagga에 따라 팔게품(八偈品)이라고도 하며 예로부터 16경의 구성을 유지하며 전해져 왔는데 한역 의품경이 바로 이것이다. 피안도품은 16인의 학생들이 부처님께 질문하고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답하는 문답 16절과 서와 결을 합한 18절로 되어 있다.

I. URAGAVAGGA(蛇品)
1.URAGASUTTA(蛇經)

♦ He who restrains anger when it has arisen, as they by medicines restrain the poison of the snake spreading in the body,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약으로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막듯, 화가 일어날 때 억제하는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 He who has cut off passion entirely, as they cut off the lotus-flower growing in a lake, after diving into the water,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연못에서 자라는 연꽃을 물속에 들어가 꺾듯, 애욕을 완전히 끊은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 He who has cut off craving entirely, the flowing, the quickly running, after drying it up,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넘쳐 흐르는 갈애의 물살을 완전히 말려버린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 He who has destroyed arrogance entirely, as the flood destroys a very frail bridge of reeds,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홍수가 연약한 갈대 다리를 부수듯 교만을 완전히 없앤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Bhikkju 수행자 (팔리어)

한명우 기자

에인절 통신

카나다 벤쿠버 서광사 태응스님 주지 진산식



◇태응스님

지난 11일 카나다 벤쿠버에 있는 서광사에서는 태응스님(불교TV 대표이사)이 주지로 취임, 진산식이 봉행됐다. 서광사는 1년 전 벤쿠버로 이민 간 불자들이 사찰이 없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불자들이 힘을 모아 창설한 사찰. 처음에는 1백여명의 신도들로 시작하여, 지금은 2백여명 350가구로 급성장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포교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날 진산식에서 태응스님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법당이다"며 "후손들에게 불교를 알게하여 불법을 널리 펴 이역에도 불교를 꽃피우자"고 말했다.

교리와 세속관념 차이
불교가 가장 적다
英 인디펜던트紙 보도

영국의 인디펜던트지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세계 주요 종교 가운데 불교교리가 오늘날의 세속적인 관념(영국인의 정서 기준)과 가장 차이가 적고 이에 반해 카톨릭이 가장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디펜던트에서 영국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세속관념과 종교교리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보도한 항목은 △신에 대한 모독 △종교행사 무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혼전 성관계 △동성애 △이혼 △자위행위 △자살 △동물학대 등 12가지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모든 종교의 교리와 세속적인 관념이 서로 일치되어 '잘못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신에 대한 모독 종교행사 무시에 대해서는 불교와 세속적인 관념이 '해가 안된다'고 인정하는 반면 나머지 모든 종교는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어 큰 차이를 나타냈다.

불교가 세속적 관념과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자살에 관한 것으로 자살이 있을 수 있다는 세속적 관념에 반해 불교는 해악이 된다고 했다.

남수미 기자

曉星그룹 신뢰받는 기술

"한국산업발전의 견인차 — 효성중공업"

종합중전기에서 첨단기술산업까지

효성중공업의 생산제품 소개

●중전기기 및 송변전 설비 : 초고압 송변전 설비, 초고압 변압기, 배전 변압기(유입, SF_6GAS, 건식, Mold, Amorphous), 초고압 GIS, GCB, DS, 각종 배전반, 융접기 및 변전설비, 철탑, 철구조물 ●산업용 기기및 설비 : 겐트 감속기, 플롭기, 크레인, 수문, 싹도, 산업설비, 환경보전 및 수처리설비, 각종기계장치,화학장치, 주차설비 ●회전기기 : AC전동기, DC전동기 및 Drive System, 방폭형 전동기, AC서보모터, 브레이크 모터, CLS 전동기, 발전기, 각종 특수전동기 및 전동기 기동장치 ●전력전자 및 FA : 자동창고, UPS, 프로그래머블 콘트롤러(PLC), 수·배전반, 전력 감시제어장치,분산형 제어 시스템, 계장설비, 각종 콘트롤러, 교류전자 접촉기, 개폐기(MC,M/S), 배선용 차단기(NFB), 진공차단기(VCB) ●건설 : 효성빌라, 주택건설, 각종 건축 공사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YOSUNG INDUSTRIES CO., LTD.